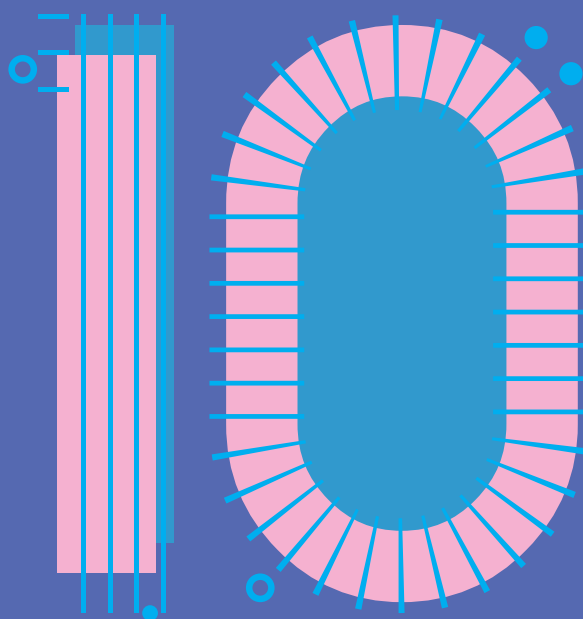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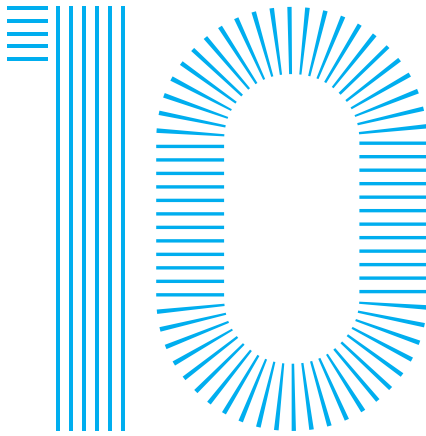


성북문화재단
10주년 백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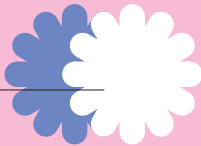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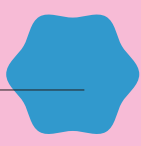
성북문화재단

- 4 성북문화재단 대표이사 발간사
- 6 성북구청장 축하글
- 8 김영배 국회의원 축하글
- 10 기동민 국회의원 축하글
- 12 성북구의회 오중균 의장 축하글
- 13 재단 네트워크 축하글

마음을 세우다



마음을 바로하다



마음이 나아가다

당고 싶고

18 2012년 9월 1일 우리들은 시작했다
_ 성북문화재단 조직 성장 과정
_ 재단 비전

대표이사 인터뷰

돌아보며

80 미술사를 넘어선 우리들의 이야기 _ 성북구립미술관 소장품
82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 _ 문인사기획전
85 역사적 기록과 영화적 재현 _ 조선왕릉역사영화제

책속의 업서

함께했고

140 성북만의 북페스티벌을 만들어내다 _ 책모꼬지
143 음식을 매개로 서로 다른 문화가 마주하다 _ 성북세계음식축제 누리마실
145 차별없는 즐거운 여름을 위하여 _ 성북문화바캉스
149 "있어왔던", "해왔던" 플랫폼형 축제 _ 성북진경
151 지역주민들을 위한 문화예술 쉼터 _ 성북구민여성회관
154 성북을 대표하는 다목적 공연장을 세우다 _ 꿈빛극장
156 한국의 대표적인 예향(藝鄕)으로서 가치 _ 성북구립미술관
159 작지만 깊은 예술가의 숨결로 가득찬 _ 성북구립 최만린미술관
163 예술가들을 위한 살아있는 창작 공간 _ 성북예술창작터
166 아이들의 꿈이 그려지는 특별한 미술관 _ 성북어린이미술관 꿈자람
169 처음과 같이, 지금은 15개의 문화공간으로 _ 성북구립도서관
171 공공영화관의 새로운 미래 _ 아리랑시네센터
173 건축과 예술 그리고 주민참여 _ 김종업건축문화의 집
175 문화예술교육실천가들의 아지트 _ 문화예술교육공작소 함
178 마을안에서 나만의 예술 만나기 _ 돌곶이생활예술센터

새로운 시작

210 삶과 문화의 순환도시 _ 문화도시, 성북

거버넌스

27 도서관에서 전화를 걸기 시작했다 _ 성북구립도서관 네트워크:온
30 토론과 토론과 토론과 토론이어도 소중하다 _ 원북성북
33 성북 거버넌스의 상징 _ 공유성북원탁회의
35 예술하기 좋은 동네 만들기 _ 예술순환로
39 축제를 배우는 자리 _ 축제협력네트워크

게임의 법칙에 관한 신비한 체험 (김종위 전 성북문화재단 대표이사)
소개만 하다 끝나기도 했던 시작 (지역문화팀 공준호)

내다보며

93 생활문화부터 엘시스테마까지 _ 구민회관 프로그램
97 서로의 악기 소리에 귀 기울이며 _ 꿈의 오케스트라 성북
100 미술관과 친해지는 방법 _ 성북구립미술관 문화프로그램
102 어린이들이 자라는 미술관 _ 어린이미술관
104 일방향이 아닌 양방향으로 향해서 _ 작가와의 만남
106 꾸러미에 담긴 우리들의 평등 _ 북스타트
109 문화예술교육의 거점, 그 이야기 _ 청소년문화공유센터
111 예술을 통해 나를 만나는 시간 _ 성북생활문화살롱2.0
114 지역이 함께 만드는 문화예술교육 플랫폼
_ 기초단위 문화예술교육 거점 - '성북문화예술교육허브'

담고 싶고

47 도서관 하나 개관하는 일이란 ... _ 월곡꿈그림도서관
50 책으로 신나게 더 신나게! _ 아리랑어린이도서관
54 도서관 지하에 마을 극장을 세우다 _ 천장산우화극장
56 내비게이션으로 찾을 수 없는 미스터리한 공간 _ 미아리고개하부공간
59 청년들을 위한 특별한 발전소 _ 청년살이발전소
64 파도처럼 밀려오는 독립영화의 물결 _ 아리랑인디웨이브
67 극장의 인격을 이야기하다 _ 미아리고개예술극장

월곡꿈그림도서관과 나 (독(讀)한 친구들 최예슬)
덕분에 오늘도 행복했습니다 (성북구안책추진단 운영위원장 이정화)

마주했고

120 성북의 공유도시를 펼쳐보이다 _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122 성북의 예술가들, 제주로 향하다 _ 제주비엔날레
126 교류를 통한 특별한 기억하기 _ 제주4.3 70주년 교류활동
128 이주민과 선주민이 함께 공존하는 마을을 위하여
_ 다문화도서관(성북정보도서관)
130 예술의 전당 VIP석의 감동을 영화관에서 _ 싹 온 스크린
131 유럽의 문화 속 공존과 조화의 가치 _ 유럽단편영화제
133 젊은 영화인들의 축제 _ 성북청춘불패영화제
136 개성 넘치는 독립영화를 만나다 _ 인디서울
137 지금, 우리는 (포함)될 수 있을까? _ 공공예술사업

꿈꾸고

180 도서관이 마을 밖으로 나가면 어떻게 될까? _ 마을in수다
182 성북의 즐거운 동네살이 _ 예술마을만들기
185 지역을 바꾸는 새로운 실험 _ 나만의 생업만들기 - 창업공작터
188 청년창업의 자유로운 실험공간 _ 청년창업실험공간 팝업스토어 공업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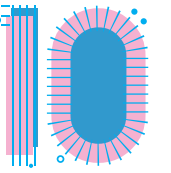
이루고

190 **성북문화재단 수상실적**

지키고

192 300여명의 정기후원자 _ 나눔풍성 후원
194 어른신들의 이야기를 펼쳐내는 예술가들 _ 이야기청
198 시켜줘, 마을 보안관! _ 방역지원 활동

할말하일 (재단 출범 10주년 직원간담회)



어떤 한 분야에서 10년을 일하면 전문가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출범 10주년을 맞이하는 성북문화재단은 이제 전문가의 영역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조금은 서투르고 더듬거렸던 시작에도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한 걸음씩 저희가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준 활동가들과 예술가, 그리고 주민들이 있어 지금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저희가 주춤거림 없이 10년의 활동 경력을 가진 전문가로 앞으로 나서고자 합니다. 그래서 '삶과 문화의 순환도시, 성북'으로 지금까지와는 조금 다른 모습으로 <문화도시 성북>을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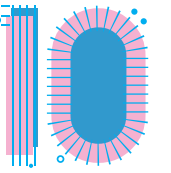
그간 지역 안에서 펼쳐진 축제를 비롯하여, 문화예술교육과 청년창업, 그리고 다양한 공연과 전시들은 순간의 반짝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문화도시 성북>으로 가기 위한 별자리가 되어 줄 것이라 여깁니다.

성북문화재단의 10년은 단순한 재단의 역사가 아닌, 우리 성북이 서로를 배려하며 서로에게 다가간 시간입니다. 그렇기에 이번에 발행되는 성북문화재단 출범 10주년 백서에는 재단 뿐 아니라 성북의 이야기가 담기게 되었습니다.

성북문화재단은 출범 10주년을 맞이하여 재단과 함께한 분들을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삶과 문화가 순환되는 성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또다른 훗날, 지금을 되돌아보았을 때 우리 안에 담아두어야 하는 가치 있는 시간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성북문화재단의 10년을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성북문화재단 대표이사 이건왕



안녕하십니까? 성북구청장 이승로입니다. 성북문화재단의 창립 10주년을 축하합니다.

성북구청과 함께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예술 기반을 쌓기 위해 애써온 시간이 어느덧 10년이 되었다는 사실이 놀라우면서도 감사합니다. 성북문화재단은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에도 우리 구민들에게 문화·예술적 즐거움을 선사하기 위해 힘써 왔습니다. 이번 지면을 빌어 성북문화재단 임직원 여러분의 그간 노고에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뜨거운 햇살 아래에서도 어린이들이 차별없이 여름을 즐길 수 있는 성북의 특별한 워터파크 '성북문화바캉스'를 비롯하여 음식을 통해 너와 나의 다름을 이해할 수 있었던 '성북세계음식축제 누리마실'은 지역에서 빼놓을 수 없는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주민 모두가 함께 읽은 한 책을 매개로 한 자리에 모이는 '성북 책모꼬지'는 지역을 넘어서 책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독서운동이 되었습니다.

이제 다시 조금은 멀어졌던 우리가 가까워지는 일상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성북의 다양한 대표 축제들을 통해 자연스럽게 '우리'라는 공동체로 하나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예술마을 만들기'와 '한책추진단'을 비롯한 재단이 설립 당시부터 관심과 심혈을 기울였던 '성북 거버넌스'의 힘을 믿기 때문입니다.

지금 성북구는 제4차 문화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모두가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삶과 문화의 순환도시>라는 슬로건처럼 모두가 발맞춰 나아가고 있는 지금, 성북문화재단이 그 중심에서 든든한 구심점 역할을 해내리라 믿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그랬듯, 앞으로도 재단이 성북을 대표하는 문화예술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해주길 기대합니다. 성북구도 언제나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북구청장 이승로

뜻깊은 성북문화재단 출범 1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초대 이사장으로서 시작점에 있을 때 받았던 모두의 기대와 박수가
지금도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지역 안에 있던 보이지 않던 벽들을
문화예술이라는 문으로 바꾸기 위해 노력했던 시간들
너와 나를 구분하기 위한 벽이 아닌
우리가 즐겁게 만날 수 있는 문으로
그렇게 출발했던 시간.

저에게는 돌이켜 볼 수 있는 시간이
성북문화재단 안에 담겨있는 것 같아
언제나 곁에서 함께한 듯 합니다.

문화예술의 부흥기부터 모두가 함께 어려웠던 코로나19의 시간까지
주민들에게 문화예술 향유의 자리부터 예술교육과 청년창업까지
그 활동 영역을 넓혀가며 지금에 이른 모습은
저에게는 감동이라는 말로 다가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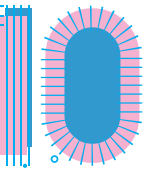
이제는 성북의 주민으로
성북문화재단과 함께하고 있는 지금,
현재에 만족하지 않고 '문화도시'로 다시금 한 걸음을 내딛는 발전은
주민으로 함께하는 저의 마음까지 두근거리게 해줍니다.

이제 다시 가까워져가고 있는 시기에
성북은 성북문화재단이 있어 참 다행인 것 같습니다.
언제나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렇듯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만남의 자리를 만들어 줄 것을 기대하며,
항상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고마웠습니다.

국회의원 김영배





성북문화재단 출범 1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기념 백서 출간을 준비하신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0년간 성북문화재단은 성북의 문화정책을 계획하고 실행해왔습니다. 관계기관과 소통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며 쌓아온 성북문화재단의 부단한 노력에 박수를 보냅니다. 지역 문화발전에 힘쓴 시간들은 '2018년 아시아 최초 세계지방정부연합(UCLG) 국제문화상 수상'이라는 쾌거를 낳았습니다.

이제, 지난 10년의 시간을 통해 새로운 10년을 열어야 합니다. 성북의 문화정책을 이끌어온 성북문화재단이 '문화도시, 성북'으로 나아가는 마중물이 되어야 합니다. 성북문화재단이 지역 문화의 발전을 이끄는 선도적 위치에 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성북문화재단의 시간에 언제나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회의원 기동민



오중균 성북구의회 의장 축하글



안녕하십니까? 성북구의회 의장 오중균입니다. 재단의 창립 10주년을 축하합니다.

지역 안에서 다양한 거버넌스를 비롯하여 축제와 문화시설 운영에 힘쓰던 시간이 쌓여 10년이라는 탑이 되었다는 것에 새삼 놀라움을 느낍니다. 그동안 지역주민들을 위해 애쓰던 모습을 현장에서 마주하며 소소한 감사의 인사를 전했었는데 10주년 백서 출간에 이렇게 축하와 감사의 글을 넣을 수 있는 자리가 생겨 기쁘게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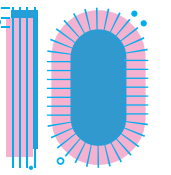
우리는 지난 시간 코로나19라는 경험한 적 없는 어려움 앞에서 모든 것이 낯설고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위기 상황 속에서도 지역 안에서 안전함을 느끼고 서로에게 등을 돌리지 않았던 것은 재단을 비롯한 지역 안의 건강하고 뿌리깊은 거버넌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이 힘으로 서로를 지켜줄 수 있는 거리를 유지할 수 있었고, 누구도 혼자가 아닌 성북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들은 이러한 거버넌스의 힘으로 <삶과 문화의 순환도시, 성북>을 향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성북, 모두가 문화와 예술 그리고 사회적 안전을 누릴 수 있는 성북. 이러한 문화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성북구의회도 힘을 모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북만이 가진 특별함을 믿고 지지합니다.

성북구의회 오중균 의장

재단 네트워크 축하글



성북문화재단의 1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저 또한 성북구에 사는 구민으로서 성북문화재단의 여러 문화 프로그램을 즐겨왔습니다.
이후에도 문화의 지역인 성북구로 만드는데 많은 힘을 써주시길 바랍니다.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10주년!

- 양익준 영화감독 배우



꿈의 오케스트라 성북의 음악감독 문진탁입니다. 성북에서의 세월이 벌써 10년이 흘렀네요. 지난 시간 동안 성북의 일원임을 항상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아이들에게 보여주신 사랑 감사드리고, 앞으로의 10년도 멋진 시간이 되길 응원합니다

- 문진탁 꿈의 오케스트라 성북 음악감독



독보적으로 뛰어난 한국 근현대 미술가들의 삶이 축적된 곳. 그 터전에서 한국의 회화, 조각, 미학이 싹트고 울창한 숲을 이룬 곳.
동덕여자대학을 포함해 전통에 빛나는 우수한 대학들이 공동체의 지성과 문화 예술을 함양하는 곳. 성북구를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올해 10주년을 맞은 성북문화재단은 그러한 성북구의 삶과 문화가 순환하는 "문화도시성북"을 향해 나아가는 핵심 동력장치입니다.
진심으로 큰 박수를 보내며 함께 발전하도록 힘을 보태겠습니다!

- 강수미 동덕여자대학교 교수



성북 지역문화생태계의 구성원으로 협력적 거버넌스에 기초한 지역문화재단의 새로운 모델로서, 부지런히 달려 온 성북문화재단의 10주년을 축하합니다. 무엇보다 '성북동나무'의 결을 함께 지키고, '첫 번째 누리마실'을 위해 빗속을 헤매고, '멕시코행 비행기 티켓'을 위해 사다리를 타던... 우리들의 소중한 동네친구가 되어 준 성북문화재단 식구들, 많이 고맙습니다!

- 공살구(이원재) 공유성북원탁회의 1기 공동위원장 / (사)시민자치문화센터 대표



성북문화재단의 창립1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지금까지처럼 앞으로도 공유성북원탁회의와 함께 성북의 문화예술을 유지, 발굴, 전파하는데 더욱 애써주시길 바라며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종승이형(이종승) 2022 공유성북원탁회의 공동운영위원장



성북문화재단 출범 10주년을 축하합니다.
아리랑시네센터를 통해서 추구해 온 다양한 영상문화가 성북구민과 함께 더 큰 발전을 기대합니다.

- 이준익 영화감독



다양한 이야기와 풍요로운 일상의 문화도시 성북의 비전 달성을 위해 열심히 달려온 성북문화재단의 창립 1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앞으로의 10년은 성북과 서울을 이끌어온 10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성북과 서울을 넘어 아시아와 세계를 이끄는 문화재단이 되길 응원합니다.

- 리상섭 동덕여대 캠퍼스타운단장



성북문화재단의 1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성북구 한책읽기를 비롯한 다양한 문화활동을 통해 성북주민의 자긍심을 높여주고 삶을 풍요롭게 해 준 재단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오랫동안 주민들과 벗하며 문화역사의 지평을 넓혀가기를 기원합니다.

- 이정화 2022 한책추진단 운영위원회 위원장



성북문화재단 한 분 한 분 10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성북의 시민의 한명으로서 자부심을 느끼게 해주셨습니다.

- 봉봉(유영봉) 공유성북원탁회의 1기 공동위원장 / 극단 서울괴담 연출



어쩌다 우리는 함께 하게 되었는지 되짚어보다 어느새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즐거운 추억들로 흘러갑니다. 유독 도드라진 몇몇 이야기들을 뜯금없이 자랑하고 싶기도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여전히 이곳에 모여 사는 이유겠지요. 지난 십년처럼 앞으로도 꼭 같이 갑시다.

- 육끼(황지원) 2022 공유성북원탁회의 공동운영위원장



마음을 세우다



닿고 싶고

2012년 9월 1일 우리들은 시작했다 _ 성북문화재단 조직 성장 과정(비전과 미션)
대표이사 인터뷰

거버넌스

도서관에서 전화를 걸기 시작했다 _ 성북구립도서관 네트워크 : 온
토론과 토론과 토론과 토론이어도 소중하다 _ 원북성북
성북 거버넌스의 성장 _ 공유성북원탁회의
예술하기 좋은 동네 만들기 _ 예술순환로
축제를 배우는 자리 _ 축제협력네트워크

답고 싶고

도서관 하나 개관하는 일이란... _ 월곡꿈그림도서관
책으로 신나게 더 신나게! _ 아리랑어린이도서관
도서관 지하에 마을 극장을 세우다 _ 천장산우화극장
내비게이션으로 찾을 수 없는 미스터리한 공간 _ 미아리고개하부공간
청년들을 위한 특별한 발전소 _ 청년살이발전소
파도처럼 밀려오는 독립영화의 물결 _ 아리랑인디웨이브
극장의 인격을 이야기하다 _ 미아리고개예술극장



2011

07.15. (가칭) 성북문화재단 설립 공청회

2012

03.02. 성북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07.04. 재단법인 성북문화재단 창립총회
07.31. 법인설립등기
09.01. 재단법인 성북문화재단 출범
09.15. 제2회 책 읽는 성북 북페스티벌 '책 숲에서의 하루'
10.13. 제1회 성북진경 페스티벌

2013

03.24. 찾아가는 문화나눔 '반반(半半)한 이동극장'
04.01. 성북 역사, 문화, 예술 최고위 과정
04.11. 성북예술창작터 개관
05.03. 정릉도서관 개관
05.12. 제6회 성북다문화음식축제 누리마실
05.22. 성북청소년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개소
09.12. 마을영화기획전 <마을 다큐멘터리와 마을 공동체>
09.28. 제3회 책 읽는 성북 북페스티벌 '책, 숲을 품다'
10.12. 제2회 성북진경 페스티벌
12.15. 제1회 문화다양성축제 <심연향연>

2014

01.01. 성북도원 개관
달빛마루, 석관동미리내, 서경로꿈마루도서관 재단 운영 이관
01.19. 성북다문화도서관 개관
02.19. 청수도서관 개관
02.26. 제1회 꿈의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03.19. 아리랑시네센터 10주년 기념 재개관
06.13. 한양도성 풍류순성(風流順城)
09.13. 제3회 성북진경 페스티벌
한양도성 문화제
10.18. 성북 책모꼬지 '두근두근 성(城)북(Book)'
11.02. 정릉 청소년 휴카페 개관
12.01. 제2회 꿈의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12.06. 제2회 문화다양성축제 <심연향연>
12.12. 성북청소년문화공유센터 개관

2015

05.15. 제3회 유럽단편영화제 '유럽, 50개의 시선'
05.17. 제7회 성북세계음식축제 누리마실
07.31. 제1회 성북문화바캉스
09.19. 성북 책모꼬지 '소금길 따라 칙칙폭폭'
09.21. 미인도(미아리고개 하부공간) 운영 개시
10.02. 제4회 성북진경 페스티벌
11.30. 제3회 꿈의 오케스트라 성북 정기연주회

2016

05.19. 제4회 유럽단편영화제 '우리, 가족입니까?'
05.22. 제8회 성북세계음식축제 누리마실
06.29. 제4회 꿈의오케스트라 성북 정기연주회 '나눔풍성콘서트'
07.29. 제2회 성북문화바캉스
09.03. 제3회 구석구석 잔치
10.08. 제5회 성북진경 페스티벌
10.19. 2016 세종문화회관 생활오케스트라 축제 (꿈의오케스트라 성북 본선 진출)
10.22. 성북 책모꼬지 '오늘, 소년을 만나다'



2017

05.21. 제9회 성북세계음식축제 누리마실
05.24. 제5회 유럽단편영화제 '당신은 행복한가요?'
07.22. 월곡꿈그림도서관 개관
07.28. 제3회 성북문화바캉스
09.02. 제4회 구석구석 잔치
10.13. 제6회 성북진경 페스티벌
11.04. 성북 책모꼬지 '쇼코와 마주하다'
12.07. 제1회 왕릉영화제
12.22. 아리랑어린이도서관 개관

2018

03.13. 천장산우화극장 개관
04.09. 거리갤러리 개관
05.25. 세계지방정부연합(UCLG) 국제문화상 수상
06.16. 제10회 성북세계음식축제 누리마실
06.21. 제6회 유럽단편영화제 '함께라서 좋아'
07.27. 성북이음도서관 개관
08.02. 제4회 성북문화바캉스
09.15. 성북 책모꼬지 '똑똑, 들어가도 될까?'
10.13. 제7회 성북진경 페스티벌
10.20. 제5회 구석구석 잔치
11.29. 제2회 조선왕릉역사영화제

2019

05.26. 제11회 성북세계음식축제 누리마실
06.28. 장위행복누림도서관 개관
07.27. 제5회 성북문화바캉스
08.13. 성북어린이미술관 꿈자람 개관
10.11. 제8회 성북진경 페스티벌
10.17. 문화공간 이육사 개관
11.09. 성북 책모꼬지 '책으로 만나는 이웃, 모두가 책이 되다'
11.28. 제3회 조선왕릉역사영화제
12.29. 성북길빛도서관 개관

2020

08.20. 성북구립 최만린미술관 개관
10.22. 독립영화전용관 10주년 특별전 '아리랑인디웨이브'
11.20. 제12회 성북세계음식축제 누리마실
11.26. 성북 책모꼬지 '그럼에도 우리는, 책모꼬지'
12.22. 글빛도서관 임시운영 시작

2021

04.17. 꿈빛극장 개관 페스티벌
09.01. 기주봉 배우전
10.26. 성북 책모꼬지 '우리, 함께'
11.06. 두근두근 별길마켓
11.11. 제1회 성북청춘불패영화제
11.12. 제13회 성북세계음식축제 누리마실
11.23. 성북진경 x 오픈스페이스 페스타
12.20. 제4차 문화도시의 예비사업 대상지 선정

마음을 세우다

닿고 싶고

2012년 9월 1일 우리들은 시작했다

성북문화재단 조직 성장 과정

재단법인 성북문화재단은 2012년 9월 1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 문화 예술 진흥과 구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하여 설립되었다. 그 첫 시작은 1본부 4팀(문화예술기획팀/ 문화시설팀/ 도서관팀/ 행정지원팀)으로 지금과는 많이 다른 모습이었다.

그 후, 성북문화재단은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2본부로 변경하였다. 문화시설사업분야의 기능 강화와 도서관본부의 신설이었다. 그 중에서도 도서관본부는 대표도서관 중심의 책임운영체계를 수립하였으며, 거점도서관(성북정보도서관, 아리랑정보도서관)을 지정하여 성북구 안에 넓게 배치되어있는 성북구립도서관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게 되었다. 또한 정책협력팀을 신설하여 대내외적으로 변화하는 문화정책에 빠른 대응을 할 수 있게 되었다.

2016년에는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 향유와 예술가들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예술마을만들기TFT와 도서관지역협력팀을 새롭게 편성하였다. 그리고 마을공유극장팀을 문화지역협력팀으로 변경하여 거버넌스 및 민관협치의 발판을 마련하였다. 그 후에는 2018년에 문화지역협력팀과 도서관지역협력팀을 상임이사직속 지역문화팀으로 통합하여 문화사업본부와 도서관본부의 중복되는 기능 및 업무를 통·폐합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였다.

지금은 점차 강화되는 안전 운영을 위해 안전지원팀과 시설관리부문을 신설하였으며 예비문화도시 선정으로 문화도시센터를 신설하였다. 이는 <성북구 문화도시 기본계획>에 따른 내실 있는 문화도시사업 추진과 법정문화도시 지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함이었다.

조직구성

연도	조직	구성	내용
2012	1본부 4팀	문화예술기획팀, 문화시설팀, 도서관팀, 행정지원팀	출범
2014	2본부 1단 4팀	문화사업본부, 도서관본부, 정책지원단, 문화예술교육팀, 도서관운영팀, 행정지원팀, 정책협력팀	본부 신설 정책협력팀 신설
2016	2본부 1단 13팀 2부문	문화사업본부, 도서관본부, 정책지원단, 문화기획팀, 문화지역협력팀, 아리랑시네센터팀, 성북구립미술관팀, 성북구민회관팀, 성북여성회관팀, 도서관기획팀, 도서관지역협력팀, 성북정보도서관팀, 아리랑정보도서관팀, 행정지원팀, 정책협력팀, 감사팀, 전산부문, 시설관리부문	문화지역협력팀, 도서관지역협력팀 신설 전산부문, 시설관리부문 세분화 신설
2018	3부 8팀 1부문 10도서관 (1분관)	문화사업부, 도서관사업부, 경영지원부, 문화정책팀, 지역문화팀, 영상미디어팀, 공연예술팀, 미술팀, 도서관기획팀, 행정지원팀, 예산회계팀, 전산부문, 성북정보도서관, 아리랑도서관, 아리랑어린이도서관, 종암동새날도서관, 해오름도서관, 정릉도서관, 청수도서관, 서경로꿈마루도서관, 달빛마루도서관, 석관동미래내도서관, 월곡꿈그림도서관, 성북이음도서관	지역문화팀 신설 (문화지역협력팀, 도서관 지역협력팀 업무 총괄) 행정지원팀에서 재무회계 팀 분리 도서관별 분리
2020	3부 9팀 2부문 15도서관 (2분관)	문화사업부, 도서관사업부, 경영지원부, 문화정책팀, 지역문화팀, 영상미디어팀, 공연예술팀, 구립미술관운영팀, 도서관기획팀, 행정지원팀, 예산회계팀, 안전지원팀, 전산부문, 시설관리부문, 성북정보도서관, 아리랑도서관, 아리랑어린이도서관, 종암동새날도서관, 해오름도서관, 정릉도서관, 청수도서관, 서경로꿈마루도서관, 달빛마루도서관, 석관동미래내도서관, 월곡꿈그림도서관, 성북이음도서관, 장위행복누리도서관, 성북길빛도서관, 글빛도서관	안전지원팀, 시설관리부문 신설 글빛도서관 신설
2022	3부 9팀 2부문 15도서관 (3분관) 1센터(2팀)	문화사업부, 도서관사업부, 경영지원부, 문화정책팀, 지역문화팀, 영상미디어팀, 공연예술팀, 구립미술관운영팀, 도서관기획팀, 행정지원팀, 예산회계팀, 안전지원팀, 전산부문, 시설관리부문, 성북정보도서관, 아리랑도서관, 아리랑어린이도서관, 종암동새날도서관, 해오름도서관, 정릉도서관, 청수도서관, 서경로꿈마루도서관, 달빛마루도서관, 석관동미래내도서관, 월곡꿈그림도서관, 성북이음도서관, 장위행복누리도서관, 성북길빛도서관, 글빛도서관, 문화도시센터, 문화도시기획팀, 협력거버넌스팀	문화도시센터 신설 (문화도시기획팀, 협력거버넌스팀)



직원 수는 설립 당시 85명 정원에 70명 현원이었으나 10년이 된 지금 176명 정원에 174명 현원이 되었다. 이는 신설되는 문화시설(성북구립도서관, 공연장, 미술관 등)의 증가와 성북구의 강화되는 문화정책 때문이었다.

현재 성북문화재단의 174명의 직원들은 자신의 전공과 경험을 살려 다양한 현장에서 주민들을 만나고 있으며, 현장에서의 경험들이 쌓이며 전문적인 문화예술 관련 종사자로 거듭나고 있다.

조직구성

연도	인원(정원)	인원(현원)
2012	85	70
	:	
2014	144	130
	:	
2022	175	174



재단은 설립초기에는 문화공동체 형성과 문화예술의 부흥을 목표로 하는 비전 '이야기와 꿈이 많은 성북'을 향했다. 지역의 다양한 문화콘텐츠 발굴과 도서관을 비롯한 문화시설을 거점으로 우리들의 이야기를

모았고, 이를 서로 교류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갔다.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공유성북원탁회의>이며, 구립도서관의 <네트워크 : 온>이다.

	2014		2017
비전	이야기와 꿈이 많은 성북	➔	문화분권과 문화재생 기반 지역문화 활성화
미션	· 역사 기반의 문화콘텐츠와 협력 네트워크 구축 · 책 기반의 문화예술교육과 지식 생태계 구축 · 생활기반의 문화예술 및 문화 다양성 확대		· 문화재생 마을재생 · 주민주도 문화분권 · 지역문화 거버넌스 활성화 · 지속가능 경영과 문화행정

재단은 그동안 모아진 우리들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17년부터는 본격적인 문화분권과 거버넌스 활성화를 위해 노력했다. 그 결과는 현재 각 마을에서 펼쳐지고 있는 '예술마을만들기'로 보여지고 있다. 각 마을의 특색에 맞는 축제와 거버넌스의

자리는 성북의 주민들이 참여자에서 주체적 구성원으로 성장의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성북문화재단은 다른 자치구 문화재단들에 거버넌스의 성공적 사례로 소개되기도 하였고 다양한 성과들을 만들어냈다.

	2017		2021
비전	문화분권과 문화재생 기반 지역문화 활성화	➔	다양한 이야기와 풍요로운 일상의 문화도시 성북
미션	· 문화재생 마을재생 · 주민주도 문화분권 · 지역문화 거버넌스 활성화 · 지속가능 경영과 문화행정		· 누구나 문화로 행복한 공동체 조성 · 주민과 예술가가 어우러지는 문화도시 구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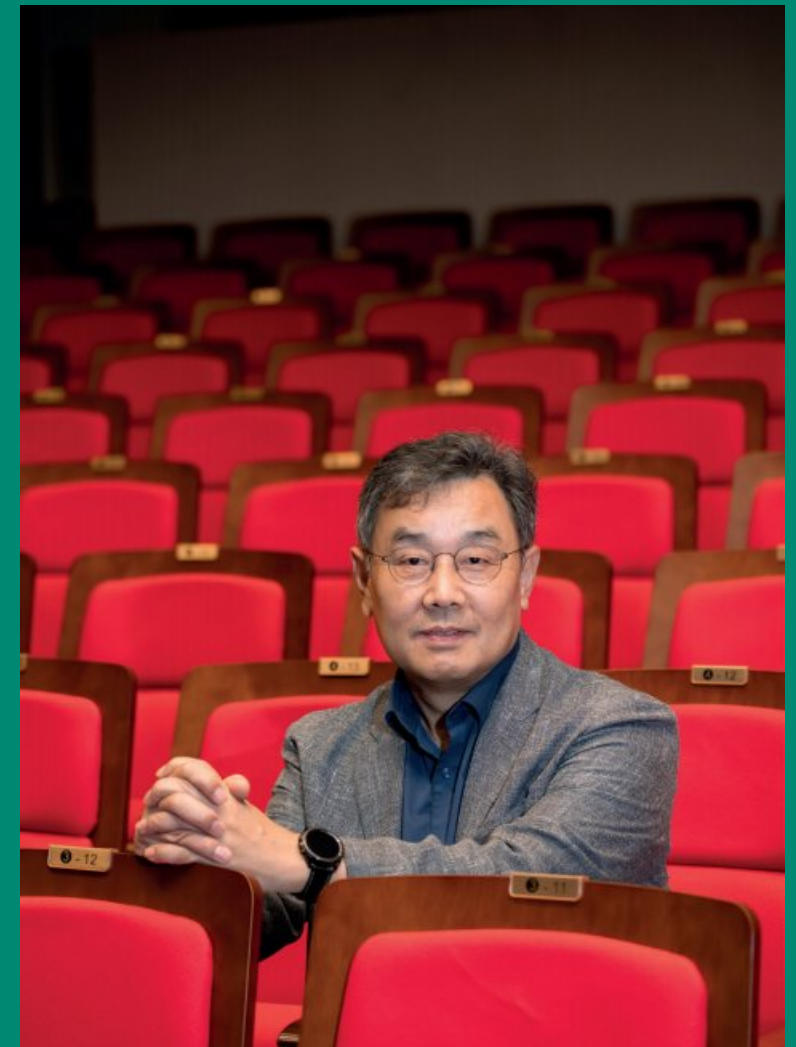


그리고 이제 성북은 <문화도시, 성북>으로 다시 새로운 발걸음을 내딛는다. 그동안 우리가 일군 공동체의 이야기에서 시작된 문화분권과 시민력 향상은 서로가 서로에게 기둥이 되어줄 수 있는 '순환'의 방향으로 향한다. 이는 지난 10년의 이야기가 있었기에 향할 수 있는 방향이며, 성북문화재단의 새로운 10년이 될 것이다.



문화예술로 차별없는 지역을 만들고자 하는 성북문화재단의 노력은 현재도 진행중이며, 앞으로도 계속 될 것이다.

이건왕 대표이사 인터뷰



성북문화재단은 올해로 어느덧 출범 1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재단이 쌓아 올린 다양한 이야기들과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들. 과연 어떤 것들이 우리들을 기다리고 있을지 현재 성북문화재단을 이끌고 있는 이건왕 대표이사님을 통해 그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북문화재단이 올해로 출범 10주년을 맞이했는데, 이에 따른 대표님의 소감을 우선 들어보고 싶습니다.

성북문화재단의 출범 10주년은 나도 축하를 해주고 싶은 만큼 의미있는 일이다. 10년전 출범 당시의 성북문화재단은 여러가지면에서 매우 열악한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직원들의 노력과 주민들과 예술가 그리고 활동가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지금과 같은 모습에 이르렀다. 재단의 10년은 한 기관의 10년이라기보다는 지역이 하나로 마음을 모은지 10년이 되었다는 것으로 표현될 수 있다.





대표님께서 성북으로 오신지 2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처음 밖에서 성북문화재단에 대해 들었던 이미지와 현장에서 직접 본 재단은 어떻게 달랐는지 들려줄 수 있을까요?

성북은 내가 나고 자란 곳이기에 마음 한편에 항상 관심이 있었으나 성북문화재단에 대해 밖에서 잘 알지는 못했다. 다만, 성북의 거버넌스가 특별하다는 사실만 어렵게 알고 있었다. 그리고 직접 성북에 와서 마주했을 때는 많이 놀랐다. 예상보다 단단하고 신뢰가 깊은 거버넌스를 보았기 때문이다. 어쩌면 기초문화재단에서 추구해야 하는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었다. 그러면서 이러한 성북문화재단의 거버넌스와 관련된 성과들을 잘 알려야겠다고 생각했다.

성북문화재단에 와서 가장 인상 깊었던 직원의 모습과 시설의 모습이 있을까요?

재단의 모든 직원들이 인상적이었다. 다양한 분야의 시설들을 운영하는 것. 30억 가까이 되는 외부 공모사업을 매년 따오는 성과들을 보면서 직원들의 열정이 느껴졌다. 건강한 지역문화생태계를 위해 주어진 한계 안에서 활동하는 것이 아닌, 필요한 것을 하기 위해 직접 공모사업에 뛰어드는 건 대단한 열정이다. 월곡꿈그림도서관을 처음 방문했을 때는 그곳에 담긴 스토리에 감동받았다. 거버넌스를 통해 시설을 설립한다는 것이 사실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정말 그것을 이루었고, 개관 이후에도 여전히 해당 거버넌스를 통해 운영된다는 것이 놀라웠다. 나에게서는 경이로운 도서관으로 다가왔다.

혹시라도 대표님의 자제분이 성북문화재단에 지원하고 싶다 말한다면 어떤 말을 해주고 싶으세요?

당연히 추천해주고 싶다. 성북에서 일하게 된다면 지역 문화와 거버넌스의 힘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여긴다. 이곳에서 일할 수 있다면 아마 앞으로 성장의 큰 밑거름이 될 것이라 믿는다.

대표님께서 코로나19가 한창일 때 성북문화재단에 오셨는데요, 코로나19로 아직 접하지 못한 재단의 대표 사업 중 기대하고 있는 사업이 있을까요?

이번 여름 <성북문화바캉스>가 진행되었다. 그동안 결과영상과 이미지만 보았던 축제였는데 현장에서 보니 정말 대단했다. 주민들이 좋아하는 모습을 넘어 행복해하는 모습이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재단 직원들의 노고가 느껴졌다. 이번 축제 기간 동안 비가 내리기도 해서 현장을 전부 철수했다 설치하기를 반복했는데 이는 모두가 직원들의 힘이었다.

그리고 이제 곧 <성북세계음식축제 누리마실>이 펼쳐질 예정이다. 이 또한 큰 기대를 하고 있다. 성북동 거리에 펼쳐지는 다양한 나라의 전통 음식들과 문화들. 그리고 또한 그 안에서 행복해하고 즐거워 할 주민들의 모습을 상상해본다.

이러한 성북문화재단의 대규모 축제들은 축제 용역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닌 지역 안에서 만들어진 거버넌스로 펼쳐지기에 더욱 감동적이라는 말을 꼭 덧붙이고 싶다.

성북문화재단이 아직 시작해보지 않은 일 중에 이것만은 해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분야 혹은 영역이 있을까요?

문화도시다. 작년에는 제4차 예비문화도시에 성북이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다. 올해는 이를 바탕으로 본도시 선정까지 열심히 달리고 있다. 이것은 단순히 커다란 정책 사업을 따려고 하는 욕심이 아니다. 성북의 문화도시는 현재 거버넌스를 바탕으로 나아가고 있는 다양한 사업들 그 중에서도 각 마을에서 펼쳐지는 예술마을만들기의 새로운 확장이 될 것이다.

그리고 현재 성북으로 이주해오는 예술인들이 늘어나고 있다. 아마도 지금 짓고 있는 '창작연극센터'의 개관 위치가 성북에 있다는 것이 이를 증명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성북은 제2의 대학로가 아닌, 모든 장르의 예술이 멋지게 펼쳐지는 특별한 공간이 되었으면 한다.

대표님께서 그리고 있는 향후 성북문화재단 10년 후는 어떤 모습일까요?

예술가가 시민이고, 시민이 예술가인 도시를 꿈꾼다. 그것이 '삶과 문화의 순환도시, 성북'이라는 슬로건으로 진행되는 문화도시이다. 일상에서 문화예술을 자유롭게 향유할 수 있는 도시.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재단. 그것이 재단과 지역의 10년 후 모습이라 생각한다.





대표님께서 구상하는 재단의 미래에 도달하기 위해 각 팀별 혹은 사업부는 각각 어떤 일들을 해나가야 할지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 부탁드립니다.

재단은 현재 커다란 확장기에 있다. 이러한 확장기에 맞게 각 시설과 팀들은 현재 진행 중인 연속사업들의 고도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그것이 선도적 자치구 문화재단으로 손꼽히는 성북문화재단이 앞으로도 그것을 유지하는 방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펼쳐져도 '협치'라고 하는 성북이 지금껏 유지해 온 가치 안에서 움직여야 할 것이다. 우리의 시작점이 어딘지 다시금 되새겨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시기다.

현재 재단은 '문화도시'라는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모든 직원들이 하나 된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의 마음으로 오늘도 열심히 자신의 자리에서 일을 해나가는 재단 직원들에게 해 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충분히 열심히 해왔고, 앞으로도 이렇게 잘 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 지금껏 열심히 달려 온 직원들에게는 그만큼 성과에 따른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 질 것이다. 나는 오히려 성북문화재단의 직원들이 번아웃을 겪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 성북과 재단의 미래를 멋지게 그릴 수 있는 것은 성북문화재단의 직원들이 열심히 해주기에 가능한 것이다. 현재 재단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들은 우수한 평가를 받을 자격이 충분하며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마음을 세우다

거버넌스

도서관에서 전화를 걸기 시작했다

성북구립도서관 네트워크:온

도서관에서 이웃들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다.

"안녕하세요. 성북구립도서관입니다. 한 번 찾아봐어도 괜찮을까요?"

처음에는 도서관도, 이웃 가게들도 어색해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도서관에서 찾아간다고하니 수상하게 생각하거나 매몰차게 거절하지는 않았다. 아마도 사서들이 사전 연락 후 찾아가는 것이라보니 이유가 있겠다고 여기고 시간을 내어준 것이 아닌가 싶다. 그리고 도서관 밖에서 이웃들을 찾아가며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다보니 조금씩 공통점을 찾을 수 있었다. 그것이 2016년 11월 동행 프로젝트의 시작이었다. 지금 다시금 돌이켜보니, 겨울이었다.

꾸준하게 지역주민을 찾아 나선 발걸음과 기록들이 쌓이기 시작하자 성북에 대해 모르던 것들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했다. 도서관에서 이용자들을 맞이하며 보던 것과는 또 다른 새로운 이야기들이 시작되었다. 도서관과 이웃한 가게, 학교, 사람들과 함께 시작하게 된 이야기들. 그렇게 9개의 성북구립도서관이 3개월 동안 214개 단체, 526명을 만나게 되었다.

그 후, 동행 프로젝트를 계기로 마을에서 함께 '무언가'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과 단체들이 도서관에 모이게 되었다. '도서관 네트워크'의 시작이었다. 도서관에 정기적으로 모여 마을의 소식과 단체의 소식을 나누고, 그 중에서 도움이 필요하거나 함께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 논의했다. 동네에 일이 생기면 함께 돕기도 하였고, 필요한 것을 나누기도 하는 일상의 공간으로 도서관이 자리를 잡은 것이다.



도서관 네트워크는 도서관 사업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주었다. 네트워크:온, 마을in수다, 지역과 연계한 다양한 활동 등 도서관에서 벌어지는 일상에 모두가 참여해주었다. 그리고 동시에 도서관을 기반으로 하는 도서관 네트워크들이 생겨났다. 네트워크는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고 마을의 일상, 마을의 현안, 그리고 기관이나 단체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을 함께 나누었다. 모임에서 나온 제안이나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일들을 실천해보기도 하고, 활동 영역을 넓혀나가기도 했다. 이는 성북구립도서관이 목표로 지향하는 모습이었다. 도서관 지역밀착 서비스, 도서관이 먼저 지역에 다가가는 것, 도서관에 오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도서관이 먼저 다가가는 것을 목표로 성북구립도서관의 비전과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었다.

지역활동이 활발한 성북에서는 도서관 네트워크 외에도 다양한 마을 활동과 거버넌스, 협동조합, 단체들이 자신만의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러한 지역 안에서 도서관 또한 마을 활동에 함께한다는 것으로 의미가 있지만 '도서관에서 네트워크를 한다는 것'의 의미와 차별점을 지금도 계속 찾아가고 있다. 지역의 여러 정보들을 매개하고 확장시켜주는 역할과 더불어서 말이다.

네트워크:온 구성 현황

	2017	2018	2019	2020	2021
명	526	342	943	854	247
단체	214	140	193	190	103

네트워크:온 활동 현황

	2017	2018	2019	2020	2021
회		167	124	96	156
명		2,700	1,472	905	1,694

네트워크:온 이미지



정릉도서관 정도네



2020 정릉 마을in수다
<따로 또 같이, 우리 잘 살고 있어요!>

성북정보도서관 히히살롱



석관동미리내도서관 쓰담쓰담



마음을 세우다

거버넌스

토론과 토론과 토론과 토론이어도 소중하다

원북성북(ONEBOOK SEONGBOOK)

‘성북구 한 책 읽기’는 지역주민과 함께 한 권의 책을 선정하고 읽고 토론하는 성북구 대표 독서운동이다. 주민이 함께 읽을 ‘한 권’이라는 말이 어찌면 따분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성북구 한 책’의 선정 과정을 들여다보면 그 안에 담긴 다양한 즐거움을 알 수 있다. 보통 한 권의 책이 선정되기 전 추천되는 도서는 300여권을 넘는다. 그럼 그 추천된 책들을 모두가 함께 읽으며 자신과 다름을 이해해가며 소통하는 시간을 통해 새로운 이웃(관계)을 만들어간다. 나에서 우리, 마을에서 지역으로 생각과 이해의 폭을 넓혀내고, 이를 통해 지역문제를 주민 스스로 함께 풀어나가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한다.

주민들의 추천도서에서 토론과 토론과 토론과 토론과 토론을 통해 단 한권이 올해의 한 책으로 선정된다. 그렇게 선정된 한 권의 책이 무엇인지 선포되는 순간은 1,000여명의 한책추진단을 비롯하여 책을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며 집중하는 ‘성북구 한 책 읽기’의 클라이막스가 된다.

‘성북구 한 책 읽기’에 나이와 성별 직업과 활동지역, 관심사까지 다양한 층위를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것은 성북구립도서관의 ‘네트워크:온’을 통해 어느 한 곳에 한정되지 않은 도서관의 활동 덕분이다. 거기에 성북문화재단은 성북구립도서관뿐 아니라 미술관, 공연장, 영화관, 구민회관 등 다양한 문화시설을 운영하고 있기에 각 시설의 이용자들까지 ‘성북구 한 책 읽기’에 참여시켜 그 다양성을 확장시키고 있다. 그렇기에 어떤 책이 올해의 한 책이 되었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떤 과정을 밟고 있는지도 중요하다. 그토록 다른 성향의 사람들을 꾸준히 토론에 참여시키고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자리를 마련하는 것. 이것은 재단의 노력 뿐 아니라 ‘성북구 한 책 읽기’가 향하고 있는 통합의 자리에 참여자들이 동의하고 함께해주기에 가능한 것이다.

성북의 한 책 읽기 사업이 이렇게 자리잡을 수 있게 된 계기에는 ‘한책추진단’이 있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한책추진단’ 운영으로 지금의 한 책 읽기는 그 모습을 갖추 수 있었다. 일방적으로 도서관이 책을 정한 다음, ‘이 책에 대해 토론해볼게요’가 아닌 ‘저는 이 책 덕분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라는 말을 주민이 하게 된 것이다. 거기에 ‘한책추진단’의 성원들은 ‘한책추진단 운영위원회’로 더욱 깊게 참여하며 1년간

한 책 사업을 함께 공동기획하고 진행하게 된다. 이런 운영위원들이 특별한 것은 사회적 위치로 위원회가 아닌, 책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조금 더 부지런히 움직인다는 것이다. 그리고 성북구립도서관이 재단 출범 10주년을 맞이하여 ‘한 책 2.0’이라는 새로운 도약을 꿈꿀 수 있는 것도 이런 참여자들 덕분이다. 우리가 함께 읽는 책은 앞으로도 계속 펼쳐질 것을 의심하지 않는다.

한책추진단 수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126	188	287	514	700	1,301

한책사업 참여자 수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16,566 (책모꼬지 6,887명)	18,297 (책모꼬지 3,228명)	19,538 (책모꼬지 4,506명)	25,381 (책모꼬지 3,772명)	54,046 (책모꼬지 26,821명)	26,892 (책모꼬지 1,360명)

한 책 사업 관련 포스터





2018 한 책 최종선정토론회



2019 어린이 한 책 후보도서 작가와의 만남



2019 청소년 한책추진단 청청프로젝트X후보도서데이



2019 한책추진단 땡큐파티



2020 한책추진단 세대별 대표자 토론회



2021 한 책 최종선정토론회

성북 거버넌스의 상징

공유성북원탁회의

공유성북원탁회의는 “성북지역에서 활동하는 사람(모임, 단체)들 사이의 호혜와 우정의 관계망을 형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역문화생태계의 공존과 협력을 위해 더불어 활동하는 커뮤니티”이며, 거버넌스다. 2014년 지역 내 문화예술인들의 제안으로 시작되어, 현재는 400여명이 활동하고 있다. 2012년 준비모임이 시작되었고, 2014년 자율적인 모임으로 공식화되었다. ‘호혜와 우정의 관계망을 토대로 지역문화생태계를 활성화 시키고자 하는 커뮤니티’를 지향하는 공유성북원탁회의는 초창기부터 ‘창조적 공유지로서 협치(혁신 거버넌스)’를 제시하면서 ‘지역문화생태계 형성’, ‘창의적인 협치 실험’, ‘일상과 삶의 관계 확장’을 공약의 기능과 역할로 설정하고, 문화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민주성>, 우정과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연대성>, 구성원의 자유로운 활동을 기본으로 하는 <자율성>, 문화다양성을 인지하고 실현하는 <다양성>을 4가지 기본 원리로 운영된다. 이러한 운영원리 아래에 매년 2명의 운영위원장을 선출하고 20여 명의 운영위원으로 이루어진 운영위원회 구성하여 매달 운영위원회와 전체모임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주요 활동 의제별 분과를 만들어 지역 내 문화예술생태계의 의제를 발굴하고 공론의 플랫폼으로 역할하고 있다.



2019 UCLG 국제문화상 수상기념 지역문화협치 컨퍼런스

지역의 곳곳에서 모여 이야기하고, 무언가를 만들고, 때로는 함께 즐기며 성북 지역문화예술생태계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변화될 미래에 대해 논해왔던 공유성북원탁회의의 활동은 마을 곳곳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결실을 맺고 있다. 지역을 좀 더 세분화하여 만들어진 각 동네별 예술마을만들기 워킹그룹은 성북구라는 지역 속 동 단위의 다양성을 확보하며 각 동네의 주체를 발굴하고 기획 활동을 이어가고 있으며, 누리마실, 성북진경으로 대표되는 성북구의 축제를 민간 사무국과 함께 공동 주관하며 지역의 축제 문화를 변화시켜 나갔다. 또 미인도, 천장산우화극장, 지금은 없어진 성북동 가압장 등 문화예술 공간을 조성하고 운영과 관리에 대해 민간 주도의 방법을 모색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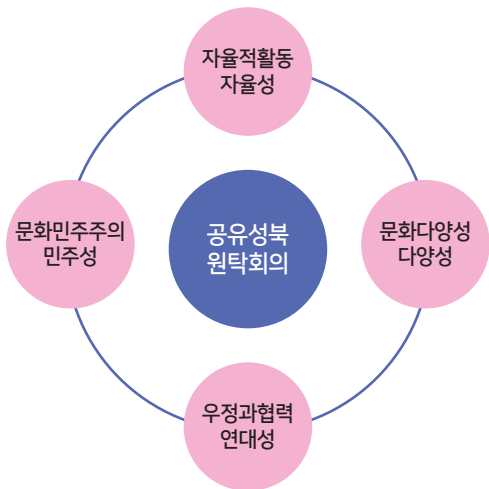
공유성북원탁회의의 지역문화예술생태계 활동은 한국사회는 물론 세계적인 차원에서도 주목을 받아 2018년 세계지방정부연합(UCLG) 국제문화상을 수상했다. UCLG는 국제문화상 수상을 발표하며 “지속 가능한 도시를 위한 문화정책의 중요하고 완벽한 사례”라고 소개했다. 이는 현재의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는 동시대적 지역문제에 대한 대안임을 인정하는 결과이다. 공유성북원탁회의를 통해 추진된 성북의 문화협치는 성북의 문화정책과 행정의 차원에서 성북문화재단을 비롯하여 다양한 공공기관과 시설을 매개로 주민참여형, 주민협력형 문화예술생태계를 형성하며 의미있고 구체적인 변화를 유도해왔다. 2년 후 2024년, 10주년을 맞이하게 될 공유성북원탁회의의 활동은 지역과 도시의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과정이다.

동네친구들과 함께 만들어 가는 지역문화생태계

동네 친구를 사귀듯 자연스레 만들어진 공탁 커뮤니티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지역문화생태계”다. 그래서 사람들은 공탁을 문화예술계 사람들의 모임으로 오해하기도 한다. 물론 많은 구성원이 문화예술과 관련된 일을 하지만 공탁이 강조하는 지역문화생태계는 결코 좁은 의미에서 직업인으로서의 문화예술인들의 커뮤니티가 아니다. 공탁에서 말하는 ‘문화’는 흔히 사회적 삶의 영역을 정치·경제·문화·사회 네 분야로 나눌 때 그 중 하나로서의 문화가 아니라, 그 모든 영역에서 사람들의 태도와 행동의 준거가 되고 공유되는 가치 및 의미의 체계를 말한다. 그러므로 공탁에서의 문화는 예술이나 여가 활동과 구별되며, 장식적이고 부가적인 활동을 가리키는 문화 개념과도 다르다. 다시 말해 공탁이 주목하는 문화는 ‘특정한 시기에 한 사회 안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가치, 태도, 신념, 지향점, 전체조건으로서의 문화’다.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서 대부분의 지역문화활동은 물리적 행정 구획으로서의 지역 안에서 한정된 분야로서의 문화와 예술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런데 공탁은 행정 구획으로서의 지역성을 넘어 ‘글로벌glocal 시대에 지역성이 갖는 대안적 원리와 가치’, 특정한 분야에 한정되지 않는 ‘사회적 가치이자 의미체계로서의 문화’, 직업적인 문화예술인만이 아니라 ‘보편적인 생활인과 시민으로서의 예술가’를 지역문화생태계의 출발점으로 삼는다.

<공유성복원탁회의 운영원리>



이러한 지역문화생태계는 결국 지역의 ‘삶-문화’로 연결된다.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서 문화는 먹고살 만한 다음에 누릴 수 있는 부차적인 것이거나 특별한 사람들인 예술가가 하는 것으로 여겨졌지만, 공탁 사람들에게 문화는 ‘삶의 정체성에서부터 경제활동에 이르기까지 죽고 사는 문제이자 삶의 필수적인 요소’이다. 중립적이고 탈사회적인 행위가 아니라 ‘정치, 경제와 밀접하게 상호 작용하며 사회적 가치를 형성하는 과정’이며, 문화예술인만이 아니라 ‘시민 누구나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보편적인 삶의 환경’이다.

그러므로 지역문화생태계는 삶의 환경과 삶의 질을 개선시키고자 하는 ‘새로운 관계 맺기 양식’이다. 공탁이 지역문화생태계를 표방한 것도, 문화와 예술에 대한 생각이 우리 자신은 물론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와 이웃들의 삶 속으로 확산되며 뿌리내릴 수 있기를 바랐기 때문이다. 그래서 공탁의 구성원들은 스스로를 문화예술인이기 이전에 시민이자 주민이라고 생각하며, 공탁의 구성원이 되는 기준조차 직업으로서의 문화예술인만이 아니라 ‘지역문화생태계에 관심 있는 누구나’로 열어 두었다.

공유성복원탁회의, 이원재
『문화와 예술, 마음을 만나다(2020)』
p27~29



공유성복원탁회의 전체모임

마음을 세우다 ————— 거버넌스

예술하기 좋은 동네 만들기

예술순환로

‘예술순환로’는 예술 활동 거점지역 활성화사업의 또 다른 이름으로, 월곡-석관 지역 일대를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다. 해당 지역에는 3개의 예술대학을 비롯해 많은 예술가가 살고 있지만 창작을 위한 문화예술의 기반은 미비했다. 안정적인 창작환경을 마련해야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예술순환로는 2019년부터 라운드 테이블을 열고 토론과 협의를 통해 예술 활동에 필요한 기반요소를 찾았고 2020년 사업시작부터는 많은 창작가와 활동가가 모여 지역의 고유한 이야기를 새롭게 풀어냄으로써 지역에서 예술가로 먹고사는 다양한 실천을 하고 있다.

2021 예술순환로 <송년 파티>





예술순환로는 크게 다섯 가지의 활동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예술순환로 거점공간인 '예술램프'를 시작으로 지역 공간들과 협업 프로젝트를 통하여 사람과 공간 사이를 이어주는 <거점공간활성화>, 일상의 생활권 안에서 소규모의 다양한 예술적 만남을 시도하며 예술인들이 주체적으로 만들어가는 예술 축제 <동네살롱제>, 예술순환로 소개를 비롯한 각 활동 아카이브와 캘린더, 활동 기록, 공간 소개 등의 웹사이트 기능을 담당하고, 지역 창작자들이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웹 매거진 <온라인 플랫폼과 웹진 미니>, 성북 지역의 지역학 연구 주체들이 협력적으로 활동하는 콜렉티브와 동시에 지역학 연구 기반을 함께 축적하고 공유하는 연구 플랫폼 <오픈리서치랩>, 예술생태계 구축을 위한 다양한 이슈를 살펴보고 지역 예술가들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함께 공부하는 <예술생태계스터디 YE:S> 등, 예술인들이 주체가 되어 '예술 하기 좋은 동네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2020년

예술순환로 친구들 및 워킹그룹 조성 : 72명/5개 그룹
사업추진 실무 운영테이블 운영 : 9회/10명
예술순환로 거점공간 조성 : 2개소
예술순환로 온라인 플랫폼 구축 : (www.artsoonhwanro.com)
예술순환로 카페 협력 홍보 진행 : 협력공간 16곳

<예술순환로 전체 모임>

- 09.11. 예술순환로 전체 공론장 <온라인 네트워크파티>
- 10.21. 예술순환로 전체 공론장 <관파티>
- 10.23. 예술순환로 전체 공론장 <끼루의 밤>
- 10.27. 예술순환로 전체 공론장 <지지의 디너파티>
- 12.22. 예술순환로 전체 공론장 <한해살이 공유파티>

<거점공간활성화>

- 06.~07. 예술순환로 친구들과 공간 현장 조사 및 부동산 투어 진행
- 09. 예술순환로 거점공간 <예술램프> 조성
- 09.07.~13 예술램프 오픈프로젝트 전시
- 10. 빈집활용 생활SOC(예술거점)관련 공간 상호업무협약 체결
- 11.13.~31. 예술시장 가능성 실험 <예술점빵:침과캠핑> 운영
- 12.08.~31. 예술시장 가능성 실험 <예술점빵:겨울마을> 운영
- 12. 석관동 빈집 <오리랩 하우스> 조성

<동네살롱제>

- 10.~12. 동네살롱제 예술 담론의 장 <유위살롱> 진행 : 7회
- 10.~12. 동네살롱제 공간연계 프로그램 운영 : 5회
- 12.05.~18. 동네살롱제 <실험기획> 쇼잉 및 축제 운영
- 12. 동네살롱제 진행과정 및 실험기획 무크지 원고 제작

<온라인 플랫폼과 웹진 미니>

- 07.~10. 예술순환로 BI 디자인을 위한 설문조사 진행 : 3회
- 07.~10. 예술순환로 BI 디자인을 위한 워크숍 진행 : 2회
- 11. 예술순환로 온라인 플랫폼 구축

<오픈리서치랩>

- 09. 성북 지역학 연구 네트워크 조성
- 09.~11. 성북 지역학 연구 <오픈리서치랩> 연구 워크숍 진행 : 4회
- 09.~12. <성북 지역학 연구 활동을 위한 방법론 및 계획 수립> 연구 진행
- 10.~12. 성북 지역연구 <소주제연구> 진행 : 4팀/4건

<예술생태계스터디YE:S>

- 08.~11. 예술생태계 스터디YE:S <오픈특강> 진행



예술순환로 친구들 및 워킹그룹 운영 : 132명/5개 그룹
 예술순환로 운영위원회 정기회의 : 16회/운영위원 15명
 예술순환로 거점공간 <예술랩프> 운영 : 이용 108건/이용자945명
 예술순환로 거점공간 <오리랩하우스(빈집)> 운영 : 24건/236명
 예술순환로 온라인 홈페이지 운영 : (www.artsoonhwanro.com)

<예술순환로 전체 모임>

- 10.28. 예술순환로 10월 전체모임 진행
 11.25. 예술순환로 11월 전체모임 진행
 12.30. 예술순환로 12월 전체모임 <송년파티> 진행

<거점공간활성화>

- 03.19. 거점공간활성화 공론장 운영 <3월 공론장>
 04.18. 거점공간활성화 공론장 운영 <4월 공론장>
 03.~04. 거점공간활성화 프로젝트 <예술가의 방> 전시
 06.23~25. 거점공간활성화 <예술가 월관씨의 일일> 체험형 전시
 10.~12. 예술가 커뮤니티 <예술랩프 작당원> 모임 : 6회
 11.23.~27. 지역 예술 공간 연계 축제 <오픈스페이스 페스타>
 11.~12. 공간, 지역예술가 <이웃집 프로젝트> 진행 : 12회

<동네살롱제>

- 03.~09. <동네탐방 여기·출동탐방 거기> 진행 : 9회
 05. 2020년 동네살롱제 진행과정 및 실험기획 무크지 출간
 06.~11. 예술을 둘러싼 담론 <미미살롱> 진행 : 6회
 07.~11. 지역 예술가를 소개하는 <크크살롱> 진행 : 3회
 11.5.~14. 동네살롱제 <실험기획> 쇼잉 및 축제 운영
 11. 동네살롱제 진행과정 및 실험기획 무크지 원고 제작

<온라인 플랫폼과 웹진 미니>

- 01.~02. 예술순환로 온라인 홈페이지 운영
 03.15. 예술순환로 웹진 미니 <봄호> 발간
 06.15. 예술순환로 웹진 미니 <여름호> 발간
 09.15. 예술순환로 웹진 미니 <가을호> 발간
 12.15. 예술순환로 웹진 미니 <겨울호> 발간



<오픈리서치랩>

- 02.~05. 오픈 리서치 랩 협력위원회 회의 : 4회
 03.~10. 한국 지역학 사례 강의 진행 : 4회
 05.~11. 성북 지역연구 <소주제연구> 원례모임 진행 : 7회
 05.~11. 성북 지역연구 <소주제연구> 진행 : 5팀/5건
 08.~11. 오픈 리서치 랩 월례포럼 모델링 연구 진행 : 5회
 08.~11. <예술활동 거점지역 활성화사업 성북지역학 연구활동을 위한 방법론 및 계획수립> 연구 진행
 12.02.~03. 성북학 컨퍼런스 제 1회 <성북학을 말하다> 진행

<예술생태계스터디YE:S>

- 04.~12. 예술생태계 스터디YE:S 소규모스터디 <자근자근 테이블> 운영 : 21회
 06.~11. 예술생태계 스터디YE:S <옆동네 예술생태계 좌담회> 진행 : 3회
 06.~12. 수익 실험 프로젝트 <예술로 돈 벌 수 있을까?> 진행 : 16회

축제를 배우는 자리

성북 축제협력네트워크 '축협'

성북 축제협력네트워크 '축협'

2015년부터 거버넌스의 일환으로 성북의 축제는 누리마실, 정릉예술 마을만들기 축제, 성북진경 등 단위 축제의 민간협력체계를 실험하면서 2016년 예술가의 동축제 MP 파견에 이르기까지 그 수가 확대되어왔다. 이 과정에서 지역축제 경험이 축적되면서 더 이상의 단위가 아닌 소통의 플랫폼에 대한 요구가 증가했으며, 2017년 성북 지역축제 거버넌스포럼을 통해 지역축제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을 모색하는 동시에 거버넌스 축제 운영을 위한 축제 관심자 네트워크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를 통해 2018년 초 드디어 성북축제협력네트워크 모임이 시작되었다.



성북 지역은 성북세계음식축제 누리마실, 성북진경, 정릉버들잎축제, 장위부마축제 등 다년간 민과 관이 협치 활동을 기반으로 지역축제를 개최하고 민, 민 협력 축제를 비롯하여 마을장터 역시 각각의 특색을 가지고 운영 또는 시작되고 있다. 이를 통해 다양한 거버넌스 축제 운영 노후가 축적되는 단계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지역 상황을 토대로 지역축제는 주민 주도를 통한 시민 문화권리 증진에 주요한 요소 중 하나로 인식되어왔다. 2016년 발표된 '성북구 창조문화도시 기본계획 2020'에도 기본계획의 실행과제 중 하나로 '성북구 축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이 언급된 바 있으며, 2018년 공유성북권택회의의 민선7기 성북구의 문화정책 제안에서도 '축제의 일상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역 기반 마련'의 항목이 포함되었다.



성북축제협력네트워크가 생기게 된 가장 직접적인 계기였던 '제1회 성북 지역축제 거버넌스 포럼'에서는 지역축제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이 언급되었는데, 지역축제가 가져야 할 속성과 지역사회의 통합지원책이 제안되었다고 할 수 있다. 전자로는 마을단위 소규모 공동체 축제 활성화로 축제생태계 확대 및 팬덤 확대로 지속성 강화의 부분으로 지역축제의 지향점을 제시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후자로는 축제 간 네트워크 강화로 문화생태계 구성, 도시 축제 플랫폼 구현으로 자생적 축제 문화 생성, 이를 위한 지원체계 및 민관협치체계 로드맵, 동 단위 문화예술지원관 배치, 조례 제정, 전문 인력 양성, 행정 내 통합 협력체계, 축제지원위원회 구성, 축제학교, 공유창고, 공방 설립 등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아우르는 다채로운 의견이 개진되었다.

이를 통해 축협은 지역 내 실질적인 인력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역축제의 체계 합리화를 모색하는 동시에 지역성과 문화감수성을 기반으로 한 지역축제 기획과 실행의 내용성은 무엇인지 함께 찾아가는 '친구네트워크'를 시작점이자 지향점으로 잡았다고 볼 수 있다.



축제협력네트워크의 활동

2018년 3월 축제협력네트워크의 활동이 시작되었고, 지역축제를 운영하는 담당하는 민과 관이 함께 모여서 이야기하는 자리가 정기적으로 만들어졌다. 매월 정기모임을 통해 서로의 축제에 대해 더 잘 알게 되었고 각자의 고민을 나누는 과정에서 나의 고민이 나만의 고민이 아닌 모두의 고민이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과정이었다.

그리고 축제 간에 실질적인 교류는 상호 간 보유 물품 현황 확인 및 대여, 일회성으로 소모되는 공간 디자인물에 대한 교차 사용, 인적 자원의 발견과 축제 결합 등 보다 실질적인 방식으로 확장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축제 자원에 대한 정보 수집과 공유창고의 필요성이 부각되어 '축제공유창고'라는 홈페이지도 개설하게 되었다.



2020년 이후 코로나19 사태의 확산은 지역축제학교와 지역축제협력네트워크에는 큰 타격이었다. 축제는 모여야 열리는데 모일 수가 없었고, 이는 기존에 지역에서 축제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선택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조금 더 기다리면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면서 나아지지 않으면 온라인으로 축제를 만들어야 하나 라는 고민도 동시에 들었다. 축제가 열릴 수 없으니 모임의 동력도 떨어지게 되고 현장성을 더 강조하고자 했던 지역축제학교도 축제현장이 사라지니 방향성을 잡기 힘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시대에 지속가능한 지역축제를 위한 다양한 논의와 지역에서 축제를 만들고 있는 분들의 강의를 통해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후원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하는 자리를 마련하기도 하고, 축제 평가를 위한 정성평가 설문을 제작하기도 하였다.

위기는 또 다른 기회의 시작이라고 성북축제협력네트워크의 활동은 지역축제 활동가 뿐만 아니라 청년과 청소년까지 대상을 넓혀서 지역축제와 연계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성북 축제협력네트워크는 아마도 지역축제가 사라지지 않는 한 계속 될 것이다.



게임의 법칙에 관한 신비한 체험

김중휘 (前 성북문화재단 상임이사)

신성불가침 같은 게임의 법칙이 있고 거기에 첫째 조항이 있다면 응당 '법칙에 따라 게임을 해야 한다'는 것이겠죠. 그리고 마지막 조항이 있다면 '법칙은 바꿀 수 있다' 일지 모릅니다. 대체로 우리가 경험해본 게임의 법칙은 정해져 있었던 편입니다. 관에서 하는 각종 공모사업이라는 게임의 법칙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공모사업의 목적과 절차와 혜택과 벌칙과 일정 따위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심사하는 사람들과 심사 방법도 미리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게임의 법칙을 바꾼다면 어떻게 될까요? 누군가 기획한 공모사업으로 심사하고 등수 매기는 방법으로는 사업을 하지 않겠다고 마음먹은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그는 공모사업이 아닌, 그것과 아주 다르게 사업을 하고 싶은 것이지요. 다르게 어떻게 하냐고요? 제일 먼저 축제나 교육, 공연과 전시 등등 이렇게 분야를 나눠놓고 분야별로 책정돼있는 예산 총액을 공개한 다음 관심이 있는 사람을 알음알음 초대해서 한자리에 모읍니다.

모여서 곧바로 사업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기소개를 충실하게 합니다. 그렇게 초대받은 사람이 새로운 사람을 다시 초대하는 식으로 모임을 몇 번 반복하면서 참여자가 100여 명 안팎이 될 무렵까지 자기소개를 계속 합니다. 100여 명 사람들이 자기소개를 5분씩 빠짐없이 하면 2시간 남짓한 모임이 그대로 마무리됩니다. 그 다음 모임부터라야 자기소개를 하고 또 했던 참여자들은 하고 싶은 사업 이야기를 발표하고 공유합니다. 공유한다는 말은 유사한 사업들을 모으고 합친다는 것이고 이것과 차이가 나는 사업을 어디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계속 아이디어를 펼쳐놓고 겹쳐본다는 뜻입니다.

어떻게요? 동그렇게 둘러앉아 얼굴을 마주 보고 먹고 마시면서 합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 시점부터 참여자들 스스로 기한을 정해두고 결론을 도출합니다. 그런 다음에 할 일은 사업을 책임 있게 주도할 사람과 협력할 사람을 정합니다. 자정해서 손을 들기도 하고 추천을 통해 후보가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추려진 사람들은 전원이 돌아가면서 자신의 형편과 의지 그리고 해당 사업에 대한 구상을 이야기합니다. 이 과정의 끝에서 최종 후보 두 세 명을 놓고 투표로 결정하는 일은 거의 벌어지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게임의 법칙이 작동되는 동안에는 개인의 자리 욕심이나 자신이 속한 단체의 이익만을 도모하는 그 어떤 오묘한 발언도 참여자들은 다 알아차립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여러 번 소개했고 그렇게 인사를 나눈 사람들이 각자의 아이디어를 합친 사업을 놓고 미리 공개된 예산 총액의 범위 안에서 가장 잘 추진하고 마무리할 사람들이 누구누구의 조합으로 구성될 팀인지 추천할 때면 거의 같은 결론에 도달하니까요.

성북문화재단의 출범과 더불어 첫 대표를 맡은 나는 8월에 첫 출근해서 그해가 가기 전까지 성북에서 예술인과 기획자들, 여러 중간 지원조직의 사람들을 만나면서 내가 꿈꾸던 게임의 법칙에 대해 더 먼저 더 많이 구체적으로 꿈꾸고 있는 이들이 많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같은 꿈을 꾸는 사람들이 이토록 많다니 신기했습니다. 게다가 그 꿈에 대해 재단의 이사장이기도 했던 구청장은 그러한 구상을 재단의 자율권 보장이라는 약속으로 초지일관 지켰으니 이것도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덕분에 재단의 많은 일들은 처음부터 줄곧 거미줄 같은 협력의 관계망을 짜는 다방면의 일들로 총만하게 시작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북문화재단은 탄생과 더불어 예산을 공개하고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사업의 내용과 규모와 방식을 결정하는, 그러니까 협치나 거버넌스 또 무어라 부르든 협력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의사 결정과 책임으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한때 유행했던 여행사 광고처럼 “너 어디까지 가봤니?”를 협력의 관계 경험으로 빚대자면 내가 아는 한 성북문화재단은 가장 멀리까지 가본 최초의 지역문화재단일 것입니다. 6년간 대표로 있으면서 나는 그 신기한 체험을 날마다 놀이처럼 즐겼던 것 같습니다. 돌아보면 행복했고 나 자신이 그때 알차게 성장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지금도 생생하게 느낍니다. 그 과정을 세세하게 복기해보면 물론 사람마다 우여곡절이 셀 수 없이 많겠지만, 큰 그림에서 보면 협력의 관계망을 통해 원했던 것은 거의 빠짐없이 이루어지는 신기한 경험의 연속이었습니다. 돈이 부족할 때도, 일손이 모자랄 때도, 욕망이 충돌할 때도 있었지만 협력망의 꿈은 하루도 빼먹지 않고 날마다 쑥쑥 자라났습니다. 어디까지 자라났느냐면 성북의 20개 동 단위마다 자율적으로 의사 결정하고 공동 책임지는 주민 공동체, 즉 예술인과 기획자와 원주민과 이주민이 둘러앉아 공동의 사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주민 자치의 문화적 초기 원형이 창조되는, 말 그대로 창세 역사의 새 지평 그 경계선까지 닿은 것입니다.

여기까지 글을 쓰고 나니 갑자기 소름이 돋네요. 그때 내가 도대체 무슨 일을 한 거지? 그때 우리가 무엇을 경험한 거지? 이것이 내가 체험한 성북문화재단입니다. 재단을 매개자로 삼아 민과 관과 중간지원 조직이 서로 선을 지키되 경계선 없는 협력망 안에서 상호 주도하며 신뢰의 경험을 공유했던 그 날들이 우리 자신을 어떤 존재로 탈바꿈시킨 거지? 최근 4년여 간 성북을 떠나 다른 곳을 탐험했던 나로서는 성북의 동료들에게 직접 물어보지는 못했지만, 한번 탈바꿈을 경험한 사람은 퇴보할 수 없는 법이라는 것을 나 자신의 경험을 통해 알고 있기에 차차 대화를 나누어도 아쉬울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보니 나를 포함하고 있던 시기의 성북문화재단 안팎의 여러 사람들의 경험은 어쩌다 운 좋게 연속적으로 벌어진 신기한 행운이 아니었고, 저마다 오랜 시간 성북이라는 좌표의 곳곳에서 꿈을 꾸고 있었던 이들이 어느 날 일제히 연결되며 빛을 발했던 신비한 공동 체험이었습니다. 게임의 규칙은 바뀔 수 있다는 것, 그것은 새로운 게임의 규칙을 따르는 사람들이 만든다는 것, 이를테면 빠짐없는 자기소개와 같이 먹고 마시는 모임과 예산 공개와 저마다의 욕망을 드러내고 집단 의사 결정을 하는 실행이 새로운 게임의 법칙이 창조되는 하나의 사례라는 것 등등, 한 마디로 신비한 사람들이 뜻을 모아 신비한 체험을 만들어냈습니다.

표현을 정정해야겠군요. 신비한 사람들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 모두가 저마다 신비한 존재일 것입니다. 다만 그런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서로를 뻔하게 대하는 순간 뻔한 존재가 되고 그렇게 뻔할 때는 공모사업 같은 제3자적(이런 것이 존재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긍정성의 장치(라는 허상)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믿는 것이겠지요. 반면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서로를 신비하게 보게 되면 모두가 당사자로 참여해서 공유하는 방법이 의외로 많이 등장한다는 사실도 엄연하게 존재합니다. 이것이 성북문화재단이 창립 이래 6년여간 경험한 사실이자 성북문화재단이 공공의 문화계에 남긴 유산일 것입니다. 이 점에서 성북문화재단의 과거는 알 수 있어도 미래는 알 수 없다고 믿기로 한 게임의 법칙과 다른 새로운 게임의 법칙이 얼마든지 존재하며 이미 작동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정해진 과거가 있고 혼란의 현재가 있으며 알 수 없는 미래가 있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과거에 머무는 것 같아 보이는 사람이 실은 복수의 과거 중에서 잠재형으로 남아있던 과거를 꺼내어 가장 왕성하게 현재 진행하는 사람일지 모르고, 바로 그가 거기에서 미래를 이미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미래는 이미 현재 안에 당도해 있고 과거는 아직 다 사용되지 않았습니니다. 그 현재가 성북문화재단의 10년 오늘날 것입니다.

한 번 투사된 빛은 회수되지도 않고 소멸되지도 않습니다. 그 에너지는 성북문화재단의 모든 식구들 한 명 한 명의 세포 조직 안에 잠재하고 있습니다. 그 세포들은 성북에서 새로운 게임의 규칙을 창조하고 실행해보았던 사람들 각자의 세포 조직과 하나의 리듬으로 공조될 때 언제든 새롭게 증폭될 것입니다. 빛은, 에너지는 사라지지 않으니까요. 한 번 펼쳐진 과거는 완료되지 않고 진화 중이며 그것은 결국 현재와 다시 합일하여 여러 차이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초월하고 포함하는 미래를 만들게 마련입니다.

성북문화재단의 출발과 그 여정은 선배 지역문화재단과 후배 지역문화재단, 그 재단들의 공모사업에 일희일비하는 민의 현장에서 제3자적 존재가 부여하는 신성불가침의 게임의 법칙 같은 것은 없다는 사실과, 스스로 참여하여 함께 만들고 공유하며 존중하는 그것이 우리의 운명을 가이드하는 창조적 게임의 규칙이 될 수 있다는 소중한 거울입니다. 이 거울 덕분에 성북에서 함께했던 그 경험이 나에게는 게임의 법칙에 관한 신비한 체험으로 현재 진행형입니다.

성북문화재단의 창립 10년을 축하합니다.

소개만 하다 끝나기도 했던 시작

공준호 (성북문화재단 지역문화팀)

성북문화재단에서 일하게 된 2016년 이후 공유성북원탁회의(이하 공탁)에 대해서는 이곳 저곳에서 많이 듣게 되었다. 지역문화 협치의 선진적 모델이라는 호의적 평가와 수상 소식, 공탁을 통한 다양한 동료들과의 경험, 또는 그 안에서의 갈등과 자신과 맞지 않는 분위기에 이탈하게 된 사연. 때로는 기분 좋은 추억을 소환하는 이야기였고, 때로는 힘들었던 기억을 가벼운 대화 속에서 무용담처럼 늘어놓기도 했다. 전체적 모습을 파악하기는 힘들었지만, 파편화된 이야기 속에 공탁은 때로 여러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커뮤니티의 장이었고, 때로는 다양한 일을 벌이는 실행의 주체처럼 보였으며, 때로는 성북의 이슈에 대해 논의하는 공론장이기도 했다. 성북의 문화예술생태계를 위해 활동하는 민·관 협치형 커뮤니티인 공탁을 뚜렷한 하나의 문장으로 정의하기는 힘들지만, 그들의 이야기 속에는 성북 지역문화의 과거와 현재가 담겨져있다.

초창기 공탁의 모임은 자기 소개 하는 시간만 1시간씩 소요되었다고 했다. 때로는 소개만 하다 약속된 시간이 끝나기도 했었다. 100여명의 문화예술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장시간 이어지는 자기소개를 듣는 모습은 그것을 경험했던 사람에게 꽤나 인상적인 모습이었는지, 지금도 공탁을 추억하는 이야기 속에 자주 등장하고 있다. 나도 공탁에 참여하면서 이곳 저곳에서 자기 소개할 자리가 많아졌다. 그 때마다 사실 조금 긴장되기도 하였다. 단순히 이름과 소속으로 소개하는 것이 아닌 본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는 욕심이 앞섰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부모가 주신 이름이 아닌 내가 정한 별명으로 나를 소개하며, 나의 취향과 관심사를 내비치곤 했다. 아마도 그렇게 소개하며 단순히 재단의 담당자가 아닌 지역의 동료로 맞아주길 바랐던 것 같다. 지역에서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소개받고, 그들의 활동을 듣고, 그들의 활동을 지지하는 시간. 공탁은 나와 같은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였고 함께 걸어가자고 제안할 수 있는 동료들을 찾는 자리였다.

공탁은 준비기간까지 합쳐 올해로 9년째에 접어들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는 공탁이 그 시간동안 많은 갈등과 부침이 있었다는 것은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그럼에도 오랜 시간 의미 있는 활동과 활력을 유지해올 수 있었던 이유는 공탁이 지역에 필요한 공동의 가치와 공감대를 형성해왔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게 만들어진 성북의 지역문화생태계의 특징에 대해 생각해보면 첫째는 지역민주주의의 경험이다. 민주주의라는 가치는 우리 스스로가 지역의 주인임을 말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지역의 자원들은 내가 알지 못하거나 참여할 수 없는 과정을 거치며 그 사용이 결정되고 있었고, 그 속에서 우리는 능동성은 빼앗긴 채 수혜의 대상으로 인식될 뿐이었다. 성북 지역문화생태계 안에서 지속가능한 공유지를 만들고자 했던 공탁은 이에 반하며 수동적 위치를 거부하고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지는 경험을 하나하나 만들어가고자 했다. 누리마실, 성북진경으로 대표되는 지역축제에 대해 함께 논의의 시간을 거치며, 민간사무국의 조직과 지역의 예술가, 활동가, 지역주민들이 기획과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의 토대를 만들어냈으며, 미아리고개예술극장, 미인도, 천장산우화극장 등과 같은 공간을 다수의 공론장을 통해 지역과 관과 주민을 연결하는 공유공간으로 만들어냈다. 이 과정들은 낮은 진입장벽과 수평적 의견 수렴의 시간을 거치며 참여자들에게 지역의 문화예술 생태계 자원들이 공동의 소유임을 인식시키고 이에 대해 권리를 누리고 의무와 책임을 가지는 민주주의 주체로의 재인식의 계기를 만들었다. 그리고 이 경험은 자신이 원하는 일을 지역 안에서 주체적으로 만들어 갈 수 있는 밑바탕이 되었다.

둘째는 공탁이 추구하는 운영원리 중 하나인 문화다양성의 추구라 생각한다. 예전 동료와 함께 외부 미팅에 참여했을 때, 그 동료는 성북의 자원에 대해 이야기하며 성북은 타국에서 온 이주민의 비율이 높으며 그들이 가진 다양한 정체성과 문화는 성북이 가진 큰 자원이라고 소개한 적이 있다. 그의 말을 들으며 참 의미 있는 말이라고 생각했다. 물론 그 말이 당연한 것이 아닌 의미 있는 말로 느껴졌던 것은 어쩌면 그 당시 나의 문화다양성에 대한



부족한 시야가 드러났던 것일 수도 있다. 세대, 정체성, 문화가 다른 이들을 소수자로서 대상화하여 배척하거나 또는 동정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닌 그들의 정체성에 대한 존중과 그들을 지역의 일원으로 맞아주는 공탁의 분위기는 성북의 문화행사나 프로그램들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었고 이를 경험한 지역의 주체들은 급변하는 사회를 다각도로 바라볼 수 있었고 다양한 방식으로 대처할 수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공탁 참여를 통한 개인의 성장이다. 공탁은 느슨한 연대 속에 자율성을 원리로 운영되었으며, 자전에 의한 참여의 기회를 제공해왔다. 지역문화예술생태계 안에서 만들어지는 다양한 역할들은 참여하는 공공의 목표와 가치를 앞세우기 전 먼저 개인의 성장과 만족을 증진시키는 쪽으로 진행하려 노력했으며, 이러한 과정으로 연대, 배려, 헌신의 마음들이 더 자연스럽게 생겨난 것이라 생각한다. 지역에서 새롭게 활동을 시작하는 주체를 호혜와 우정으로 환영하고, 그들의 활동을 지지하고 협업을 도모해왔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성장한 주체들은 지역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지역 속에서 자신의 자리를 만들어가며 지역문화예술생태계의 활력을 만들고 있다.

지역 속 협치 구조는 그것이 가진 의미 상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완벽한 모습을 가질 수는 없을 것이다. 완성이 아닌 과정에 목적이 있으며 그 과정에서 어떠한 경험을 남겼는지가 좋은 협치인지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성북의 문화예술인들이 갖는 공탁에 대한 관심과 애정, 그 경험을 함께 했던 구성원들의 자부심, 그리고 지역의 곳곳에서 지금도 자신의 역할을 만들어가는 이들의 모습에서 공탁의 지난 8년의 성과에 대해 생각해보며, 앞으로 함께 할 우리의 시간을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려본다.

마음을 세우다

담고 싶고

도서관 하나 개관하는 일이란...

월곡꿈그림도서관

열번째 성북구립도서관, 첫번째 청소년 특화 도서관

도서관 하나를 개관하는 것이 절대 쉬운 일은 아니다. 단순히 공간만 생긴다고해서 그곳에 책만 가져다 놓는다고해서 지금 주민들이 바라는 도서관이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성북문화재단은 조금 어려운 길을 걸기로 했다. 주민들과 함께 도서관을 개관하기로 한 것이다. 몇 명의

주민 활동가들을 초청하여 진행하는 방식은 일단 제외시켰다. 진짜 더욱 주민들의 이야기를 가까이에서 듣고 싶었기에 우리들은 '동행인터뷰'라는 험난한 길을 택했다. 그것은 월곡꿈그림도서관 사서들의 무모한 도전이었다.

2016년 11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총 34개의 단체를 비롯하여 147명의 주민들을 직접 만나 인터뷰했다.

꼭 필요한 책만 있더라도, 조금은 시끄럽더라도 열린 공간을 가진 도서관 이길 바라요.

-월곡중학교 학부모운영위원회 회장

청소년들이 즐겁게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이요! 생활 속에서 책을, 도서관을 청소년들이 가까이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성북새마을문고 회장

그렇게 길고도 힘들었던 겨울을 통해 재단은 지역에 어떤 도서관이 필요한지 그 방향을 설정할 수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리에서 직접 주민들을 만났다. 눈이 오고, 비가 내리는 중에도 사서들은 지나가는 주민들을 붙잡고 새로 개관할 도서관에 대한 이야기를 전달하며 의견을 물었다. 무척이나 추웠던 시간이었지만 주민들의 따뜻한 참여 덕분에 우리는 이야기를 모을 수 있었다.



동행인터뷰 현장

오거리에 배회하는 청소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 아이들이 도서관을 안전하고 재미있는 문화공간으로 여기면 좋겠어요.

중학생들은 조별 과제가 많은데, 방과 후 친구들과 함께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해요.

‘동행 인터뷰’에 참여해 준 1,130여명의 주민들은 70%가 넘는 대다수의 의견으로 청소년들을 위한 도서관 설립이 필요하다고 말해 주었다.



거리투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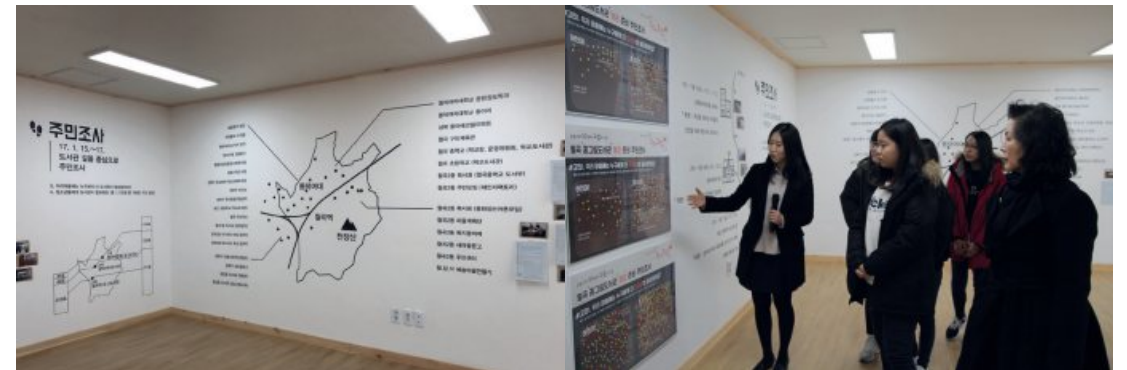
그리고 ‘동행 인터뷰’의 결과를 주민들과 공유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보기로 하였다. 아직 서가도, 책상도, 책도 없던 도서관의 공간을 갤러리로 꾸며 그간 주민들과 나눈 이야기들을 펼쳐보였다. 우리는 이 자리를 ‘원데이 오픈 갤러리’라고 부르기로 하였다.

흰 벽만 있는 비어있는 공간이었지만 그 안에 주민들의 이야기를 담으니 또 다른 느낌으로 공간이 차는 느낌이었다. 그리고 이런 자리를 통해 주민들에게 해당 도서관에 대한 기대감 역시 심어줄 수 있었다.

유아 자녀를 둔 학부모로 어린이 도서관이 아닌 청소년 도서관이 생기는 것이 조금 아쉽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 공간에 와서 보니 그동안의 고민이 보이고 모두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 아쉬움이 사라지는 느낌이에요.

-참여자

원데이 오픈갤러리



2017년 7월 22일, 드디어 월곡꿈그림도서관이 개관하였다. 도서관의 운영방향을 주민들이 직접 결정지은 첫 사례가 되었으며, 현재까지도 ‘청소년 특화도서관’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리고 도서관 개관과정에서 맺은 인연들은 지역 네트워크로 성장하였으며 개관 5년을 맞이한 지금까지도 우리는 함께하고 있다.

개관



마을에서 만나고 고민하고,
마을이 함께 만들고,
오다가다 누구나 편하게 들르고,
마을 소식을 듣고, 음악을 듣고,
책 한 권 들고나가는
우리들의 도서관.

도서관과 함께 그려나가는 꿈은 현실이 됩니다.

-월곡꿈그림도서관 사람들-

개관을 준비하며 만들었던 월곡꿈그림도서관의 대표문구이다. 재단은 여전히 이 때의 마음을 간직한 채 월곡꿈그림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다.



책으로 신나게 더 신나게!

아리랑어린이도서관

어린이를 중심으로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곳
책과 놀이가 어우러지는 곳 <아리랑어린이도서관>

도서관의 변화를 알리다

“도서관에서 사귀 친구가 몇 명이니?”

어린이를 중심으로 전 세대가 함께 할 수 있는 도서관!
아리랑어린이도서관은 본연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고민을 시작으로, 철학과 스토리가 있는 도서관이 되고자 개관 준비 기간 동안 노력해 왔다. 책을 기반으로 한 놀이도서관으로서 ‘어린이’에서 더 나아가 ‘어린이’를 중심으로 전 세대가 함께 할 수 있는 도서관을 상상했다. 도서관을 매개로 다양한 가치(多價)에, 다양한 가족(家族)에, 다양한 세대(世代)에 다가가고자 2016년 11월 개관 준비팀이 만들어진 뒤 운영 철학을 공유하고 실현하는 자리를 계속 마련해 왔다.



마을과 함께 고민하다

다가가다 PROJECT - 만남으로 성장을 도모하는 도서관

마을과 함께 성장하기 위해 아리랑어린이도서관은 개관 전 2017년 1~3월 28개 단체, 262명과 동행 인터뷰를 진행했다. 4~12월에는 도서관을 중심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동행의 기록을 쌓아 나갔다.

책으로 신나게 더 신나게!

어린이를 중심으로 모두 다 함께!

아리랑어린이도서관은 도서관에서 일어나는 만남을 통해 모두 다 함께 행복하기를 바라며 상상력·책·어린이의 가치가 한때가 아닌 일상이 되길 희망한다.

마을 주민들이 바라는 아리랑어린이도서관의 모습

- 아이들이 책을 잘 선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겠어요!
- 아이들이 책을 읽고 다양한 활동을 체험해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자료 배열과 사인물이 있으면 좋겠어요!
- 아이들이 머물고 싶은 도서관, 탁 트인 공간이 있으면 좋겠어요!

마을 주민들과 함께한 동행 기록

1~3월	동행인터뷰 진행	10월	아리랑광장 <전문가 라운테이블>
2월	개관 전 운영철학 공유 및 공간 라운딩		아리랑광장 <시민 설문조사>
3월	서울베네딕도유치원 학부모 설명회		어린이동행원탁 <알록달록 북탐험대> 2기
4월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도서관이 살아있다> 1기 도서관홍보단		열려라 아리랑어린이도서관
5월	공공도서관으로 떠나는 가족여행		<보드게임으로 놀다> <3D프린터로 만들다>
	<부영이 가족과 함께하는 야외도서관 캠프>		<도서관 가구를 만들다> <아리랑어린이도서관을 읽다>
6월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도서관이 살아있다> 2기 황금북탐험대	12월	아리랑어린이도서관 <개관식>
7월	아리랑광장 활성화를 위한 정례회의(주1회)		
8월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도서관이 살아있다> 3기 도서관놀이단		
9월	아리랑도서관을 구(9)하라 <놀구.쉬구.말하구>		
	<다가가다> 지하철, 아리랑로 주민홍보 시작		
	어린이동행원탁 <알록달록 북탐험대> 1기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도서관이 살아있다> 4기 황금북탐험대		

마음과 함께 움직이다

가족과 세대가 함께 어울리는 세대공감 PROJECT - [읽다] [만들다] [놀다] [말하다]

아리랑어린이도서관은 개관 전 세대공감 프로젝트 <다가가다>를 통해 지역 주민과 개관 준비 과정을 함께 공유하고, 주민의 관심과 지역의 공감대를 형성하며, 어린이의 ‘놀 권리’를 되찾아 어린이가 주체가 되어 참여 및 활동의 기반을 만드는 인문학·만들기·놀이·홍보 활동을 진행했다.



2017 아리랑로에서 개관 준비과정 안내

2017 세대공감 PROJECT

마을과 함께 만들다

아리랑어린이도서관 개관

아리랑어린이도서관은

- 독서문화와 놀이문화를 결합한 다원적 문화 공간
- 도서관 콘텐츠를 매개로 지역사회와 연계하는 공간
- 아동과 부모 및 지역유관단체를 대상으로 한 마을을 위한 공간

아리랑어린이도서관 사서는

- 이용자에게 다가가는 사서
- 지역주민에게 다가가는 사서
- 마을에 다가가는 사서

아리랑어린이도서관 프로젝트는

- 다양한 가치(多價)에 다가가는
- 다양한 가족(家族)에게 다가가는
- 다양한 세대(世代)에게 다가가는



마을과 함께 열다
도서관은 어린이를 환영해, 사랑해

아리랑어린이도서관은 어린이를 중심으로 전 세대를 아우르는 관계 맺기와 소통을 중요시한다. 또한 지역 내 다양한 청년 주체를 발굴하여 젊음과 열정을 함께 나누고, 나아가 지역 네트워크를 활성화하는 데 주력한다.

아리랑어린이도서관은
어린이날 100주년을 맞아

- 독서문화를 넘어 아동과 가족을 위한 일상 속 문화 공간으로서의 도서관 기능을 확대하고자 하며,
- 어린이를 아리랑어린이도서관과 함께하는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도서관 내 어린이가 참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며,
- '아동친화도시 성북 구현'을 위해 일상 속 잊혀진 권리인 어린이의 '놀 권리' 회복에 앞장서고자 한다.



2022 도서관 놀이터



2017 도서관이 살아있다

<2017 도서관이 살아있다> 참여 어린이 후기

오늘 우리가 찾은 보물은 무엇이었을까요?

"제가 오늘 찾은 보물은 새로 사온 친구들과 대화한 것이예요."

"저는 오늘 다 재미있었고 도서관이 이렇게 즐거운 곳인지 처음 알게 되었어요!"

"오빠와 같이 도서관에 와서 논 게 재미있어요."

"여기서 정말 재미있고 아리랑어린이도서관이 개관하면 꼭 와야 할 것 같아요."

<2022 도서관 놀이터> 참여 어린이 후기

혼자하면 힘들었던 미션을 친구와 함께 하니 더 쉽고 재밌었다.

아리랑 도서관이 더 좋아진 것 같아요! ㅎ

친구랑 해서 혼자보다 더 즐거웠다.

재미있는 미션들을 도서관에서 해서 재밌었다.

함께 놀고 싶어요~

혼자하면 힘들었던 미션을 친구와 함께 하니 더 쉽고 재밌었다.

다음에 200주년 되었을 때도 이런 행사를 열었으면 좋겠다.

새 친구와 처음 만남을 도는 여섯명지만 미션 하나하나를 할 수 록 친구가 되는 느낌이 들었다

모든 프로그램 왜케 재밌어요!!!

새로운 친구들끼리 팀해 도서 활동 진짜 재밌었다

그 마우요 언니오빠

많이 있고 가서 좋아요!

이야기를 털어놓을수 있는것

아리랑어린이도서관 풍경



2018-2022 우리는 책친구



2018 특별 전시 <아이처럼 살다>



2018 이꽃님 작가와의 만남



2017 부영이 가족과 함께하는 야외도서관 캠프



2019 어린이 독서회



2021 밤의 도서관



2022 도서관 놀이터



도서관 지하에 마을 극장을 세우다

천장산우화극장

천장산우화극장은 성북구 상월곡동에 위치한 천장산 아래에 있는 극장이다. 2018년 개관한 이 극장은 얼핏 들으면 ‘아 지역에 극장이 있구나.’ 하고 지나치기 쉬운데, 가만히 뜯어보면 특이한 구석이 상당히 많다.

첫 번째 특이점은 도서관 지하에 위치한 극장이라는 점이다. 공연 및 행사가 주를 이루는 극장이 고요함의 대명사인 도서관 지하에 있는 건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은 아니다.(실제로도 대한민국 최초라고 한다.) 그 배경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원래 도서관 지하에는 컨벤션룸(강당)이 있었는데, 시대의 변화에 따라 이용이 점차 줄어들면서 공간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높아지기 시작하였고, 이를 위해 지역의 여러 주체들이 모여서 회의하고 토론한 결과 이 공간이 마을의 광장이 되길 바라는 마음이 모여 극장으로 만들게 되었다는 것이다.

두 번째 특이점은 지역의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네트워크인 <월장석친구들>과 <성북문화재단>이 공동운영을 하는 극장이라는 점이다. ‘협치’ 혹은 ‘거버넌스’ 라고도 불리는 다소 생소한 이 운영방식은, 극장의 또 다른 주체인 예술인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을 넘어서 직접 운영에 참여하여 갖가지 프로젝트들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등의 활동을 통해 극장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예술이 가치 있게 이야기되는 극장을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세 번째 특이점은 무대와 객석의 구분이 없는 <블랙박스형> 극장이라는 점이다. 극장의 어느 곳이든 무대가 될 수 있는 이 특성은, 새로운 시도를 하고자 하는 예술인들에게 높은 자유도를 부여하여 실험적 예술창작을 상상하게 한다. 또한 공연 외에도 전시, 포럼, 네트워크 파티 등 다양한 지역행사를 진행하기에도 용이하여 지역 내 공유공간으로서 활용도가 높은 편이다.

이러한 특이점들로 가득한 천장산우화극장은 지역 예술 활동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지역 예술가들의 창작과 성장을 지원하는 <솔딱새 프로젝트>, 극장을 기반으로 한 통합 예술교육 <서서히 학교>, 지역과 시대의 이야기를 우화적 기법으로 창작하고 나누는 <천장산 우화 예술제>, 극장을 둘러싼 이슈와 담론을 이야기하는 <뽀한포럼> 등, 예술이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되는(마치 광장 같은) 극장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시도들을 이어오고 있다.

	2018
	천장산우화극장 대관 운영 : 총 39건/3,449명 천장산우화극장 운영위원회 정기회의 : 8회/운영위원 10명
03.17. 03.17.~18. 04.21. 06.08.~09. 06.30. 06.~08. 07.17.~18. 08.25.~26. 09.06.~16. 11.26.	천장산우화극장 개관식 : 100명 천장산우화예술제(제1회) : 400명 지하공간 꾸미기 <공간파티> : 60명 솔딱새 프로젝트 <사무엘 베케트 ‘무언극1’> : 96명 천장산우화극장 공동운영을 위한 협약 체결(성북문화재단, 월장석친구들) 서서히학교 <극장(무대미술)학교> : 4회/50명 솔딱새 프로젝트 <달팽이 하우스> : 78명 천장산우화예술제(제2회) : 230명 솔딱새 프로젝트 <차크, 차크차크> : 252명 공공극장 뽀한포럼 <공공극장은 누구꺼?> : 52명
	2019
	천장산우화극장 대관 운영 : 총 47건/4,738명 천장산우화극장 운영위원회 정기회의 : 9회/운영위원 10명
03.17. 04.05.~07. 10.26.~27. 11.14. 12.02. 12.20.	천장산우화극장 1주년 기념 <돌잔치> : 100명 솔딱새 프로젝트 <호수와 하루> : 180명 천장산우화예술제(제3회) : 253명 천장산우화극장 공연장 등록 솔딱새 프로젝트 <Missing 솔딱새> : 25명 네트워크 파티 <조아써 2019 연말모임> : 55명
	2020
	천장산우화극장 대관 운영 : 총 9건/1,105명 천장산우화극장 운영위원회 정기회의 : 6회/운영위원 10명 천장산우화극장 사무국 정기회의 : 36회/사무국원 5명
03.~05. 03.20. 09.~12. 10.13.~23. 12.19.~20.	천장산우화극장 2주년 기념 아카이빙 전시 <극장 도서관> 공공극장 뽀한포럼 <천장산우화극장 잘지내?> : 접속자 40명/조회수 1,400명 서서히학교 <극장 지배인 편> : 221명 솔딱새 프로젝트 <난 이려고 있었겠지> : 187명 천장산우화예술제(제4회) <역병, 엇디하리교> : 접속자 64명
	2021
	천장산우화극장 대관 운영 : 총 31건/2,321명 천장산우화극장 운영위원회 정기회의 : 2회/운영위원 10명 천장산우화극장 사무국 정기회의 : 44회/사무국원 5명
01.~02. 03.17. 06.~09. 08.13.~15. 10.01.~03. 11.23.~27.	극장 자치규약 만들기 워크숍 : 3회/40명 천장산우화극장 홈페이지 오픈 서서히학교 <극장 지배인 편> : 312명 성북문화재단 공동제작 <디아스포라 기행> 트라이아웃 공연 : 110명 천장산우화예술제(제5회) <마을, 광장, 그리움> : 447명 전시 <기묘한 우화전> : 95명



내비게이션으로 찾을 수 없는 미스터리한 공간

미아리고개하부공간 - 미인도

‘미인도’는 주소지로 내비게이션에서 찾을 수 없는 미스터리 한 곳이다. 그도 그럴 것이 ‘미인도’ 바닥(지면)은 성북구 관할이고 벽면과 천장은 서울시 관할이며, 담당부서조차 성북구 안전생활국, 건설교통국, 복지문화국과 행정적으로 얹히고 설킨 곳이 바로 ‘미인도’다. ‘미인도’는 동선동과 동소문동을 연결해주는 미아리고개하부 일명 ‘토끼굴’이라 불리는 곳에 위치해있으며 어둡고 지저분하게 버려져 있어 밤에 지나가기 무서운 우범지대였다. 행정적으로도 복잡하고 지저분하고 어두운 그곳을 안전하고 쾌적한 곳으로 만들기 위한 지역주민과 예술가들의 도전이 시작된다.

2014년 아르코 공공미술사업 지역재생+예술 프로젝트로 시작된 ‘미인도’는 기존의 철거형 재개발이 아닌 문화예술을 기반으로 지역에서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직접 공간을 조성하는 과정에 참여하며 운영 주체로 이어지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자 모토였다. 우리가 살아가는 마을에서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 내는 공간을 함께 만드는 일은 어설프고 부족하더라도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이었다. 그 결과 미아리고개에 새롭게 탄생한 ‘미인도’는 프로젝트 이름으로 시작하여 마을과 마을을 잇고, 사람과 사람을 잇는 공간으로 이제는 어엿한 지역의 문화공간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2015년 ‘미인도’의 인연으로 모인 동네 커뮤니티 ‘아름다운미아리고개친구들’은 2017년 ‘협동조합 고개엔마을’로 더 단단하고 주도적인 지역 활동 주체들로 거듭나며 성북문화재단과 ‘미인도’ 공동운명을 현재까지 이어가고 있다. 2014년 어쨌면 무모하게 시작된 도전이 현실이 되어가는 과정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미인도는 매년 변해가고 있다. 아니 성장하고 있다. 공간은 손길이 닿을수록 더 이용자에 맞게 변화하며 쾌적하고, 편리한 환경을 만들어가고 있다. 그리고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 ‘미인도’가 담고 싶은 고유의 색을 만들어가고 있다. 그 활동들이 미아리고개마을장터 고개장, 미인도 기획전시, 업사이클링 워크숍 등을 통해 사람들을 만나며 더 깊이 있는 색을 만들어가고 있다.



2017

총 이용자 : 3,635명	2017.05.~10.	미아리고개 마을장터 <고개장>
	2017.09.~11.	목공워크숍 <동네형공작소>
	2017.10.	1인 생활타 동네장터 <혼자살장>

2018

총 이용자 : 4,793명	2018. 03.	기획전시 <다행증, 행복의 기억, 낭만적 착시>
	2018. 05.~08.	동선동 행복나눔학교 <나는야 어린이 목수>
	2018. 05.~10.	미아리고개 마을장터 <고개장>
	2018. 06.~11.	목공워크숍<똑딱똑딱 놀이터 미인도 목공놀이>
	2018.11.	미인도 공동기획전 <불시착>

2019

총 이용자 : 7,570명	2019.03.~12.	서울문화재단 생활문화지원센터
	2019.05.~10.	미아리고개 마을장터 <고개장>
	2019.06.~09.	적당한 업사이클링<잠자는 가구의 심폐소생술>
	2019.12.	미인도 공동기획전 <미인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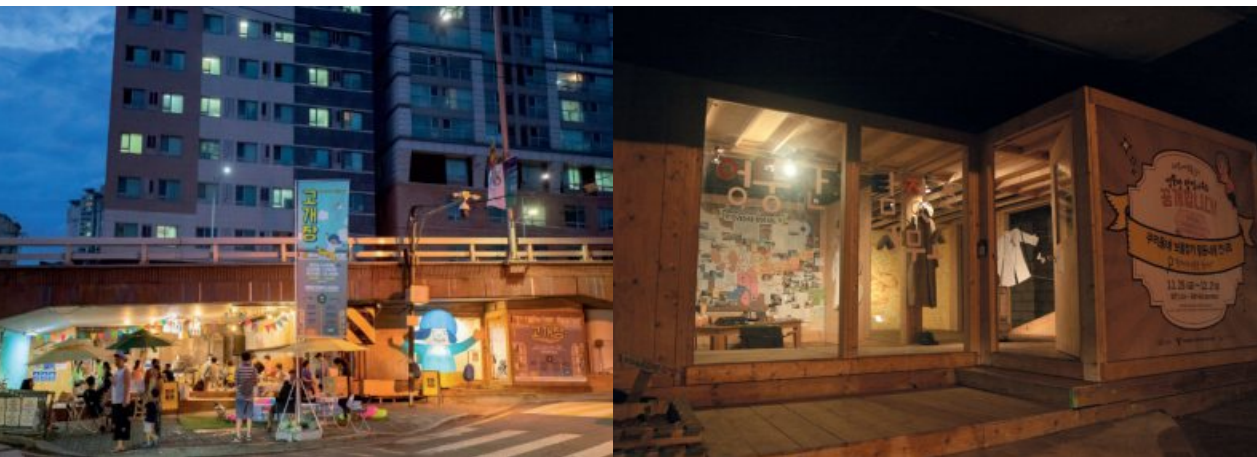
2020

총 이용자 : 1,363명	2020.03.~11.	공유기업<다시 봄>:적당한 업사이클링, 재활용놀이터, 움직이는 책가방
	2020.05.~09.	미아리고개 마을장터 온·오프라인 <고개장>
	2020.05.~10.	서울문화재단 생활문화공간 <10개의 책상>
	2020.06.~11.	미인도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연구
	2020.11.	미인도 공동기획전 <사적인 근원>

2021

총 이용자 : 2,027명	2021.03.~11.	서울시 공유기업 지원사업 <리플프로젝트> : 모두의 에코백, 재활용챌린지
	2021.04.~10.	미아리고개 마을장터 온라인 <고개장>
	2021.06.	미인도 공동기획전 <동네예술광부전-버려진 것에 관한 흥미>





마음을 세우다

담고 싶고

청년들을 위한 특별한 발전소

청년살이발전소

청년살이발전소는 2016년 4월,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청년들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정릉시장 안에 개관하였다. 2018년 6월부터 성북문화재단이 운영 중이다. 재단은 청년들의 창업과 진로를 더욱 적극적으로 돕고 공간을 활성화하기 위해 해당 시설에 '공유주방'을 마련하였다. 이는 요식업과 관련된 청년창업의 전문 공간이자 누구나 호스트가 될 수 있는 청년모임이 이루어질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으로 정체성을 갖기 위한 노력이었다.

성북문화재단이 인큐베이팅한 청년창업팀 라이프스타일 기획사 '제철과일'과 함께 2019년 청년살이발전소를 운영하며 다양한 시도를 하였다. 공유주방의 특성을 살린 문화행사 커뮤니티 활동부터 창업 지원 프로그램까지. 또한 인근의 서경대학교 캠퍼스타운조성사업단과 성북청년시민회, 국민대학교 등 여러 청년주체들과 함께 청년들의 '교류'와 '협력'을 위한 네트워크 플랫폼을 확장하였다. 그리고 코로나19 이후에는 '마을'을 주요 키워드로 삼고 정릉시장과 정릉천을 중심으로 청년들의 진로와 교류에 영감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펼쳐보였다.

청년살이발전소 대표 프로그램	
WED	Work, Eat, Drink의 약자로 일하고 먹고 마시는 이야기를 하는 다이닝 프로그램
창업의 일상화	창업과 관련된 다양한 명사들을 초청한 강연 프로그램
상인의 시간	정릉시장 상인들의 창업과 운영 경험을 나누는 프로그램
포추니와 친구들	청년들이 지역 교류를 위해 기획한 청년 봉사활동 프로젝트



청년살이발전소는 청년세대의 관심사인 '취업'과 '창업'을 포함하여 '일'과 '삶'을 탐색하는 공간으로 발전해나가고 있다. 청년세대들의 실제 고민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진로탐색 프로그램을 기획 및 운영하며 청년이 주체로 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그리고 이러한 청년들의 고민과 현실에 지역이 함께 한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노력 중이다



● 청년살이발전소 행사 포스터



2019 청년창업자 강연 <WED>	+	2019 청년창업자 강연 <창업의 일상화>	+	2021 청년창업자 인터뷰 <상인의 시간>
2019 소셜다이닝 <COOKING & SOMETHING>	+	2020 초보기획자를 위한 사이드잡 응원 프로젝트 <기획자의 부역>	+	2021 초보기획자를 위한 취향활동 응원 프로젝트 <기획자의 산책>
2021 지역문화 프로그램 <성북생태도감만들기-정릉천편>	+	2021 지역문화 프로그램 <포추니와 친구들>	+	2021 청년살이발전소 캐릭터 <포추니와 친구들>



● 청년살이발전소



2019 청년창업자 강연 <WED>



2019 소셜다이닝 <COOKING & SOMETHING>



2020 초보기획자를 위한 사이드잡 응원 프로젝트 <기획자의 부엌>



2021 청년 경제 강연 <나는 왜 돈이 없을까?>



파도처럼 밀려오는 독립영화의 물결

아리랑인디웨이브

성북구 아리랑로에 위치한 공공영화관 ‘아리랑시네센터’에는 365일 독립영화를 볼 수 있는 「아리랑인디웨이브」가 있다.

2010년, 영화진흥위원회로부터 독립영화전용관으로 지정된 지 올해로 12년이 되었다. 「아리랑인디웨이브」는 전국에 여덟 곳뿐인 드문 독립영화전용관 중 하나이며 독립영화 마니아들이 애정하는 장소로 유명하다.

파도처럼 밀려오는 독립영화의 물결을 의미하는 「아리랑인디웨이브」는 독립영화전용관 10주년을 맞아 성북구 주민 공모로 지어진 이름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독립영화의 가치를 발견하고 사랑할 수 있는 소중한 공간이 되길 바라는 모두의 마음과 맞닿아 있다.

잠시 ‘독립영화’가 생소한 분들을 위해 덧붙이자면, 독립영화는 이윤추구를 하는 상업영화와는 달리 창작자의 의도가 중시되는 영화이다. 여기서 ‘독립’은 자본과 배급망에 크게 의존하지 않음을 의미하며, 상업영화 제작에 불가결적으로 따르는 자본의 압력을 배제하고 다양한 예술적 시도들을 할 수 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러한 독립영화의 상영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독립영화전용관이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공공의 목적과 취지로 운영되고 있는 「아리랑인디웨이브」이지만, 걸어온 길이 순탄치만은 않았다. 2015년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가 한국영화계를 강타했고, 블랙리스트 이슈와 궤를 같이하며 그 영향력을 벗어나지 못했다. 독립영화 <다 이빙벨>을 상영함으로 약 3년의 시간 동안 국고보조금 지원 사업에서 배제되는 등 악전고투를 감내해야 했다.

이 시기에 독립영화의 배급과 상영 환경은 날로 위축되는 듯했지만, 역설적으로 비정상적인 언론 탄압으로 인해 TV에서 방영될 수 없었던 르포 형식의 영화들이 독립영화전용관의 문을 두드렸고 사회문제에 대한 발언을 서슴지 않는 독립 다큐멘터리를 보고자 관객들은 영화관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아리랑인디웨이브」는 이에 발맞춰 관객들에게 더 많은 독립영화를 보여주기 위해 개봉영화뿐 아니라 사회적 이슈와 담론을 다룬 다채로운 행사들을 추진했다.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의제를 과감하게 반영하고 작품성, 실험성, 작가의식이 빛나는 작품을 담은 다양한 기획전, 그리고 도전하는 젊은 영화인들의 활약을 담아낸 영화제까지. 현재도 끊임없이 독립영화의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다양한 행사를 기획하고 있다.

이곳을 찾는 또 하나의 묘미라면, 영화 관람 후 GV를 통해 영화를 제작한 감독과 관객이 만날 수 있다는 것이다. GV는 영화에 대하여 설명하고, 관객들과 질의응답도 주고받는 관객과의 대화를 말한다. 「아리랑인디웨이브」는 영화를 관람한 관객들이 감독과 배우를 만날 수 있는 장으로 그 역할을 한다.

「아리랑인디웨이브」는 앞으로도 독립영화가 성북구민을 비롯한 다양한 관객들에게 익숙하게 스며들 수 있는 공간의 몫을 다하며 독립영화의 토양을 마련하고자 한다.

2019년		
총 관람객	14,620명	
개봉영화	총 62편 상영	
정기상영회 (월 2회)	07월~12월 03월~12월	언니네 영화관: 365명 인디서울: 466명
기획전	04.26.~04.28. 05.09.~06.05. 06.21.~06.23. 08.27.~08.31. 10.15.~10.19. 11.19.~11.23. 10.25.~12.24. 12.05.~12.07.	청춘불패 단편영화특별전: 554명 독립영화 반짝반짝전: 465명 아시아나국제단편영화제 2019 순회상영회: 134명 음악독립영화기획전 ‘플레이 뮤직왕: 늦장휴가’: 580명 다큐영화특별전 ‘고군분투, 일하는 사람들’: 282명 책과 영화의 만남 ‘다시 바라보다’: 444명 청소년 독립영화: 창의하다: 896명 제11회 DMZ국제다큐영화제 수상작 앵콜상영회: 257명

2020년		
총 관람객	2,275명(현장), 1,391명(온라인)	
개봉영화	총 37편 상영	
정기상영회 (월 2회)	10월~12월 08월~11월	언니네 영화관(온라인): 372명 인디서울: 46명
기획전	10.22.~10.25. 11.16.~11.21. 11.21.~11.27. 12.24.~12.27.	독립영화전용관 10주년 특별전 ‘아리랑인디웨이브’ : 255명 독립영화 극장전 : 141명 책과 영화의 만남 ‘함께 바라보다’ (현장/온라인): 621명 온택트 상영회 ‘메리 크리스마스 인디웨이브’ (온라인): 527명

2021년		
총 관람객	7,829명	
개봉영화	총 74편 상영	
정기상영회 (월 2회)	03월~12월	인디서울: 468명
기획전 영화제	04.23.~04.25. 07.01.~07.04. 08.13.~08.14. 09.02.~09.04. 10.12.~10.13. 10.15.~10.17. 11.11.~11.16. 12.03.~12.05. 12.23.~12.24.	성북 감독전: 상영 7분 전 : 170명 제3회 서울여성독립영화제: 412명 2021 KYFF 특별기획전 : 87명 기주봉 배우전: 170명 스크린댄스특별전: 풀다, 바람: 20명 보통의 우리, 우리의 2000's: 48명 제1회 성북청춘불패영화제: 1,135명 언니네영화관 2021: 194명 다다룸필름파티 with 언니네영화관: 145명



● 아리랑인디웨이브 행사 포스터



기주봉 배우전	제1회 성북청춘불패영화제	성북 감독전: 상영 7분 전
	+	+
독립영화극장전	독립영화전용관 10주년 특별전 '아리랑인디웨이브'	책과 영화의 만남 '함께 바라보다'
	+	+
독립영화 반짝반짝전	음악독립영화기획전 '플레이 뮤직앙'	책과 영화의 만남 '다시 바라보다'

● 마음을 세우다 ————— 담고 싶고 ●

극장의 인격을 이야기하다

미아리고개예술극장

미아리고개예술극장은 4호선 성신여대 역에서 길음으로 넘어가는 미아리고개 구름다리 아래에 있는 공공극장이다.

누군가에게는 그곳이 극장일거라 상상도 할 수 없겠지만 성북문화재단이 출범하면서 (구)아리랑아트홀에서 미아리고개예술극장으로 이름을 바꾼 뒤 7년째 운영하고 있다.

동네에 버려지듯이 사람들의 관심이 없었던 이곳에 가장 먼저 손을 내민 것은 다름아닌 공유성북원탁회의의 미아리고개예술극장 워킹그룹이었다. 미아리고개예술극장 워킹그룹은 매주 목요일에 만나 극장에 관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 이야기는 극장의 안전과 창작환경 그리고 지역극장으로의 회복 등 다양한 주제들이었다. 지금은 그때의 워킹그룹들이 모두 소중한 동료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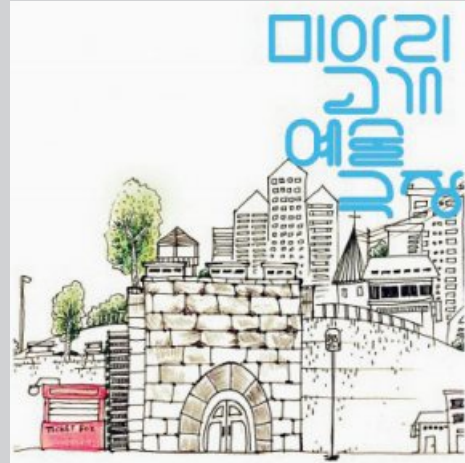
2015년 '앞으로 잘 부탁해'라는 타이틀을 걸고 미아리고개예술극장이 다시 오픈되었음을 지역에 알렸다. 한 달간 공연을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올렸다. 미아리고개예술극장의 본격적인 재시작을 알리는 의미였다. 그리고 이 힘을 통해 미아리고개예술극장 워킹그룹은 2016년 마을담은극장협동조합을 설립했고, 재단과 함께 미아리고개예술극장을 공동운영하게 되었다.

공동운영을 통해 다양한 실험들이 시도되었고 이러한 시도들은 미아리고개예술극장의 대표 프로그램이 되었다. 창작 준비과정을 지원하는 창작플랫폼 MAP, 전문예술가와 비전문예술가의 협업을 통해 창작과정을 경험하는 성북올스타즈, 시즌워크숍 마을극장무대학교, 공동제작을 통한 배리어프리 공연 시도 등이 미아리고개예술극장에서 함께 만들어낸 성과이자 정체성이 되었다.

미아리고개예술극장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모여 가장 많이 나누는 이야기는 극장의 인격이었다. 물리적 공간으로서의 극장이 아닌 지역공동체 안에서 미아리고개예술극장이 어떻게 존재해야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때로는 관객을 만나는 프로그램으로 변하기도 하였다. 우리는 이름만 극장이 아닌 예술가와 관객, 마을에서 동시대를 함께 살아내는 극장으로 실체하기 위해 더딘 발걸음이지만 지금도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



2017	- 총 참여단체 32팀 / 참여자 844명 - 2017.03.~07. 공간지원프로그램 창작플랫폼<M.A.P> - 2017.06.~09. <마을극장 무대학교> - 2017.07.~10. 공연장 상주단체 시민배우 연극공연<극단청년단×성북올스타즈>
2018	- 총 참여단체 13팀 / 참여자 2,461명 - 2018.03.~07. 공간지원프로그램 창작플랫폼<M.A.P> - 2018.05. 공동기획공연<우리는 이 도시에 함께 도착했다> - 2018.06. 공동기획공연<이번 생에 페미니스트는 글렀어> - 2018.06.~12. 미아리고개예술극장 공연 모니터링단 모집 및 운영 - 2018.10.11. 마을극장 무대학교 - 2018.10.~12. 공연장 상주단체 시민배우 연극공연<극단청년단×성북올스타즈>
2019	- 총 참여단체 16팀 / 참여자 5,291명 - 2019.03. 공동기획공연<세상친구> - 2019.03.~12. 미아리고개예술극장 공연 모니터링단 모집 및 운영 - 2019.04.~05. 공간지원프로그램 창작플랫폼<M.A.P> - 2019.07. 공동기획공연<제19회 변방연극제> - 2019.07. 공연장 상주단체 <21세기...연극말이다> - 2019.08. 공동기획공연<브레인컨트롤> - 2019.11. 공연장 상주단체<Tribes>
2020	- 총 참여단체 5팀 / 참여자 1,499명 - 2020.06.~12. 미아리고개예술극장 공연 모니터링단 모집 및 운영 - 2020.07.~08. 공동제작공연<우리는 농담이(아니)야> - 2020.10. 공연장상주단체 <십이야> 온라인송출 - 2020.12. 기획프로그램<미아리고개 시즌워크숍: 마을극장무대학교, 액팅워크숍> 온라인
2021	- 총 참여단체 12팀 / 참여자 3,301명 - 2021.04.~05. 공간지원프로그램 창작플랫폼<M.A.P> - 2021.06.~12. 미아리고개예술극장 공연 모니터링단 모집 및 운영 - 2021.07~08. 공동제작공연<우리는 농담이(아니)야> 재공연 - 2021.10. 공연장상주단체 공연 <베로나의 두 신사> - 2021.12. 공연장상주단체 공연 <알마게스트>





월곡꿈그림도서관과 나

최예슬 (독(讀)한친구들)

월곡꿈그림도서관과의 인연이 시작된 것은 2017년, 도서관이 개관하기 전이었습니다. 당시 도서관 봉사에 흥미가 있던 저는 새로 개관하는 도서관에서 독특한 봉사가 있다며 추천을 받았고, 이때 꿈그림도서관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전에 해보지 못한 활동을 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만들기가 취미이기도 했기에 도서관 전시 분과인 모으자에 지원해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도서관에 처음 갔을 땐 아직 도서관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비어 있는 내부를 보며 여기엔 어떤 공간이 생길지 알아가는 게 즐거웠고, 성북구 최초의 청소년 특화 도서관의 시작을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그동안 어린이 도서관이나 일반 도서관은 많이 이용해봤지만, 청소년 특화 도서관은 처음이었기에 이 도서관이 어떻게 운영될까 하는 기대도 생겼습니다.

아직까지도 기억나는 첫 전시는 영상 매체로도 즐길 수 있는 만화였습니다. 만화책 서가가 따로 있다는 것에 해당 서가에서 첫 주제를 뽑는 게 좋겠다는 말이 있었고, 그렇다면 다른 매체로도 만날 수 있는 작품 중에서 추려보자는 것으로 의견이 모였기 때문입니다. 이후 전시 제목과 전시 물품 등을 정하고 본격적인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모으자에는 분과 특성상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몇명 있었고, 이런 친구들은 주제로서 선정된 만화의 캐릭터들을 자신의 그림체로 그려냈습니다. 개관과 동시에 공개되는 전시였기에 거의 완성된 도서관에 모여 완성된 물품들을 배치했고, 그중에서도 그림이나 전시 제목은 코팅하는 과정을 거쳐야 했습니다. 처음 사용해 보는 기기다 보니 혹시라도 그림이 기기 안에서 걸려 구겨지면 어쩌나 했던 걱정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첫 전시 다음으로 기억에 남는 전시는 다음 해에 진행한 각색된 동화들을 다룬 전시였습니다. 동화 백설공주를 주제로 한 <진짜 백설공주는 누구인가>와 피노키오를 각색한 <피노키오가 묻는 말>을 주제로서로 한 전시로, 제가 제안한 주제였기에 여러 전시 중 더 기억에 남았습니다. 이 전시 이후 <진짜 백설공주는 누구인가>가 많은 관심을 받으며 예약 신청까지 받았다는 것을 듣고 매우 뿌듯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전시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전시 물품은 거울이었습니다. 책에 주인공들을 외모에 집착하게끔 했던 거울이 하나 있었는데, 그 거울을 생각하며 배치한 물품이었습니다. 이 전시를 준비하면서 책을 다시 읽었을 때, 거울을 통해 볼 수 있는 건 그 사람 자체가 아니라 외모뿐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전시에는 기획자의 감상이 담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모으자 분과를 하는 동안 읽었던 책과 감상을 공유하는 느낌에 빠져 활동할 수 있었는데, 개인적으로는 유독 그런 감상이 짙었던 전시였습니다.



그렇게 서가와 모퉁이, 창가 등에 전시를 이어갔고, 모으자 분과 전체가 한 전시를 준비하던 양상은 코로나 이후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도서관이 문을 잠시 닫으면서 2020년 활동이 잠시 미뤄졌고, 지난 3년과는 다르게 연초에 활동을 할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해방 세미나실에서 모든 모으자 회원이 모일 수 없어 반은 방 밖에서, 반은 방 안에서 활동한 데다 전체 전시를 진행하기 힘들어 커다란 하나의 주제를 여러 소분야로 나누어 전시를 진행해야 했습니다. 이 시기에 진행했던 전시 중 기억에 남는 전시는 '환경'이라는 큰 주제 안에서 소주제로 코로나를 다룬 전시였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박쥐가 인간이 사는 곳까지 나타나면서 코로나 사태가 시작되었으니 환경이라는 주제에도 맞고 시의성도 있다고 생각해 소주제 중 하나로 선택되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전시가 있었던 2020년에는 유독 신규 회원이 많았는데, 코로나 이전에는 남아서 함께 놀며 많이 친해질 수 있었던 반면 코로나 이후 놀기는커녕 함께 있는 시간도 줄어 몇몇 친구들이랑은 데면데면하게 끝낼 수밖에 없어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아무래도 조별 전시 위주로 진행하다 보니 한 번도 같은 조를 못한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참여했던 전시는 작년 전시입니다. 작년에는 학교를 졸업하는 사람만 네댓 명이었고, 그게 아니라도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시작하는 의미에서 '마지막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전시를 진행했습니다. 각자 주제에 맞는 책을 골라 진행하는 개인 전시였는데, 각자가 생각하는 마지막과 시작이 어떤 모습인지를 추천하는 책을 통해 엿볼 수 있어 재미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 전시를 준비하면서는 참여할 수 있는 모으자 활동이 이걸로 끝이라서, 더 잘하지 못해서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으자 활동 외의 독한 친구들 활동을 말해 보자면, 아무래도 총회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오리엔테이션처럼 진행되는 총회가 연초에 있고, 상반기에 중간점검처럼 한 번, 하반기에 연말 총회로 한 번 있었습니다. 이때 도서관 규정이나 독한 친구들 규칙 개정을 하면서 정말 도서관을 우리가 꾸려나가는 기분이 들뜨기도 했습니다.

독한 친구들이 시작된 첫해에는 같이 활동할 사람들을 처음 보는 거라 두근거렸습니다. 분과끼리 앞으로 언제 모일지도 정하고 분과장도 뽑고, 우리 분과의 규칙도 만들었습니다. 지금 기억나는 규칙 중 하나는 지각하면 간식 사오기였는데, 지각 시 벌칙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와서 같이 먹을 간식을 사는 것으로 결정되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물론 해를 거듭하면서 점차 사라져간 규칙이기도 했습니다.

2018년에는 분과장으로 뽑혀 활동하게 되었는데, 총회 때 모으자 활동 내용을 보고하기도 하고, 모으자 활동 중에도 모임을 진행하는 역할을 하며 좀 더 적극적으로 모임에 임했던 것 같습니다.

2019년에는 연초에 의장 대리를 맡은 게 기억에 남습니다. 연초 총회의 진행을 맡아야 하는 전대 의장이 그해 독한 친구들에 참여하지 않아 대리 총회 진행을 맡았는데, 처음이라 조금 버벅거리긴 했지만, 무사히 맡은 부분을 마치고 새로운 의장에게 진행을 넘길 수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2020년에는 의장이 되어 활동했는데, 코로나 상황 속에서 의장을 맡은 터라 이전과 달라진 부분들에 적응이 필요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도서관이 이전에 진행하던 행사들을 그대로 진행할 수 있는지, 그러지 못한다면 어떤 부분을 어떻게 변경할지를 논하는 부분이 그랬습니다. 의장 활동을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유튜브 라이브로 진행된 성북 책모꼬지에 독한 친구들 의장으로서 나간 것이었습니다. 독한 친구들이 어떤 단체인지 소개하고, 두세 개 정도의 질문에 대답하는 게 다였는데도 너무 떨리고 긴장했는데, 청소년 참가자가 매우 소수여서 긴장을 풀어주시는 등 잘 챙겨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2021년에는 고3이라 10월 즈음부터는 활동에 집중할 수 없었는데, 마지막일 수밖에 없다는 걸 알기에 아쉽고 또 아쉬웠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까지 5년을 함께하며 도서관과 함께하는 날들이 일상에 스며들어 있었는데, 함께 활동할 수 없다는 게 조금 낯설기도 했습니다.

함께한 시간이 긴 것 외에도 독한 친구들은 제게 뜻깊은 활동이었습니다. 독한 친구들로, 모으자로 활동을 하며 제 꿈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이전까지는 사서라고 하면 서가 정리와 대출 반납 업무만 생각하던 제가 모으자로 활동하면서, 다른 분과의 활동을 보면서 사서 업무의 다양성을 알게 되었고, 도서관에서 활동하는 데에 만족감을 느끼면서 진로를 사서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사소하게는 서로 일정이 안 맞아서, 크게는 코로나 때문에 힘이 들 때도 있었지만, 함께라 즐겁고 함께라 소중한 추억을 꿈그림에서 만들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꿈을 좇을 때도 꿈그림과 함께한 소중한 기억들이 떠올라 제 등을 받쳐 줄 것입니다. 제 청소년기를 함께했고 청춘의 시작을 함께한 월곡꿈그림도서관, '도서관과 함께 그려나가는 꿈은 현실이 됩니다'라는 말이 실현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하려 합니다.



덕분에 오늘도 행복했습니다

이정화 (성북구한책추진단 운영위원장)

한 도시, 한 책.
ONE CITY ONE BOOK.
몇 년 전부터 잡지나 TV에서 '한 책' 관련 기사를 접할 때가 있다. 서로 다른 도시에서 선정한 '한 책'에 대한 기사 말이다. 선정 도서 가운데에는 이미 읽은 책도 있고 나중에 읽자고 미뤄둔 책도 있다. 물론 처음 접하는 작가와 책도 있었는데 나의 호기심은 거기까지였던 것 같다. 여러 도시에서 선정한 각각의 도서가 내가 아는 도시이고 작가인지, 읽은 적이 있었는지 하는 정도에서 머무는 게 다였다. 도시별 '한 책'이 누구에 의해 어떤 과정을 거쳐 왜 선정되는 것인지 깊이 들여다볼 마음까지는 없었다. 그러던 내가 지금은 '성북구 한 책 읽기' 추진단으로 활동하고 있다. 볼을 열렬하게 만드는 한여름 피약별과 양동리로 쏟아붓는 것 같은 스콜(squall)을 뚫으면서도 한 책 관련 행사에 참여할 만큼 열심히. 이유가 무엇일까?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관련한 정보는 흘깃 보고 지나치고 말았는데 무엇이 나를 이렇게 변화하게 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사람이 훨씬 더 좋아졌고, 행복의 크기가 더 컸기 때문이다.

결혼하고 한참을 서울을 떠나 살았었다. 부임지를 따라 지방 여러 곳을 옮겨 다니다가 이제 다시 태어나고 자라고 성장한 곳으로 돌아왔는데 뭘지 모르는 서먹함. 이방인인 듯한 느낌마저 들었다. 새로 정비된 도로와 높은 건축물 등의 물리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이미 나의 친구들과 지인들이 여러 곳으로 떠나 정을 붙일 곳이 마땅치가 않았다. 방과 후면 지는 노을을 뒤로 하고 엄마가 밥 먹으라고 부를 때까지 놀던 골목길은 거대한 아파트가 들어서 지형마저 변해있었다. 남아있는 주변 건물들로 간신히 추억 몇 가지를 더듬어 떠올리는 정도였다고나 할까. 그리움이 깊어지니 마음이 허공을 도는 것 같았다. 그럴 즈음 만난 게 바로 '성북구 한 책 읽기'였다.

도서관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중에 사서 한 분이 원북성북ONEBOOK SEONGBOOK을 소개해주었다. 시간적 여유가 있던 시기였기에 구체적인 활동과 내용도 모른 채 덩석 추진단에 가입했다. 자세한 건 차차 알아가자는 마음으로, 가볍게 가볍게. 마침 이웃으로 지내던 한 분이 운영위원 가입을 권해주었기에 이 또한 가벼운 마음으로 지원했다.

막상 '성북구 한 책 읽기' 운영위원이 되고 보니, 내가 이리 무지했던가 싶었다. 원북성북은 성북구의 대표적인 독서모임인데 대표라는 말에 걸맞게 추진단과 운영위원의 구성원 수가 상당했다. 내가 가입하던 당시에 추진단은 수백 명을 이루고 있었고 올해인 2022년에는 1,000 명을 훌쩍 넘어섰다. 운영위원 구성원도 늘어나 현재 50 명 정도가 활동하고 있다.

운영위원 중에는 서평을 멋지게 쓸 만큼 독서 구력이 오래인 분도 있었고, 독서가 일상적인 취미인 분들도, 책 읽기를 새로 시작하려는 분들도 있었는데 한결같이 '한 책 읽기'에 애정이 깊어 보였다.

원북성북ONEBOOK SEONGBOOK 활동을 하면서 놀랐던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 하나는 다양한 연령대의 분들이 참여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이제 막 성인이 된 스무 살의 사회 새내기과 여든을 넘기신 어른들, 그 사이를 잇는 다양한 연령대의 어른들. 그리고 그들의 조화. 주변 사람들에게 원북성북을 자랑하면서 첫 번째로 손꼽는 점이기도 한데 듣는 이들 대부분이 감탄사를 연발한다. 그게 가능하냐고 되묻기도 하고. '물론이죠. 활동하는 분들이 기본적으로 장착하고 있는 매너를 보면 더 놀라실 걸요', 를 덧붙이기도 하고. 어디에서 이런 광경을 볼 수 있을까. 다음으로 놀랐던 건 프로그램 기획력과 꾸준한 추진력이었다. 앞서 밝혔듯이 자세한 내용도 모른 채 가입하고 활동한 '성북구 한 책 읽기'는 성북문화재단에서 주관하고 있었다. 문화재단과 성북구 구립도서관 15개관, 그리고



작은도서관들이 촘촘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협력해서 추진하고 있는 프로그램인데 올해의 한 책을 선정하기 위해 진행되는 각종 프로그램의 다양성과 신선함은 큰 매력으로 여겨졌다.

수백 권의 추천 도서 가운데 최종후보도서 4권이 정해지면 작가와의 만남도 직접 경험하게 되는데 육성으로 듣는 작품은 활자로 만나는 것과 사뭇 다른 느낌을 주었다. 책에 미쳐 드러나지 않은 인물의 깊은 내면을 마주하는 기분. 이 시간을 통해 만난 작품은 시간이 지나도 기억이 생생하다.

‘청청프로젝트’도 상당히 신선했다. 청소년이 주축인 이 프로젝트는 고려대학교 독서동아리 ‘호박마차’와 협력을 이루는데 청년과 청소년의 열띤 토론을 듣다 보면 종종 낮이 뜨거워질 때가 있다. 기성세대의 변화를 요구하는 이야기가 기탄없이 나오기 때문인데 듣다 보면 맞는 말이라 고개만 끄덕끄덕. 평가지 없이 자유로이 토론하는 그들에게서 희망이 느껴지는 건 비단 나 하나만은 아닐 것 같다.

어린이 한 책 후보도서로 만드는 애니메이션도 재미나 신선함으로 따지자면 단연 으뜸. 원복성북은 어린이를 대상으로도 한 책을 선정하는데 추천 도서 가운데 1차 후보도서 10권을 놓고 어린이 추진단과 아동분과 위원들이 각각 토론의 시간을 갖는다. 이후 4권의 최종후보도서를 선정하면 이 도서들로 애니메이션을 만든다. 한 작품당 2분 30초를 넘지 않는 짧은 영상물을 만들기 위해 우리는 책을 다시 읽고 또 읽으며 대본을 쓰고 삽화를 배열하고, 적절한 톤을 찾아 목소리 연기를 연습했다. 비장의 카드를 꺼내신 건 아닐까 싶을 만큼 놀라운 연기 재능을 보여준 위원을 보면서도 내 대사를 깜박 놓치기도 했다. 성우를 해도 좋았겠다 생각되는 위원이 있었는데 이미 성북구의 어린이들에게 소문이 자자하다고 했다.

역시, 탁월한 능력을 나만 알아보는 건 아니지. 애니메이션을 만들기 위한 준비 작업을 하는 사이사이에서 느껴지는 충만한 행복함. 서너 마디에 불과한 목소리 출연이 이리도 행복하게 하다니!

한책추진단으로 활동하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기간이 길어질수록 원복성북ONEBOOK SEONGBOOK을 꾸려가는 이들에 대한 고마움이 크다. 그들이 보여준 화합과 능력은 나의 기대와 상상을 뛰어넘었다. 웬만한 리더십과 팀워크로는 도저히 해낼 수 없을 거라 여겨졌고,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그들의 손과 발과 머리가 얼마나 분주하게 움직일 것인지 짐작이 되었다.

성북에 살고 있다는 게 좋다. 사람들과 만나 같은 책을 읽고 담론을 나누고, 우리가 함께 만드는 문화를 이야기하고, 이웃과 나눌 것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주고받는 공간. 그 안에서 나는 어제보다 오늘이 나음을, 내일은 오늘보다 더 행복할 것이라는 믿음이 들기 때문이다.

원복성북ONEBOOK SEONGBOOK. 성북구 한 책 읽기를 통해 만난 사람들과 성북문화재단 덕분에 오늘도 나는 행복하다.



마음을 바로하다

돌아보며

미술사를 넘어선 우리들의 이야기 _ 성북구립미술관 소장품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 _ 문인사기획전
역사적 기록과 영화적 재현 _ 조선왕릉역사영화제

내다보며

생활문화부터 엘시스테마까지 _ 구민회관 프로그램
서로의 악기 소리에 귀기울이며 _ 꿈의 오케스트라 성북
미술관과 친해지는 방법 _ 성북구립미술관 문화프로그램
어린이들이 자라는 미술관 _ 어린이미술관
일방향이 아닌 양방향으로 향해서 _ 작가와의 만남
꾸러미에 담긴 우리들의 평등 _ 북스타트
문화예술교육의 거점, 그 이야기 _ 청소년문화공유센터
예술을 통해 나를 만나는 시간 _ 성북생활문화살롱2.0
지역이 함께 만드는 문화예술교육 플랫폼
_ 기초단위 문화예술교육 거점 - '성북문화예술교육허브'
청년예술가와 함께하는 문화예술교육 실험공간
_ 문화예술교육공작소 함

마주했고

성북의 공유도시를 펼쳐보이다 _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성북의 예술가들, 제주로 향하다 _ 제주비엔날레
교류를 통한 특별한 기억하기 1 _ 제주4.3 70주년 교류활동
교류를 통한 특별한 기억하기 2 _ 공공예술사업
이주민과 선주민이 함께 공존하는 마을을 위하여
_ 성북다문화도서관(성북정보도서관)
예술의 전당 VIP석의 감동을 영화관에서 _ 싹 온 스크린
유럽의 문화 속 공존과 조화의 가치 _ 유럽단편영화제
젊은 영화인들의 축제 _ 성북청춘불패영화제
개성 넘치는 독립영화를 만나다 _ 인디서울

함께했고

성북만의 북페스티벌을 만들어내다 _ 책모꼬지
음식을 매개로 서로 다른 문화가 마주하다
_ 성북세계음식축제 누리마실
차별없는 즐거운 여름을 위하여 _ 성북문화바캉스
"있어왔던", "해왔던" 플랫폼형 축제 _ 성북진경
지역주민들을 위한 문화예술 쉼터 _ 성북구민여성회관
성북을 대표하는 다목적 공연장을 세우다 _ 꿈빛극장
한국의 대표적인 예향(藝鄕)으로서 가치 _ 성북구립미술관
작지만 깊은 예술가의 숨결로 가득찬 _ 성북구립 최만린미술관
예술가들을 위한 살아있는 창작 공간 _ 성북예술창작터
아이들의 꿈이 그려지는 특별한 미술관
_ 성북어린이미술관 꿈자람
처음과 같이, 지금은 15개의 문화공간으로 _ 성북구립도서관
공공영화관의 새로운 미래 _ 아리랑시네센터
건축과 예술 그리고 주민참여 _ 김중업건축문화의 집
문화예술교육실천가들의 아지트 _ 문화예술교육공작소 함
마을안에서 나만의 예술 만나기 _ 돌곶이생활예술센터

꿈꾸고

도서관이 마을 밖으로 나가면 어떻게 될까? _ 마을in수다
성북의 즐거운 동네살이 _ 예술마을만들기
지역을 바꾸는 새로운 실험 _ 나만의 생업만들기 - 창업공작터

이루고

성북문화재단수상실적

지키고

300여명의 정기후원자 _ 나눔풍성 후원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펼쳐내는 예술가들 _ 이야기청
시켜줘, 마을 보안관! _ 방역지원 활동

마음을 바로하다

돌아보며

성북 지역은 한국의 근현대 미술이 태동할 무렵부터 수많은 작가들이 창작의 고향으로 뿌리를 내린 곳으로, 한국 미술사 속에서 중요한 가치를 가진다. 성북구립미술관은 자치구 최초의 공립미술관으로서 이 지역에 깃든 예술의 맥을 이어온 지역 작가들의 기증 작품을 바탕으로 2009년에 건립되었다.

소장품은 미술관을 구성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로서 미술관의 정체성과 특색을 고스란히 반영한다. 성북구립미술관의 소장품은 금누리, 서세옥, 송영방, 신영상, 윤중식, 이규선, 이규호, 임송희, 정탁영, 정하경, 조문자, 차명희 등 성북 지역에 거주하는 한국 근현대 주요 작가들의 기증 작품을 중심으로 그 수집이 시작되었다. 이후 2019-2020년 조각가 최만린 및 유족, 2021년 한국화가 서세옥 유족, 2022년 서양화가 윤중식 유족의 기증을 통해 한국 근현대 미술의 다양한 장르를 아우르는 4,500여 점의 소장품을 확보하기에 이르렀다.

미술사를 넘어선 우리들의 이야기

성북구립미술관 소장품



故 서세옥 화백 작품 기증협약식



故 윤중식 화백 작품 기증협약식



최만린 오픈 수장고

성북구립미술관은 소장품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전시를 개최하고 있다. 준공기념전시 <상념의 시작>展(2009), 상설전시 <돈움>展(2010) 등 소장품 전시는 성북구립미술관의 정체성을 알리기 위한 중요한 전시가 되었다. 2019년 성북구립미술관 분관으로 개관한 최만린미술관 개관기념전 <흙의 숨결>(2020)은 최만린 주요 작품을 소장품으로 기증받아 미술관을 개관하게 된 중요한 선례가 되었다. 이후 신소장품을 중심으로 기획된 서세옥컬렉션 <화가의 사람, 사람들>展(2021), 윤중식 10주기 추모전 <회향懷鄉>展(2022) 등을 개최하였다. 또한 성북어린이미술관 꿈자람 드로잉 소장품전 <춤을 취요>(2020), SMA 아뜰리에 <아하, 우리!>(2022) 등 성북구립미술관의 소장품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본관 및 분관에서 다수의 기획전시를 개최해오고 있다. 아울러 2012년부터는 송파구, 강동구 등 서울시 자치구들뿐만 아니라 타 지역 미술관을 대상으로 소장품 순회 전시 및 소장품 대여 사업 등을 통해 성북구립미술관 소장품의 가치와 중요성을 널리 홍보해왔으며 2022년에는 서울시 요청으로 삼청각 재개관 기념전을 성북구립미술관 소장품 전시로 추진하였다.

한국의 주요 현대작가들의 기증 작품으로 형성된 성북구립미술관의 소장품은 2019년 조각가 최만린, 2021년 한국화가 서세옥, 2022년 서양화가 윤중식과 해당 유족의 작품 기증으로 한국 근현대 미술의 기본적인 장르별 연구기반이 확보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한 예술가의 일생을 아우르는 작품 대부분이 지역의 공공미술관으로 환원된 것은 그 선례를 찾기 힘든 일일뿐만 아니라 특성화된 지역 미술관의 정체성과 위상 확립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성북구립미술관은 성북 지역 작가들의 기증 정신을 이어받아 유무형의 문화자산으로서 소장품을 관리·보존하고 나아가 소장품이 지닌 시대적 가치와 의미를 발굴하고자 한다. 또, 지역과의 연관성을 중심으로 한국 근현대미술사에 대한 연구와 함께 양질의 기획 전시 및 소장품 관련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일상 속에서 미술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반을 형성하고자 한다.



윤중식, 석양, 116.7x90.9cm, 캔버스에 유채, 2004



산정 서세옥, 사람들, 162x129cm, 닥종이에 수묵, 1989

소장품 수증 현황

2010	2011	2019	2020	2021	2022	총 합계
105	2	126	2	3,785	501	4,521

※ 그 외 아카이브 자료 45,316점 소장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

문인사기획전

성북은 예전부터 예술인들이 많이 거주하며 활동하였고, 예술인들의 다양한 교류가 이뤄지던 곳이다. 성북문화재단은 우리들이 잊지말고 기억해야하는 자리로 <문인사기획전>을 시작하였다. 성북의 대표 문인들을 매년 한 명씩 선정하여 그들의 이야기와 작품을 우리 모두가 기억할 수 있는 이야기로 풀어내는 자리. 그 첫 시작은 성북의 대표 문인 신경림 시인이었다.

재단은 신경림 시인의 <문인사기획전 - 사진관집 이층>을 준비하기 위해 시인의 모든 출판 서적들과 인터뷰들을 연구하였다. 이는 단순히 신경림 시인을 소재로 전시를 준비한 후에 초대하는 것이 아닌, 시인 자신이 직접 남기고 싶은 이야기를 편안하게 꺼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한 후에 시인과 함께 프로그램을 기획한 것이었다. 또한 과정에 젊은 예술인이 참여하여 이를 전시가 가능한 형태로 시각화 하였으며, 그렇게 마련된 공간 안에서 신경림 시인과 박재동 화백의 대담부터 작가와의 만남까지 입체적으로 공간을 운영하였다.

제1회 신경림 시인의 <문인사기획전 - 사진관집 이층>을 통해 <문인사기획전>의 브랜드 성장 가능성을 확인한 재단은 이후 조지훈, 황현산, 박완서, 신동엽, 김훈 등 매년 성북의 대표 문인들을 선정하며 프로그램 지속하였다. 그리고 해를 거듭하면서 전시 뿐 아니라, 포럼을 비롯한 산책극과 자료집 제작까지 프로그램의 영역을 확장시켜나갔다.

<문인사기획전>의 확장은 참여자들에게서도 나타난다. 신동엽 작가의 <문인사기획전 - 때는 와요>는 지역의 젊은 예술인들이 프로그램의 기획부터 참여하여 직접 유가족들을 인터뷰하고 재단과 함께 작가의 다양한 작품들을 연구한 후 작가의 작품에서 영감을 받은 미술작품을 제작하여 전시장에 설치하여 관객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다.

<문인사기획전>은 단순히 지역의 문인을 주민들에게 알린다는 것에서 벗어나 지역 아카이빙의 역할까지 담당하였다. 지역 문인의 삶과 이야기는 너무도 당연하게 지역의 과거를 담고 있었으며, 그것들은 우리가 잊지말고 기억해야 하는 하나의 역사였다. 그러나 코로나19의 여파로 현재는 잠시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고 있다. 그렇지만 재단은 지속적으로 지난 문인들의 삶에 관심을 가지고 기울이고 있으며 다음을 준비 중에 있다. 박태원, 박경리, 이태준, 한용운 등 성북에는 아직 <문인사기획전>을 통해 재조명 되어야하는 문인들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프로그램의 연속성은 '문인'이라는 장르를 넘어 또다른 예술인들을 기록하고 담아내는 과정으로 나아 갈 것이다.



2015 사진관집 이층
- 신경림

2016 조용히 흔들리며 가노니
- 조지훈

2017 밤이 선생이다
- 황현산

2018 지금 여기 박완서
- 박완서

2019 때는 와요
- 신동엽

2020 여기에서 나는 산다
- 김훈



2015 <사진관집 이층>



2018 <밤이 선생이다>



2019 <때는 와요>



2019 <때는 와요>

역사적 기록과 영화적 재현

조선왕릉역사영화제

2016년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에 성북구, 노원구, 구리시, 남양주시 4개의 지자체가 연계 협력한 『조선왕릉 문화벨트 조성사업』이 선정되었다. 이에 4개의 지자체가 조선왕릉 콘텐츠를 개발 활용하는 데 뜻을 모으고 지역 문화유산을 적극적으로 소개하고 고유 자산으로서 지역 주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마을 콘텐츠를 기획하고 개발했다.

성북문화재단 아리랑시네센터에서는 관련 콘텐츠를 실현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조선왕릉역사영화제」를 추진하고, 조선왕조를 다룬 영화를 상영해 시민들이 조선 왕릉의 역사를 이해하고 지역 문화유산에 대한 가치를 환기시키는 계기로 삼았다.

아리랑시네센터가 영화관으로서 가진 최적의 환경을 활용하여 조선 역사를 다각적으로 바라보는 영화제를 기획하고 취지에 부합하는 관련 분야 전문가 초청 및 인문학 콘서트를 접목한 GV 등을 통해 역사와 교육적 가치를 동시에 담보하는 행사를 추진하였다.

2017년에 추진된 제1회 왕릉영화제에서는 한국 액션 영화의 대부 정창화 감독의 <장희빈>, <황혼의 검객>과 한국영화의 르네상스를 연 신상옥 감독의 <연산군>, <폭군연산> 그리고 최근 역사영화를 다룬 이준익 감독의 <사도>, 한재림 감독의 <관상>을 상영하였고 특히 역사학자와 영화 평론가가 함께 '연산군 토크 콘서트'에서는 연산을 영화와 역사라는 두 축으로 흥미롭게 풀어냈다.

2018년은 제2회 조선왕릉역사영화제로 영화제명을 확장하며 조선왕조의 역사를 집중 조명하는 것에 방점을 두었다. 먼저 조선시대 폐위된 광해군과 연산군을 주제로 <대립군>, <광해, 왕이 된 남자>, <연산일기>, <왕의 남자>를 상영하였고, 수렴청정을 한 인목대비, 정순왕후, 문정왕후를 고증하는 <인목대비>, <역린> 등을 상영하였다. 특별히 한국영화의 선구자 나운규 감독의 차남인 나봉한 감독의 <문정왕후> 상영 후에는 1967년 당시 인종 역할을 맡았던 배우 이순재와 함께 흥미로운 대화를 진행했다.

2019년은 영화제의 마침표를 찍으며 역사적 사실에 바탕을 둔 팩션영화 <나랏말싸미>, <덕혜옹주>, <최종병기 활> 및 제12회 대중상 최우수 작품상 수상작 <홍의 장군> 및 <주유천하>, <청일전쟁과 여결민비>, <대원군> 등 다양한 고전 작품을 통해 관객을 만났다. 또한 역사 전문가를 통해 분열의 근대, 사실과 소망 사이 역사영화의 현주소를 되짚어보는 특별한 자리를 마련하여 심도 있는 대화를 이어나갔다.

조선왕릉은 단순히 왕이 잠든 무덤이기 이전에 조선왕조가 집약된 문화의 정수로서 이를 활용한 관련 콘텐츠 다각화로 중장기적 지역 발전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2017

기간	2017. 12. 7.(목) ~ 12. 9.(토)
상영관	아리랑시네센터 2관
주최/주관	성북구,노원구,구리시,남양주시 / (재)성북문화재단
총관람객	1,135명

2018

기간	2018. 11. 29.(목) ~ 12. 1.(토)
상영관	아리랑시네센터 2관
주최/주관	성북구,노원구,구리시,남양주시 / (재)성북문화재단
총관람객	1,425명

2019

기간	2019. 11. 28.(목) ~ 11. 30.(토)
상영관	아리랑시네센터 2관
주최/주관	성북구,노원구,구리시,남양주시 / (재)성북문화재단
총관람객	1,175명



제1회 왕릉영화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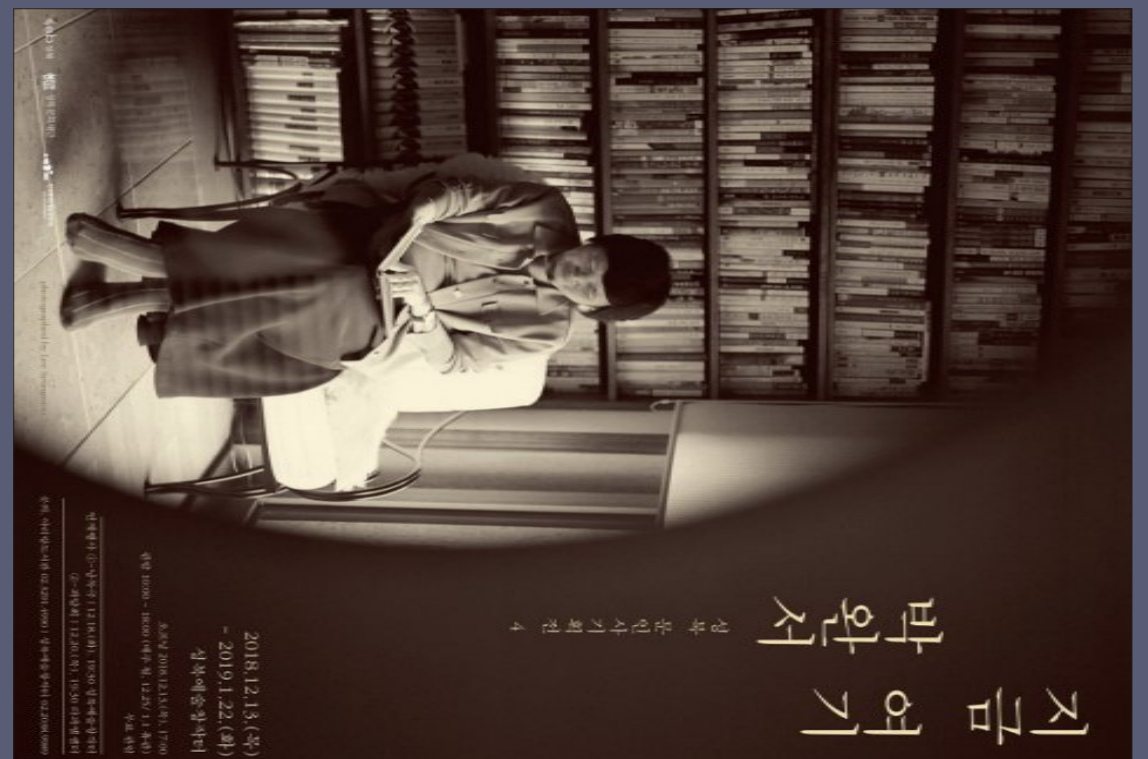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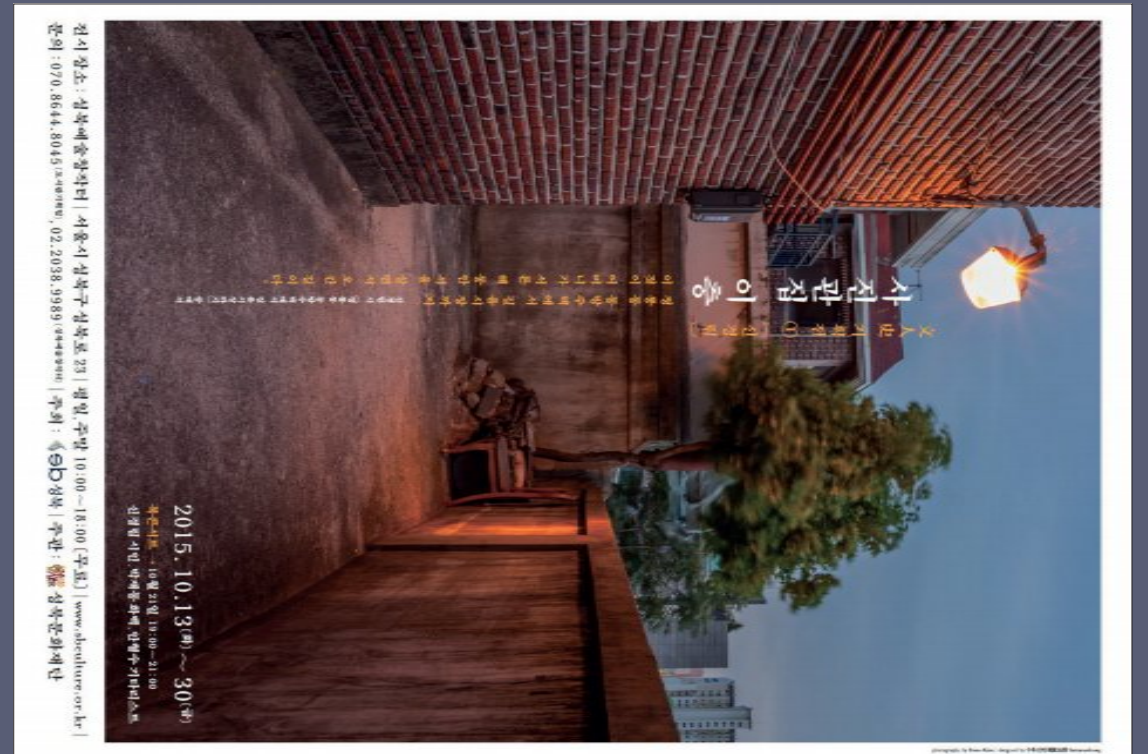
제2회 조선왕릉역사영화제



제3회 조선왕릉역사영화제



책속의 엽서





책속의 엽서



POST CARD

From :

To :

POST CARD

From :

To :



성북 어린이 워터슬라이드 축제

제6회 성북문화바캉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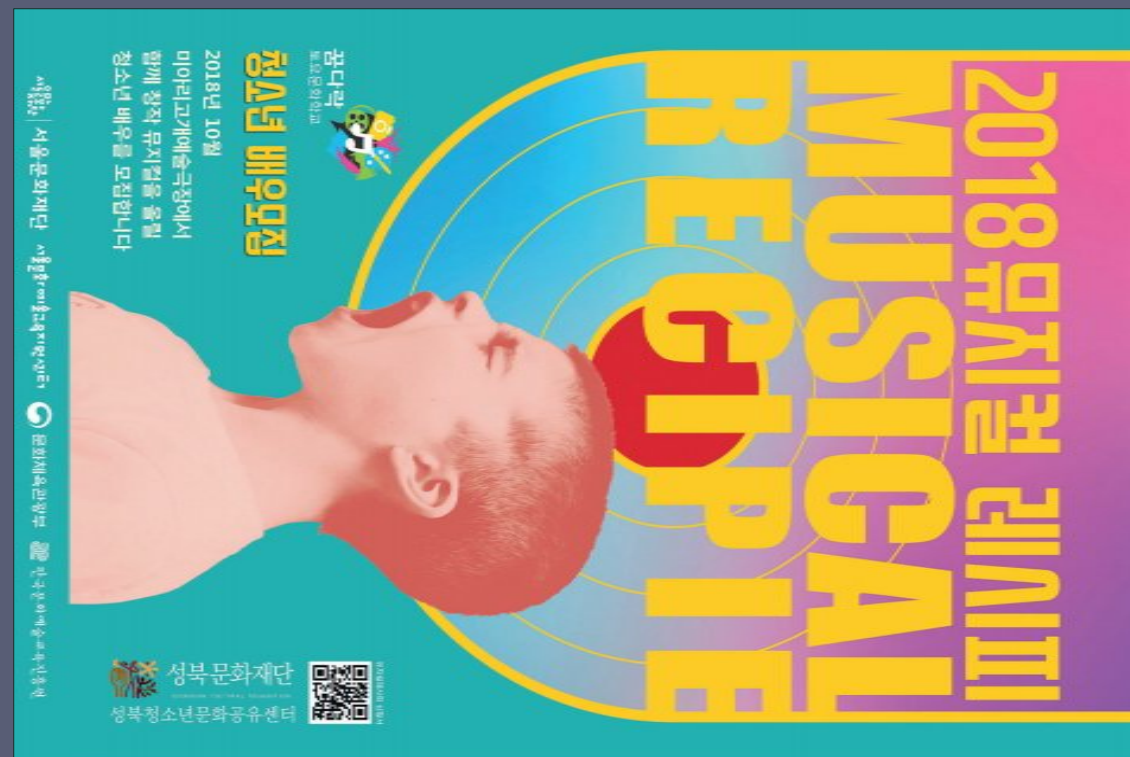
2022. 7. 29(금) ~ 8. 7.(일)
★ 총 10일간 ★

● **출발선** : 다들찾자장
(4개월 두산아파트 정문 출발전 인근)
● **운영시간** : 10:00 ~ 18:00
● **[대상]** : 성북구 어린이 가족 누구나(무료)

☞ 코리나19 호기심심해 미친 열정 열대 과일
☞ 물수레타령 : 아라야노, 수레타령(태권가락), 마스코(태권가락), 호리안
☞ 기타 공연 : 피아노를 쏘아먹는건데, 뽕, 유영민, 유진
☞ 주공연(4월초예정) : 09:30~10:30 주영민 10:30~11:30 대문과를 아롱 아롱 배롱
현이 : 성북문화재단(02-2030-4900)







POST CARD

From :

To :



From :

POST CARD

To :

From :

POST CARD

To :



마음을 바로하다

내다보며

생활문화부터 엘시스테마까지

구민회관 프로그램

2012년 성북문화재단의 출범과 함께 성북구민여성회관에서는 지역에 새로운 문화활동의 바람을 불어 넣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시작하였다. 단순히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문화활동 거점으로 자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이를 위해 여러 교육 문화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지역의 문화예술활동가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한 토대를 쌓아나갔다.

엘시스테마(꿈의오케스트라)의 철학을 기반으로 아동 청소년의 다면적 성장과 음악교육을 통한 전인격적인 성장을 도모하였으며 '꿈의오케스트라 성북'의 강사들을 중심으로 하는 '성북 음악인 협동조합 아이클랑'을 구성하였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사회의 공헌과 문화나눔 활동을 지속하였다.

또한 지역의 상주 입주예술단체 유치를 통해 예술단체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하였으며 지역의 주민들과 예술단체가 만날 수 있는 자리들을 마련하였다. 이렇듯 예술단체와 구민여성회관의 상호보완적 협치를 통해 문화예술활동의 자생력을 강화하는 한편 여성회관을 중심으로 하는 생활문화강좌를 통해 결성된 16개의 주민 생활 문화동아리의 활동을 지원하며 주민 주도 생활문화축제의 모델을 제시하였다.

성북구민회관의 대표 문화사업인 꿈의오케스트라 성북은 재단과 함께 10주년을 맞이하였다. 2013년부터 2021년까지 총 137명의 졸업단원을 배출하였으며, 후원자 155명에 이르렀다. 이와 같은 꿈의오케스트라 성북의 꾸준한 성장은 지역사회가 아동 청소년 문화예술활동을 육성하는 모델의 가능성을 제시한 셈이다.



구민회관 대표 프로그램

꿈의오케스트라 성북	오케스트라 활동을 통한 아동 청소년의 성장 교육 프로그램
가족 오케스트라 드림홈	음악을 통해 가족공동체의 정서적 결합과 순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프로그램
음악나눔센터 조성 및 클래식마을만들기	공공 공간을 활용한 다양한 세대간의 문화예술 교류공간 조성
고(高)동네 한바퀴	지역생활문화 네트워크 확대를 위한 문화가 있는 날 생활문화 동호회 활성화 사업
성북, 오행시	고령화 사회를 맞이하여 치매예방 및 위험단계 어르신을 대상으로 특화된 치매예방형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
한글로 행복교실	학령기를 놓친 성인에게 제2의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초등학교 취득을 지원하는 학력인정문화교육

성북구민회관 문화행사



꼬마오케스트라 동아리



꿈의오케스트라 성북 정기연주회



2017 가족오케스트라 두근두근 콘서트



2018 가족오케스트라



2021 문해교육



2021 문해교육



2017 생활문화축제 동동아트페스타



2017 생활문화축제 동동아트페스타



2017년 구석구석 잔치
「해적, 구민회관섬에 들어가다」



생활문화지원센터_큰잔치(구석구석)



2019 생활문화축제 고(高)동네 한바퀴



2019 생활문화축제 고(高)동네 한바퀴



합창활성화 사업 우리동네합창단
성북싱어즈



치매예방형 문화예술치유프로그램
성북오행시



성북여성회관 생활문화예술강좌
도자기 공예



생활합창활성화사업 꿈드림 합창단



치매예방형 문화예술치유프로그램
성북오행시



성북여성회관 생활문화예술강좌 발레

마음을 바로하다

내다보며

서로의 악기 소리에 귀기울이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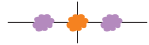
꿈의 오케스트라 성북

꿈의 오케스트라 '성북'은 문화예술 자원이 풍부한 성북의 특성을 활용하여 수준 높은 강사진을 보유할 수 있었다. 그리고 다양한 지역축제 참여와 다른 예술가 및 단체들과 협업하는 등 내부적으로 소비되는 교육이 아닌 대내외적으로 적극적인 만남이 가능한 문화예술교육으로 성장했다.

꿈의 오케스트라 '성북'은 매년 정기 연주회를 통해 자발적 지역의 후원자들과 만나고 있으며 이를 통한 문화예술 나눔을 실천한다. 그리고 참여 아동·청소년들에게는 '협동캠프'를 비롯한 여러 프로그램으로 상호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도 분명 있었다. 모두가 한 자리에 모여 서로의 소리를 들으며 함께 맞춰나가는 오케스트라 교육에서 대면 교육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온라인 중심의 비대면 프로그램으로 운영될 수 없어 힘든 시간을 보냈다. 성북문화재단은 친구들과 합주를 꼭 하고 싶다는 참여 아이들의 의견을 듣고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하여 각 악기별로 4인 이하 대면 교육을 진행하였다. 정부의 안전수칙은 기본으로 하면서도 그보다 더욱 철저하게 현장을 운영하였다. 이는 무엇보다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을 추구하는 엘시스테마의 교육 가치를 실현하기 위함이었다.

현재 꿈의 오케스트라 '성북'은 지역을 대표하는 오케스트라로 후원문화의 확대를 비롯하여 아동·청소년이 행복할 수 있는 문화예술교육의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단원 수(명)

2013	2014	2015	2016	2017
42 (소외31+일반11)	52 (소외41+일반11)	60 (소외42+일반8)	62 (소외48+일반14)	63 (소외48+일반15)
2018	2019	2020	2021	2022
68 (소외47+일반21)	70 (소외42+일반28)	69 (소외43+일반26)	77 (소외46+일반31)	80 (소외48+일반32)

공연 실적(회)

2013	2014	2015	2016	2017
3회	7회	14회	9회	8회
2018	2019	2020	2021	2022
4회	4회	6회	3회	4회(예정)

꿈의 오케스트라 연주회 이미지



2015 성북, 연천 합동공연 '하나된 우리'



2018 제8회 정기연주회_국민대 콘서트홀



2019 세종문화회관 All Together_백건우 협연



2020 제8회 정기연주회_랜선 음악회

기사

“함께 연주해서 좋았어요” 꿈의 오케스트라 ‘설렘팡 희망톡’ 콘서트

- 중앙일보 | 2022.08.22 15:37

18일 오후 2시 송도 아트센터인천 콘서트홀. 무대 위에는 호른니스트 이석준(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과 학생들로 구성된 오케스트라가 리허설 중이었다. 2022 꿈의 오케스트라 ‘설렘팡 희망톡 콘서트’의 마지막 날이었다.

이날 공연을 이끈 호른니스트 이석준은 “리허설 때 제 얘기를 잘 들어주고 집중하는 느낌이 좋았다”고 소감을 밝혔다. 뛰어난 영재를 발굴하는 것도 좋지만 함께 연주하는 경험을 통해서 사회성을 키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관심을 갖는다는 게 중요하고 실력은 두 번째다. 이런 오케스트라가 많아져야 음악을 향유하는 인구도 늘어나고 소질 있는 학생을 발굴하는데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류태형 객원기자·음악칼럼니스트

중앙일보 기사(<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96051>) 발췌

꿈의 오케스트라 캠프 및 활동



2014 꿈의 오케스트라 이음캠프



2017 성북, 오산 합동캠프_스타워즈



2019 동계캠프_업앤업!



2021 꼬마 오케스트라 동아리 활동



미술관과 친해지는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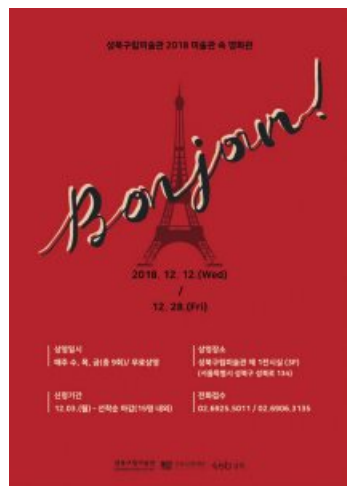
성북구립미술관 문화프로그램

성북구립미술관에서는 미술관 전시 외 관람객을 대상으로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추진해왔다. 미술관에서 진행되는 소규모 문화프로그램은 평소 미술관을 어렵게 생각했던 주민들에게 미술관의 문턱을 낮추고 보다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성북구립미술관의 문화프로그램은 영상상영회, 소규모 음악공연을 비롯해 정원 프로그램, 명상 프로그램 등 다양한 장르의 경험을 제공한다. 전시기간 중 연계 운영되기도 하는 각종 문화프로그램을 통해 관람객은 감상과 체험을 함께하며 미술관에서의 특별한 시간을 향유하게 된다.

성북구립미술관의 문화프로그램은 지역민을 대상으로 한 영상상영회에서 시작되었으며,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전시 휴지기간을 활용하여 지역민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주제를 선정하여 <미술관 속 영화관>을 진행해 왔다. 2019년부터는 성북구립미술관의 분관(성북구립 최만린미술관, 성북예술창작터, 성북어린이꿈자람)이 조성되면서 미술관의 문화프로그램 역시 각 관의 특성에 맞게 확장되었다. 현재는 SMA 살롱음악회, 미술관 건축투어 프로그램, 정원학교 등 다양한 장르의 문화프로그램으로 관람객을 맞이하고 있다.

성북구립미술관에서 진행되는 문화프로그램은 지역 주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어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에서도 높은 만족감을 나타낸다. 성북구립미술관은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주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며 지역 미술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 성북구립미술관은 문화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작품의 관람을 위한 시각적인 공간에서 나아가 주민 친화적인 복합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하는 미술관이 되고자 한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다채로운 경험을 제공하고자 한다.

성북구립미술관 문화 프로그램 포스터



2018 미술관 속 영화관
<Bonjour>



2020 SMA 살롱음악회
<우리동네 음악회>



2020 SMA 살롱음악회
<화음-음표>



2021 문화프로그램
<건축가와 함께하는 건축투어>



2021 SMA 살롱음악회
최만린 1주기 추모공연 <기억>



2022 문화 프로그램
정원예술 창작반 <정원학교>

성북구립미술관 문화 프로그램



2018 미술관 속 영화관 <Bonjour>



2021 문화프로그램 <건축가와 함께하는 건축투어>



2021 SMA 살롱음악회 <해와 달>



2022 문화프로그램 <정원학교>

마음을 바로하다

내다보며

어린이들이 자라는 미술관

어린이미술관

성북구립미술관에서는 점차 공교육에서 소외되어 가는 미술 교육의 빈약한 자리를 채워갈 수 있도록 지역 사회 미술관의 공공적 모델을 세우는 것을 목표로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해오고 있다. 2010년부터 시작된 <어린이미술관>은 어린이들에게 미술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이해도를 향상시키고 궁극적으로 미술문화에 대한 친밀도를 높이기 위해 만 7세부터 초등학교 6학년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성북구립미술관의 정규 프로그램이다.

자치구 최초의 공립 미술관인 성북구립미술관의 개관과 함께 지속적으로 운영된 <어린이미술관>은 지역의 대표적 어린이 미술 교육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았으며, 초등학교의 방학기간을 활용하여 공교육의 교육과정의 추후하는 미술교과 목표에 맞는 방향으로 운영되어왔다. 특히 2015 개정 교육과정 이후 2016년의 '상상, 신화탐험'은 문화다양성과 관련한 동서양의 문화 근간을 주제로, 'Plus, Minus'는 창의교육이라는 주제와 연계한 수업이었다. 2018년의 '시와 그림사이'는 문학 장르와 연계한 미술을 조망한 프로그램으로 타 교과 영역과의 연관성을 고려하였으며 2019년 '어린이 날씨 연구소'는 녹색성장교육이라는 교과 내용에 상응하여 시의성을 가진 주제로 접근하였다.

코로나19로 2020년부터는 온라인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고 있으며, 개인 및 학교교사에게 교육 안내서와 재료키트를 배포하여 대면 교육이 어려운 상황에 지역 미술관의 교육적 역할 확장에 기여하였다.

어린이미술관 진행의 모습



다년간의 <어린이미술관> 운영은 미술관의 접근성 향상이라는 목표와 맞물려 <찾아가는 <어린이미술관>으로 확장되었으며, 지속적인 수요의 확장으로 2019년 자치구 최초의 어린이미술관인 성북어린이미술관 꿈자람의 개관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었다. 또한 성북구립미술관이 지역문화예술교육의 거점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는데 기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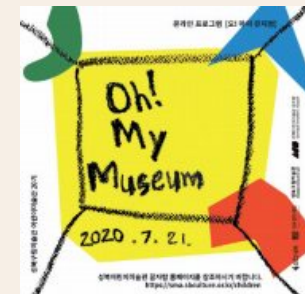
<어린이미술관>은 성북구립미술관의 풍부해진 소장품을 기반으로 지역의 정체성과 특징에 부합하는 소장품 교육과 전시에 참여하는 미술 작가들과 함께하는 전시연계 교육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하여 어린이뿐만 아니라 다양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문화향유 기회와 미술문화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자 한다.

<어린이미술관>은 성북구립미술관의 풍부해진 소장품을 기반으로 지역의 정체성과 특징에 부합하는 소장품 교육과 전시에 참여하는 미술 작가들과 함께하는 전시연계 교육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하여 어린이뿐만 아니라 다양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문화향유 기회와 미술문화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자 한다.

참여자 수(명)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142	103	96	120	72	128	40	96	92	821 조회수: 1,237(회)	103

어린이미술관 포스터



마음을 바로하다

내다보며

일방향이 아닌 양방향으로 향해서

작가와의 만남

성북구립도서관에서 운영하는 작가와의 만남에 초청되는 작가의 선정 방식은 다양하다. 대표적인 방식은 성북구립도서관에서 지금 주민들과 함께 나눠보고 싶은 주제를 선정하고, 그 주제에 맞는 작가를 초청하는 것이다. 주민들이 많이 사랑하는 작가를 초청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작가를 우선 선정하고 있다.

독서라는 개인의 '일방향 경험'을 누군가와 함께 나누는 '양방향 경험'으로 확장시키는 것. 이를 통해 책으로 만난 작가를 우리 동네, 우리 도서관에서 만나는 경험은 각별한 시간으로 새겨진다. 그리고 주민들에게 문학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새로운 이해를 불러일으키는 계기를 마련한다.

작가와의 만남 참여자수

2017	2018	2019	2020
432	525	891	613

현재 살아가는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 그렇기에 성북구립도서관의 작가와의 만남은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 주민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자유로운 토론의 시간을 위한 노력은 다음과 같은 참여자들의 소감을 남겼다.

별세계 인물이 아니라 바로 옆에서 친구와 대화 나누듯이 친근하게 질문을 주고 받으며 편안한 대화에 함께하고 있는 느낌이 들어 즐거웠습니다.

구민의 의식이 향상되는 만큼, 성북구는 소중한 지역이 되어가는 것 같아요. 좋은 만남을 주선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소 좋아하는 작가님이 제가 살고있는 동네를 방문해준 것. 같은 공간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다는 기쁨. 행복합니다.

작가와의 만남 포스터



2015 한강 작가와의 만남



2019 김영하 작가와의 만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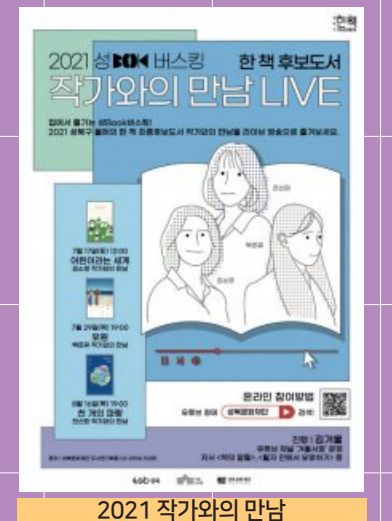
2017 성석제 작가와의 만남



2020 집에서 만나는 작가와의 만남 - 조해진, 김보라, 이금이, 김초엽



2018 정세랑 작가와의 만남



2021 작가와의 만남

작가와의 만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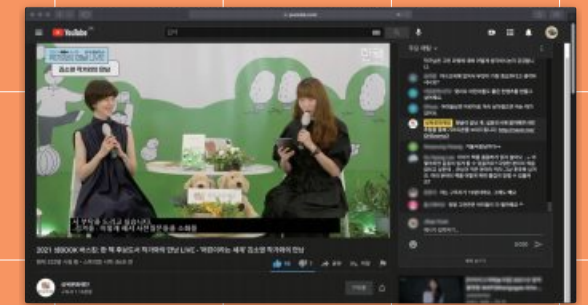
2018 어린이 작가와의 만남



2019 최규석 작가와의 만남



2020 작가와의 만남



2021 작가와의 만남

마음을 바로하다

내다보며

꾸러미에 담긴 우리들의 평등

북스타트

‘책과 함께 인생을 시작하자’라는 취지의 북스타트 운동은 ‘어릴 때부터 책과 친해지면 자라서도 책을 좋아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1992년 영국에서 시작된 독서운동이다. 성북문화재단에서는 “책 읽는 성북” 조성을 위해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책과 가까워지고, 구립도서관을 일상적으로 찾아오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도입하였다.

가정의 소득수준, 지역의 환경에 따라 아이의 삶의 질은 달라진다. 북스타트 운동은 적어도 아이의 첫 시작이 평등할 수 있도록, 그리고 책을 기반으로 자기주도학습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한 도서관이 아이의 일상생활에서 정보를 얻고 교류하기 위한 안전망이 되기를 바라는 방향과도 맞닿아 있다.

북스타트 책꾸러미 안에는 아기를 위한 그림책 2권, 예코백, 북스타트 가이드북, 북스타트 안내 리플렛이 들어있다. 그리고 해마다 추가 구성에 변화를 준다. 아기를 위한 손수건을 비롯하여 코로나19 기간 중에는 제균 물티슈를, 22년에는 아기 양말을 같이 선물하였다. 무엇보다도 북스타트 책꾸러미를 통해 아기와 양육자가 현대의 마음을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한다.

‘아이 한 명을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말처럼 북스타트 책꾸러미를 선물하고 구립도서관으로 초대하는 과정은 성북구와 도서관이 태어난 아기를 환영하고 함께 키우는 공동체임을 알려주는 의미를 담는다. 그리고 북스타트데이는 단순한 책놀이 프로그램이 아닌 양육자 간 육아정보를 공유하고, 동네 친구를 만날 수 있는 장으로 그 역할을 한다.

또한 도서관에 찾아오기 어려운 아기들을 위해서 관내 아동복지관으로 ‘찾아가는 북스타트데이’를 운영해 성북구의 모든 아이들이 그림책을 보고 즐거움을 나누며 지역 안에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

성북구는 2017년 모든 아이들이 차별 없이 책꾸러미를 받을 수 있도록 독서문화진흥조례를 제정해 책꾸러미 배포방식을 변경했다. 도서관에 따로 방문하지 않더라도 태어난 아기의 출생신고를 할 때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바로 북스타트 책꾸러미를 받는다. 또한 북스타트 활동가를 발굴하고 육성, 역량을 강화해 자발적이고 다양한 북스타트 활동이 지역 안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보다 많은 아이들이 좋은 책으로 ‘인생을 시작’ 시작할 수 있도록 재단과 구청이 함께 만들어낸 지역의 사회적 육아지원운동이다.

꾸러미 배포수 (단위: 개)

2012	2013	2014	2015	2016
2,272	2,265	1,869	1,413	2,454
2017	2018	2019	2020	2021
1,405	2,672	2,117	1,991	1,943

북스타트 사업 참여자수 (단위: 명)

2012	2013	2014	2015	2016
2,272	2,265	1,869	1,413	2,454
2017	2018	2019	2020	2021
1,405	2,672	2,117	1,991	1,943

북스타트 관련 포스터



2012 북스타트



2015 북스타트



2017 북스타트



2019 북스타트



2021 북스타트



2022 북스타트





북스타트데이



2018 북스타트 데이



북스타트 대특강



북스타트데이 컬렉션을 보는 아기

꾸러미 구성



마음을 바로하다

내다보며



문화예술교육의 거점, 그 이야기

청소년문화공유센터

2014년 청소년들의 다양한 활동 지원을 통해 건전한 여가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청소년문화공유센터가 문을 열었다. 밴드동아리를 위한 합주실부터 청소년들이 또래들과 어울릴 수 있도록 노래방과 만화방을 갖추었다. 또한 그룹 스터디가 가능한 동아리실을 비롯하여 다수 강연이 진행 가능한 강의실을 갖추어 지역의 청소년들에게 즐거운 놀이터가 되었다.



창의방앗간



뮤지컬 레시피

성북문화재단은 당시 운영되던 대다수의 아동 청소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청소년문화공유센터를 거점으로 활용하여 <문예체멘토링>, <청소년 인문학>, <창의 방앗간>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했다. 그리고 성북의 혁신교육지구 선정에 따른 <우리동네 보물찾기>와 <예술과 어울림>을 통해 지역내 문화예술교육이 협동조합 '마을온예술허'이 설립되는 기반을 제공했다.



우리동네 보물찾기



예술과 어울림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약 4년간 운영되었던 청소년문화공유센터는 단순히 아동 청소년을 문화예술교육의 대상이 아닌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끊임없는 노력을 진행했다. 근처 학교를 찾아가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청소년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의 수요를 확인한 후 프로그램을 기획 및 운영하였으며 이에 따른 참여율도 높게 나왔다.





청소년들이 직접 운영한 사이장

당시 청소년들의 주요관심사인 웹툰을 비롯하여 성평등 교육과 뮤지컬 프로그램이 매년 정기적으로 운영되었으며, 텃밭 가꾸기와 볼링과 같은 또래들의 건강한 만남 문화를 지원하였다.

이러한 청소년문화공유센터의 노력은 현재 지역 안에서 문화예술교육가 협동조합 '마을온예술'이라는 예술강사 협동조합을 탄생시켰으며, 당시 청소년문화공유센터의 우수 프로그램들은 지역의 다양한 시설에서 현재도 운영 중에 있다.



우리 동네 도서관 텃밭 가꾸기

당시 청소년들의 주요관심사인 웹툰을 비롯하여 성평등 교육과 뮤지컬 프로그램이 매년 정기적으로 운영되었으며, 텃밭 가꾸기와 볼링과 같은 또래들의 건강한 만남 문화를 지원하였다.

이러한 청소년문화공유센터의 노력은 현재 지역 안에서 다양한 조각들로 펼쳐져 각기 다른 모습으로 발전해나가며 진행되고 있다.



아동 프로그램



청소년 뮤지컬 오디션

마음을 바로하다 내다보며

예술을 통해 나를 만나는 시간

성북생활문화살롱 2.0

[생활문화의 시작]

생활문화는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지역 주민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으로 정의된다.

기존에도 많은 생활문화 사업이 진행되었지만, 생활문화 가치를 인식하고 처음 진행했던 사업은 201년 서울문화재단의 지원을 받아 시작된 <중아서 예술동아리> 사업이었다. <중아서 예술동아리>는 기존에 동아리의 활동을 지원해주던 사업의 틀을 넘어서 각 자치구 별로 각자 동아리 사업을 기획해서 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었던 사업이었다. 재단은 이 사업으로 총 13개의 성북구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동아리를 모집하여 동아리 네트워크 모임을 지원하고, 서로 활동을 소개하고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하여 서로 관계를 맺게 하였다. 그리고 그 관계가 동아리 간 협업 활동으로까지 이어졌다.



중아서 예술동아리 협업활동



중아서 예술동아리 네트워크 모임

[성북생활문화살롱20]

2017년부터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및 비전 2030 문화시민도시 서울 계획에 따라 생활문화사업을 좀 더 폭넓게 지원하였다.

사업명도 이에 따라 <자치구 생활문화 협력체계 구축>이라는 이름으로 변경되었고,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특징과 자원, 기반이 모두 다름에 따라 각 자치구에게 자율성을 주고 생활문화의 중요한 가치인 협력과 관계맺음을 기반으로 한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성북구는 <성북생활문화살롱20>이라는 사업명을 사용하였는데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프랑스어로 '방'을 뜻하는 '살롱'은 18~19세기 프랑스 예술가와 지성인들의 사교장소였고, 당시 살롱을 출입하던 이들은 남녀노소, 신분·직위에 상관없이 평등하게 대화하고 토론하며 출신이나 소속, 심지어는 이름이나 나이보다도 각자의 생각과 취향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고 한다. 아마 우리의 사업이 이런 살롱의 가치처럼 누구나 문화로 함께 이야기하고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열 수 있기를 바라며 지었던 것 같다. 이름대로 모든 게 진행된다고 현재까지 이 사업명의 기운을 잘 이어받아 성북구의 다양한 동아리, 단체, 기관 등과 관계를 맺고 서로 도움을 주고 받으며 지내고 있다.

2017년부터 시작된 <성북생활문화살롱20> 사업으로 성북에서 활동하는 다양한 생활문화동아리와 동네예술가, 생활문화 주체들을 만나고 교류했다. 그 과정에서 2018~2022년에는 성북구 생활문화축제 <성북생활문화주간>을 진행했고 이러한 만남과 교류, 행복하고 의미있는 공동의 경험을 하다보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서로의 활동을 응원하고 지지하며 지원하는 관계를 지금까지 만들어 나가고 있다.



성북구 동아리 대잔치(2017)



반가워 동아리 친구들(2017)



성북생활문화주간(2018)



이거모임 동네예술 모임(2019)



인디언텐트 모임(2020)

[성북생활문화살롱2.0]

그러나 행복을 느끼는 방법은 모두 다르다. 어떤 사람은 무언가를 함께 하며 관계를 맺으면서 행복을 느끼고, 어떤 사람은 누군가를 도움으로 행복을 느낀다. 또 다른 누군가는 자아실현을 위한 어떠한 활동을 행복을 느끼기도 한다. 이렇듯 다양한 일상 속 활동들을 통해 나만의 행복을 찾아나가는 것에서 시작하여 관계와 일상에 좀 더 집중하며 나를 사랑하면서 타인을 존중하고 상호협력하며 함께 잘 살아가는 세상을 만드는 것까지 나아가는 것. 이것이 생활문화사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다.

성북문화재단의 생활문화는 성북구에서 활동하는 다양한 생활문화 주체들의 서로 소통하는 공간이자 필요한 자원과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한다. 성북구의 모임, 공간, 동네예술가, 협력단체 등의 정보와 생활문화 활동의 다양한 이야기가 숨쉬는 성북구 생활문화플랫폼 <성북생활문화살롱2.0>에서 생활문화를 시작해보길 바란다.



1000명의 드로잉(2021)

지역이 함께 만드는 문화예술교육 플랫폼

기초단위 문화예술교육 거점- '성북문화예술교육허브'

2019년 다양한 영역과 공간에서 해 오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기능 교육을 넘어 성북 문화예술교육 생태계를 위해 다양한 지역 주체들과 고민하고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지역 중심 예술교육 활성화와 지역내 선순환적 예술교육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서울문화재단의 자치구 예술교육 활성화 사업으로 지역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한 다양한 실험들을 시도했다. 성북의 문화예술교육 현황을 진단하고, 문화예술교육 주체들과 공론장을 열고 네트워킹을 위한 자리들을 마련했다.



손바닥 문화예술교육 실험실
<나 좋자고 해봤니>

손바닥 문화예술교육 실험실

나 좋자고 해봤니?

문화예술 교육에서 '나'는 어디쯤 있을까

한번쯤은 '나 좋자고' 해보는 교육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것은 과연 나에게만 좋을까?

일정	2020. 7. 23. ~ 8. 27. (매주 목) 16시 ~ 18시, 총 6회	주최	~내에 실장은 운영 사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장소	차라리 남면(서울 성북구 더리플로 120-10, 정릉역 1번 출구)	일일 구분	내용
주최	남북문화재단(예술), 예술감독(정릉, 최선영(정릉)을 배가자)	7.23 OT	오전 10시 ~ 오후 2시
대상	문화예술교육에 관심 있는 분 누구나(15명 내외) *실용가 포함	7.30	토고
내용	- 나의 입장에서 바라본 문화예술교육 - 나만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기획 및 실험 (프로그램 실험이 가능)	8.6	토고
신청 방법	- 지원서 작성 후 이메일 제출(special@sbculture.or.kr) - 지원서 양식 다운로드 (성북문화재단 홈페이지 www.sbculture.or.kr)	8.13	토고
신청 기간	2020. 07.16 (목)	8.20	토고
수강료	무료	8.27	토고
문의	02.6906.3106		

우리에게 낯설지만 중요한 질문을 함께 따라가 봅니다. 프로그램 개발을 잠시 멈추고 나를 돌아보고자 하는 분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손바닥 문화예술교육 실험실
<나 좋자고 해봤니> 포스터

그러던 중, 2020년 8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기초 단위 문화예술교육 거점 구축 지원 공모 선정으로 성북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한 논의가 본격화되었다. 성북문화재단, 민들레, 성북문화예술교육가협동조합 마을온예술 세 주체가 먼저 깃발을 들었고 이들을 중심으로 문화예술교육 거버넌스로 확장하며 지역 협의를 통한 거점 설계와 활동을 운영하고 있다. 2020년부터 라운드테이블, 워크숍 등을 통해 다양한 지역 주체를 만나고 지역 문화예술교육의 방향과 거점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며 성북 문화예술교육의 방향과 과제를 수립해나가고 있다.

손바닥 문화예술교육 실험실
<나 좋자고 해봤니>

2020.07.~09. (6회)

예술교육가, 활동가 등 대상으로 토론과 상호학습 워크숍을 진행하고
예술교육의 방향성 논의와 문화예술교육 콘텐츠 개발 실험 지원

성북문화예술교육
라운드테이블

2020.09.~10. (3회)

지역에서의 문화예술교육 담론을 만들기 위한 공론의 장



2021년부터는 지역 이슈에 관해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해보는 콜로키움과 다양한 실천연구 액션LAB 실험을 통해 구체적인 거점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논의와 실험을 이어가고 있다. 지속적인 공론장을 통해 성북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이슈를 발굴하고, 거점으로서 이슈를 어떻게 풀어내고 기능할 것인가에 대해 문화예술교육실천가들과 현장의 연구와 실천으로 실험해보는 랩을 운영한다. 문화예술교육의 가치와 의미에 대해 활동 주체와 시민에게 지속적인 질문을 던지고, 지역의 문화예술교육 역량 강화를 위해 지역에 맞는 실질적 과정을 설계해 본다. 또한, 지속 가능한 문화예술교육 활동과 생태계를 위해 지역 자원을 연결하고 활성화할 수 있는 거점형 공유 플랫폼으로 교류와 협력에 기반한 '함께 일하기' 실험을 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가 빚어낸 고립과 단절, 지역에서의 돌봄·환경·안전·복지 등의 의제가 대두되었고 생활권 단위에서 문화예술교육의 역할은 더욱 중요하게 필요해졌다. 올해는 지역에 필요한 문화예술교육 함께 그리기의 일환으로 우리동네 키움센터와 연계한 <예술로 키움> 프로젝트도 진행중이며 이후 지역 안에서 필요한 문화예술교육을 지역과 함께 고민하며 협업하는 실험을 계속 이어나갈 예정이다.

성북은 우리의 삶 가까이에서 문화예술을 누구나, 일상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지역 스스로 필요한 욕구를 발견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풀뿌리 문화예술교육으로 전환하는 과정에 있다.

2020-2022

성북 문화예술교육 공론장

- 지역 이슈를 발굴하여 의제별로 활동가, 주민, 전문가 등이 모여 함께 논의하는 라운드테이블 및 콜로키움 진행 (총 17회 운영)
- 성북 문화예술교육 공유포럼 진행(2020.12.14 /2021.11.30.)

성북 문화예술교육 LAB

- 지역 주체들의 역량 강화와 협력적 일하기 위한 실험 워크숍 운영
- 정보 공유, 역량 강화, 공론장, 지역연계 등 4개 카테고리로 지속 가능한 문화예술교육 환경을 위한 실천연구 액션 랩 운영

지역에 필요한 문화예술교육 그리기 I <예술로 키움>

- 지역 주체들로 구성된 기획단 운영을 통해 지역 맞춤형 우리동네 키움센터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성북 문화예술교육 현황조사 및 연구

- 성북 문화예술교육 지형 분석과 성북 문화예술교육 거점 설계를 위한 액션 플랜 도출

성북 문화예술교육 협의체 운영

- 다양한 지역 주체로 구성된 문화예술교육 협의체로 지역협력 거점 설계 및 과제 설정(월 1회 운영)



2020 성북 문화예술교육 공유포럼



2022 성북 문화예술교육 허브 만나기



2021 성북 문화예술교육 공유포럼



2021설계단회의



2021 문화예술교육LAB



2021.11.16(화) 콜로키움 6회차



2022 <예술로 키움> 기획단 회의



2021.10.18(월) 콜로키움 4회차



2022 문화예술교육LAB



2022 성북문화예술교육허브 만나기





마음을 바로하다

마주했고

성북의 공유도시를 펼쳐보이다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2017년 '공유도시'를 주제로 제1회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가 열렸고, 비엔날레 프로그램 중 하나로 DDP에서 열린 <도시전> 중 <서울전>에 '성북예술동' 사례가 초대되었다. '성북예술동(Seongbuk Art Commons)'은 서울시 성북구에 위치한 성북동이라는 작은 단위의 도시가 예술을 촉매로 네트워킹하고 공공의 가치를 만들어가고 있는 좋은 사례로 선정되어 서울전에 함께 전시하게 되었다.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가 열리는 기간 동안 성북동 현장에서도 성북예술동 프로젝트를 동시에 진행하였는데, 30여 개의 예술 공간 및 거점 공간을 중심으로 전시, 퍼포먼스, 투어, 주민 프로젝트 등을 진행하여 예술로 풍성하게 꽃피는 성북동을 보여주었다.

'성북예술동'은 미술기관, 문화거점 공간, 예술가 작업실 등을 기반으로 예술가, 예술 공간 운영자, 기획자, 예술 애호가 등이 더불어 살아가는 성북동을 행정구역상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동네인 '성북예술동'으로 상정하여 진행해온 프로젝트이다.

매년 30-70명 가량의 지역 예술가들, 예술기관, 민간단체들이 참여하여 지역, 예술, 주민이 공존하는 사례들을 만들어왔는데, 전시를 기본으로 하여 워크숍, 포럼, 주민참여 프로젝트를 개최하였다. '성북예술동'은 성북문화재단을 중심으로 '성북시각예술네트워크'와 함께 진행되었으며, 성북의 문화예술 지형을 만들고 성북예술생태계를 조명할 수 있었던 뜻깊은 프로젝트이다. 또한 예술가들의 네트워킹 뿐 아니라 지역과 예술가, 예술가와 예술가, 예술가와 주민을 연결하고, 그 연결망을 확장하는 역할을 해 왔다. 단순한 연결을 넘어서, 지역, 주민, 예술가가 어떤 방식으로 관계 맺고 공존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들을 지속했던 성북예술동은 2017년은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와 연계하여 규모와 내연을 확장하여 개최하였고, 이를 통해 성북예술동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또한 성북동의 다양한 네트워킹 주체들과 협력하여 기획하고 진행함으로써 성북예술동의 의미를 한층 더 부각시켰다.



관람객 수

75,943명

서울건축비엔날레 관련 포스터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연계 <성북예술동> 포스터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메인 포스터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전 중 <성북예술동> 전시 장면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연계 <성북예술동>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연계 <성북예술동>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연계 투어 프로그램 <성북예술동행>



마음을 바로하다

마주했고

성북의 예술가들, 제주로 향하다

제주비엔날레

성북과 제주, 제주와 성북의 다소 낯설고 기묘한 인연은 2016년도로 거슬러 올라간다. 성북문화재단은 제주문화예술재단 및 제주도립미술관과 2016년 12월 14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으며, 이는 기초문화재단(성북)과 광역문화재단(제주), 문화재단(성북)과 미술관(제주) 사이에 처음 시도된 상호 교류협력 프로젝트로서 큰 기대를 모았다.

그 중 성북문화재단과 제주도립미술관은 지역의 젊은 작가 협업 및 '성북 예술가 그룹'의 제주비엔날레 참가 등을 추진했으며, 2017년도 처음 제주 땅에서 열리게 된 제주비엔날레에 성북이 참가하게 된다. 여기서 '성북 예술가 그룹'은 성북문화재단과 예술인협동조합 아트플러그와의 협치를 통해 구성된 성북의 시각예술작가, 건축가, 기획자 등의 집합체를 뜻하며 '성북아트커먼스'라는 명칭으로 구체화 된다.

전 세계 15개국에서 온 작가 73인이 참여, 총 280점의 작품을 선보인 제1회 제주비엔날레 <투어리즘>은 9월 ~ 12월, 3개월간 제주도립미술관, 제주시 원도심, 서귀포시 원도심, 알뜨르 비행장 등 제주 일원에서 열렸으며, '성북아트커먼스'는 <럭키새드픽처쇼: GameXGaem> 통해 총 10명(팀)의 예술가가 제주도립미술관과 제주시 원도심의 예술공간이아 총 두 곳에서 파빌리온, 설치, 영상, 회화 등 총 14점의 작품을 선보였다.

'성북아트커먼스'의 <럭키새드픽처쇼: GameXGame>은 모두의 일상이 되어버린 관광·관광산업의 명과 암을 주목, 환상을 재생산하는 관광산업의 쇼(gimmick)적인 측면을 예술가들의 쇼(art show)로 맞대응 하도록 구성한 전시다. 관광산업과 예술은 목적이 서로 상반된 쇼이자 게임으로서 조우하게 되며, 여기서 관람자들은 화려한 볼거리 이면에 어두운 진실을 내포한 다양한 작품들 속에서 투어리즘의 역설을 마주하게 된다.

성북과 제주의 업무협약(MOU)은 기초문화재단인(성북)과 광역문화재단(제주), 문화재단(성북)과 미술관(제주) 간 첫 상호 교류협력 프로젝트이며, 제주에서 처음 시행된 아트비엔날레에의 성북 예술가 그룹 참가 추진 및 실행에서 보다 큰 의미를 찾을 수 있겠다. 특히 '성북아트커먼스'로 대변되는 성북문화재단과 예술인협동조합 아트플러그의 거버넌스 실험의 알찬 성과로도 자리하고 있다.

제1회 제주비엔날레는 "지역의 문화적 유산과 문화예술이 결합하여 어떤 동시대성을 발현하는지를 집약하는 공론장"을 표방하였으며, 이는 성북 지역 문화예술 현장의 중요 과제 및 실천 방향과 맞닿아 있다. 특히 과정에서 '지역성과 상호지역주의', '협업과 협치'의 의미와 실천을 견지하는 성북과 제주의 긴밀하고도 공격적인 협력은 선명하게 기록될 만 하다.

관람객 수

'성북아트커먼스' 참여전시집계	
제주도립미술관	28,042명
예술공간이아	6,778명

또한, 정도의 차이는 있겠으나, 성북과 제주는 모두 관광산업을 통해 도시의 모습이 변화하는 투어리스트피케이션(Touristification, 관광+젠트리피케이션)의 문제를 안고 있다. 활기찬 관광지의 현실은, 실상 누군가들의 삶터가 거래와 환상의 난장() 변하여 원 거주민들이 떠나게 되는 삭막한 젠트리피케이션의 민낯일 수 있다. '성북아트커먼스'의 <럭키새드픽처쇼: GameXGame>은 제주와의 공통된 문제의식 및 당면한 현실 속에서 발현된 진정성 충만한 예술적 개입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나아가, 일회적인 단일 지역 간의 교류에서 멈추기 보다는, 지역 상호간 최소한의 공통된 지역의 문제와 문화 예술적 해법을 시도하는 교집합 속에서 향후 업무협력과 예술적 교류 등을 통해 문제의식과 제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극대화하며 다양한 해결책을 상호 협력적으로 도모하는 시도들이 이어지기를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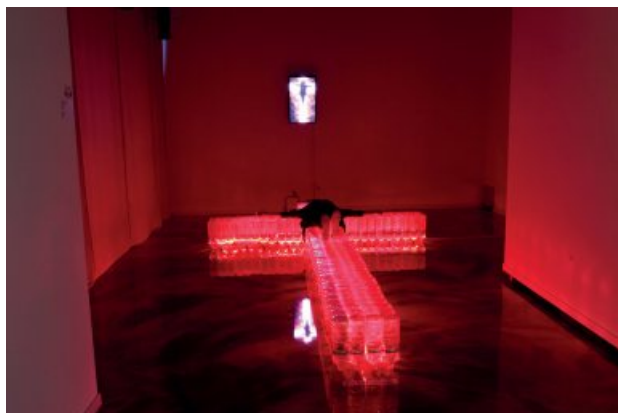
제주 비엔날레 포스터



제주비엔날레2017 포스터



제주 비엔날레 (@예술공간이아*참여작 일부)



01. 정기엽
제주 예수_물, LED_가변크기_2017



02. 강현아
4박 3일_텐트,랜턴,매트 외_770x825cm_2017



03. 김춘재
유원지_캔버스에 유채_112X193cm_2017



04. 장영원
REKALL have a good rest_단체널 영상_7분_2017

제주 비엔날레 (@제주도립미술관*참여작 일부)



01. 박호은
WELCOME_혼합매체_40x200x8.6cm_2017



02. 박혜민
완사명월浣紗明月 성북_싱글채널비디오_6분51초_2017



03. 김하림
낮선성북 시리즈_설치_가변크기_2017



04. 한승훈
차경(借景)_2채널비디오_(좌)3분32초/(우)11분23초_2017



교류를 통한 특별한 기억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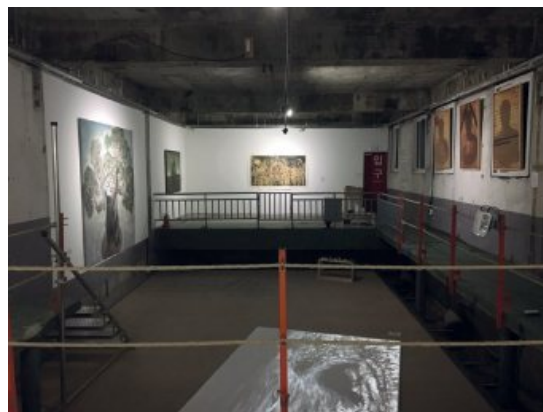
제주4.3 70주년 교류활동

2018년 제주 4.3 70주년을 맞아, 제주 4.3의 특수성을 대한민국 역사의 보편 문제로 확산하기 위하여, 서울에 있는 문화예술공간 여섯 곳(공간41, 대안공간루프, 이한열기념관, d/p, 성북예술창작터, 성북예술가압장)에서 4.3 70주년 기념 네트워크 프로젝트 <잠들지 않는 남도>를 진행하였다.

4.3 사건은 70년 전 육지와 멀리 떨어진 제주라는 섬에서 일어났지만, 당시 제주 주민들이 겪었던 비극의 원천은 이후 6.25전쟁, 5.18, 세월호 사건 등의 역사에서도 계속되고 있다. 그 사건을 실제로 경험한 사람은 물론이고, 그들과 함께 동시대를 살아갔던 사람들, 심지어는 시대와 지역을 넘어서까지 그 영향은 지속된다.

이런 맥락에서 성북문화재단에서는 성북예술창작터와 성북예술가압장 두 곳에서 전시 <너른숨이 유령> 및 연계 토론회 등을 개최하였다. 제주 4.3의 상징적인 공간 중 하나로 제주 4.3 당시 하루 만에 400여명의 주민이 학살당했고, 현기영의 소설 <순이삼촌>의 배경으로 세상에 드러난 북촌의 '너른숨이'를 시작점으로 삼아, 지금도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한 채 지역 경계를 넘어 떠돌거나 흐르고 있는 '제주 4.3'의 정신을 제주, 서울 작가 11명의 작품을 통해 보여 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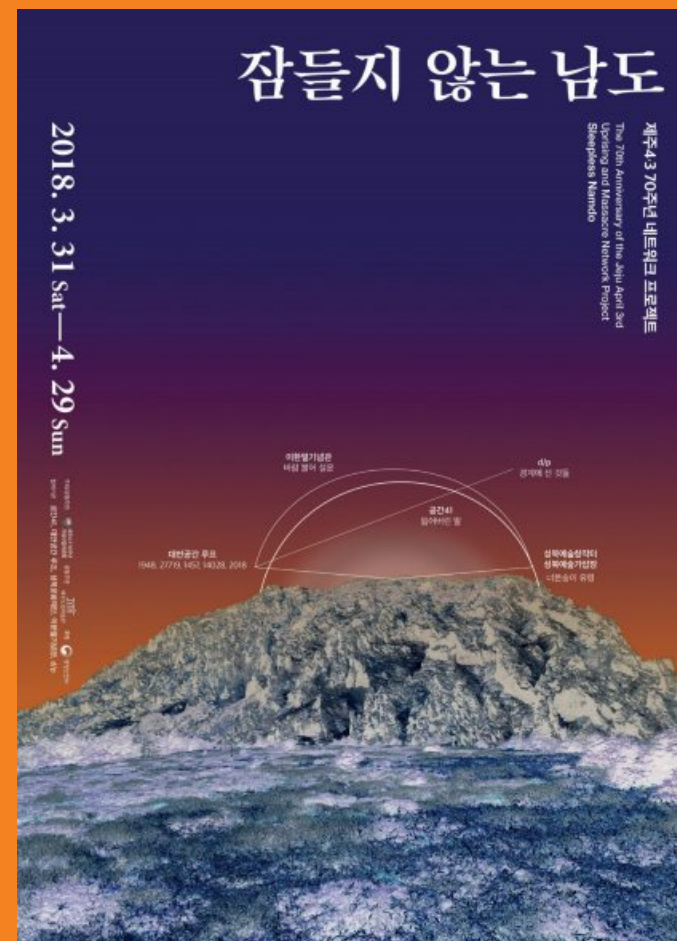
서울 6개 문화공간과 함께 제주 4.3 70주년 기념 네트워크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제주 4.3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지역적 경계를 넘어 시민에게 알리고 확산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특히 제주 4.3 역사 관련 예술컨텐츠를 서울 6개 문화예술공간에서 예술적 시선으로 전시하고, 연계 세미나 등을 통해 제주 4.3의 실상에 대해 좀 더 이해하고 가치를 재고하는데 기여하였다. 또한 제주 4.3 미술에 대한 의미와 가치를 확인하고 한반도의 시대사적인 이해를 지속적인 담론으로 확산시킬 수 있었다.



<너른숨이 유령> 전시 장면, 성북예술가압장



제주 4.3 70주년 네트워크 프로젝트 성북편
<잠들지 않는 남도- 제주4.3-그리고 오늘> 포스터



제주 4.3 70주년 기념 네트워크 프로젝트
<잠들지 않는 남도> 포스터

마음을 바로하다 마주했고

이주민과 선주민이 함께 공존하는 마을을 위하여

성북다문화도서관(성북정보도서관)



성북에는 40여 개의 대사관지와 2개의 대사관이 위치하고 있으며, 점차 외국인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 및 결혼 이주민들의 사회적응,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이 겪고 있는 교육문제 및 사회적 편견해소, 자존감 향상을 위한 지역사회 역할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일상생활에서 선주민과 이주민의 다양한 문화 교류와 소통, 상호 이해가 이루어질 수 있는 문화공간이 필요하게 되었다.

성북다문화도서관은 이러한 배경 속에서 시작되었다. 책을 통해 다양한 세계 문화와 소통하는, 모든 이가 현대 받는 사랑방과 같은 공간을 꿈꾸며 성북정보도서관 내 다문화어린이자료실, 다문화자료실을 마련하였다. 세계 20여 개국 영유아 그림도서 2천여 권, 성인 대상 다국어 일반도서 3천여 권을 비치하였으며 사단법인 '인순이와좋은사람들'과 협약을 맺고 가수 인순이를 명예관장으로 위촉하였다. 이러한 도서관 개관을 기다렸던 사람들은 다양한 프로그램이 펼쳐지는 개관식에 참석해 주었다.

아이가 평소에도 엄마 나라인 인도네시아를 주변에 알리고 싶어하고, 한국에 대해서도 많이 알고 싶어하는데 다문화도서관이 개관하여 무척 기쁘다. 앞으로 아이들과 자주 도서관을 방문하겠다

-참여자 소감 1

성북의 다문화 가족 아이들과 엄마들을 직접 교육해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좋겠다

-참여자 소감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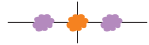
성북문화재단은 성북다문화도서관을 기반으로 다양한 외부 기관과 연계하여 상호문화 이해, 이주민의 국내 적응 지원 등 다양하고 유익한 커뮤니티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이주민과 선주민이 함께 공존하는 문화다양성의 장을 계속 만들어가고 있다.

성북다문화도서관 개관식



성북다문화도서관 개관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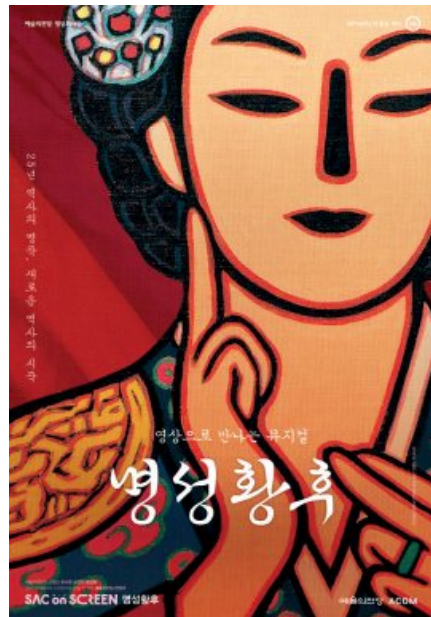


마음을 바로하다

마주했고

예술의 전당 VIP석의 감동을 영화관에서

씩 온 스크린 (SAC on Screen)



예술의전당이 2013년 5월부터 추진한 '씩 온 스크린'은 국내 최초의 순수예술 공연 실황 콘텐츠 제작 및 배급 사업으로 예술의전당 자체의 엄선된 공연을 영상화 하여 상영하는 사업이다.

4K급 고화질 해상도 영화용 카메라와 특수촬영장비까지 매 편마다 평균 1억원 상당의 제작비를 투입하는 예술의 전당 최상의 콘텐츠를 아리랑시네센터에서 생생하게 관람할 수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한시적으로 상영의 어려움을 겪었으나 철저한 방역과 좌석간 거리두기를 통해 2021년부터 빠른 정상화를 이루었고, 현재는 <명성황후>, <웃는남자>, <윤보선 고택살롱> 등 최신 콘텐츠 수급에 주력하여 성북구민들의 문화격차 해소에 건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

'씩 온 스크린'은 매월 첫째 셋째 화요일 저녁 7시 30분에 아리랑시네센터에서 만날 수 있다.



아리랑시네센터에서는 2015년부터 현재까지 뮤지컬, 오페라, 연극, 클래식 등 다양한 콘텐츠를 약 160회 이상 상영, 11,600여명의 관객이 관람하였으며, 예술의전당 공연을 스크린과 동시에 상영하는 실황 중계 환경을 구축하여 예술의 전당 VIP석에서 관람하는 것과 같은 감동을 선사하고 있다.



마음을 바로하다

마주했고

유럽의 문화 속 공존과 조화의 가치

유럽단편영화제



유럽단편영화제는 평소 쉽게 접하기 어려웠던 유럽문화를 단편영화를 통해 지역사회에 소개하는 비경쟁 영화제이다.

2013년 (주)꿈길제작소와 (주)이유엠앤씨의 공동주관으로 시작된 유럽단편영화제는 다양한 역사문화자원이 숨 쉬는 성북구에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진행되었다. 성북구와 성북문화재단이 함께하며 민·관 협치를 실현하는 지역기반 영화제의 비전을 제시하였고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다양성 영화제로서 입지를 굳혔다.



유럽단편영화제의 상영작은 유럽의 각 나라와 지방을 구분하여 표기한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유럽의 많은 나라가 국가 정체성과 구별된 지역 정체성을 가지고 영화를 제작한다는 것이다. 성북구 또한 국가 정체성과 구별된 다양한 역사 문화를 보유한 지역 정체성을 갖는다. 그리고 성북구는 40여 개 이상의 대사관저가 있고 결혼이민자 가정도 많다는 점에서 유럽을 비롯한 다양한 문화와 밀접한 연계를 가능하게 했다.

유럽단편영화제는 매해 새로운 이슈에 주목하고 다채로운 화두를 던지며 유럽의 삶을 다각도로 조명하였다. 그리고 유럽의 문화뿐만 아니라 어린이, 청소년, 청년, 노인 등 다양한 세대들의 이야기와 공존과 조화의 가치를 담은 단편영화를 선보였다. 성북구에서 처음 시작한 2015년에는 제3회 유럽단편영화제 '유럽, 50개의 시선'이라는 주제로 11일간 유럽 29개국 48개 지방의 단편영화 50편을 상영하였다. 2016년에는 『우리, 가족입니다』라는 주제로 11일간 유럽30개국 37개 지방의 41편의 단편영화를 통해 잔잔한 감동과 가족에 소중함에 대한 메시지를 전했다. 2017년에는 『당신은 행복한가요?』라는 주제로 12일간 29개국 34개 지방의 단편영화 41편을 선보이며 다양한 삶의 방식을 통해 행복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2018년에는 『함께라서 좋아』라는 주제로 11일간 23개국 23개 지방의 단편영화 22편을 상영하였다.

유럽단편영화제는 아리랑시네센터와 KU시네마트랩 영화관에서 순차적으로 상영하였으며 상호 문화에 대한 다양한 접근과 상징적 의미를 갖고 단편영화를 가고 삼아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제3회 유럽단편영화제



제4회 유럽단편영화제



제5회 유럽단편영화제



제6회 유럽단편영화제

2015	
기간	2015. 5. 15.(금) ~ 5. 16.(토)
상영관	아리랑시네센터 2관, KU시네마트랩
주최/주관	성북구 / (재)성북문화재단,(주)꿈길제작소,(주)이유엠엔씨
총관람객	3,002명

2016	
기간	2016. 5. 19.(목) ~ 5. 29.(일)
상영관	아리랑시네센터 2관, KU시네마트랩
주최/주관	성북구 / (재)성북문화재단,(주)꿈길제작소,(주)이유엠엔씨
총관람객	2,907명

2017	
기간	2017. 5. 24.(수) ~ 6. 4.(일)
상영관	아리랑시네센터 2관, KU시네마트랩
주최/주관	성북구 / (재)성북문화재단,(주)꿈길제작소,(주)이유엠엔씨
총관람객	4,065명

2018	
기간	2018. 6. 21.(목) ~ 7. 1.(일)
상영관	아리랑시네센터 2관, KU시네마트랩
주최/주관	성북구 / (재)성북문화재단,(주)꿈길제작소,(주)이유엠엔씨
총관람객	3,110명



젊은 영화인들의 축제

성북청춘불패영화제

「성북청춘불패영화제」는 젊은 영화인들의 창작활동을 지지하며 2021년 첫발을 내딛었다. 젊음이라는 공통의 조건 속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세계를 바라보는 청춘들의 참신한 발상과 날카로운 시선, 그리고 빛나는 이들의 가능성을 발견하고자 마련된 영화제이다.

제1회 성북청춘불패영화제는 첫 회임에도 불구하고 865편의 작품이 출품된 가운데, 공정한 심사를 거쳐 30편의 작품이 본선에 올랐다. 2021년 11월 11일(목)부터 11월 16일(화)까지 진행된 영화제를 통해 30편의 단편경쟁 작품은 1,135명의 영화제 관객과 만났으며 대상, 우수상, 심사위원특별상 등 7편의 작품을 시상, 젊은 감독들의 뛰어난 수작들을 발견하는 고무적인 성과를 얻었다.



이밖에 '성북시퀀스', 'VFX영화의 세계: 덱스터스튜디오', '윤혜리 배우전', '종종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으며, 국민대, 서경대, 성신여대, 한예중, 고려대 등 지역 대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영화제에 활기를 불어넣었다.





현재 대한민국의 영화계는 중요한 분기점에 서 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영화제작과 극장 운영이 큰 타격을 입었으며, OTT 서비스의 성장으로 촉발된 플랫폼의 변화가 산업 전체에 미치고 있는 영향력을 쉽게 가늠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자본과 인프라는 흥행이 보장된 작품으로 편중되고 있어 젊은 영화인들의 독립적인 창작활동은 지속적으로 위협받고 있다. 영화 산업이 위기를 넘어 회복을 위한 과정 중에 있는 현재, 독립영화 특히 영화매체의 원천이라 할 수 있는 단편영화를 위한 지원과 상영 플랫폼의 확보는 매우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지금과 같은 변화의 시기에 젊은 영화인들의 작품을 집중 조명하는 성북청춘불패영화제는 발견과 공감을 넘어 대한민국 영화계의 새로운 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성북청춘불패영화제는 앞으로도 현실과 상상이 만나는 단편영화라는 공간 속에서 무한한 잠재력을 발휘하는 젊은 영화인들의 도전을 기대하며 젊음의 불패(不敗)함을 응원하고자 한다.



제1회 성북청춘불패영화제

- 기 간 | 2021. 11. 11.(목) ~ 11. 16.(화)
- 상 영 관 | 아리랑시네센터 아리랑인디웨이브
- 주최/주관 | 성북구 / (재)성북문화재단
- 후 원 | 영화진흥위원회, 우리은행, MG새마을금고중앙회
- 파 트 너 | 국민대, 서경대, 성신여대, 한예중, 고려대
- 총관람객 | 1,135명
- 수상내역

대상	우수상	심사위원특별상
낙과 (양재준 감독)	거미 (구소정 감독) 개를 데리고 다니는 여자 (조유경 감독)	로맨틱 머신 (이소정 감독)
기술상	연기상	관객상
김재형 촬영감독 (끝내주는 절벽)	박세준 배우 (낙과)	국물은 공짜가 아니다 (강민아 감독)



성북청춘불패영화제 포스터



개성 넘치는 독립영화를 만나다

인디서울

인디서울은 서울시가 주최하고 성북문화재단, 서울영상위원회가 주관하는 독립영화 활성화 지원 사업의 하나로 개봉 독립영화의 상영관 부족현상을 해소하고 시민들에게 평소 접하기 힘든 다양한 독립영화를 소개하여 한국 독립영화의 저변을 확대하고자 시행 중인 사업이다.



아리랑시네센터에서는 2016년부터 다양한 영상문화를 소개하고 한국 독립영화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매월 2회 아리랑인디웹에서 정기상영회로 진행하고 있다. 또한 단발성 행사가 아닌 성북구민들이 보다 쉽게 독립영화와 만날 수 있도록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인디서울에서는 다양한 시선, 색다른 매력의 개성 넘치는 독립영화와 국내·외 우수 영화제와 평단으로부터 호평 받은 화제의 독립영화를 선보이고 있다. 또한 관람 후에는 감독 및 배우와 관객이 만날 수 있는 GV가 진행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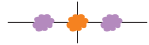
지금, 우리는 (포함)될 수 있을까?

공공예술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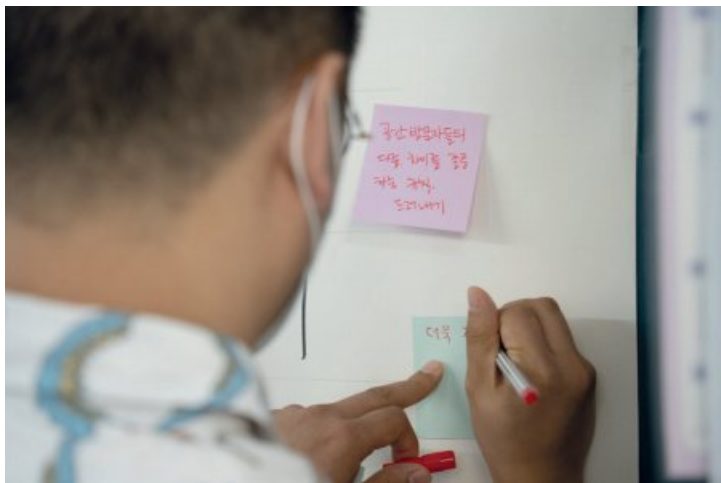
혐오와 차별의 시대에 그림자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성북문화재단은 분명 존재하지만 누구는 포함되지 않는 사회적 관계망이 더욱 단단해지고 있는 현재 도시의 경계를 허물고, 모두를 포함하고 존재의 존중이 있는 공동체문화를 만들기 위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1-22 공공예술사업'을 진행하였다.

공공예술사업은 UN과 국제사회의 공동목표인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SDGs)' 중 '불평등 완화'를 주제로 예술프로젝트와 워크숍, 액션리서치, 공연, 전시 그리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액션리서치 '사회가 불평등하다는 데 예술이 뭘 할 수(나) 있나'를 통해 성북구에서 활동하는 예술가들의 시선으로 사회의 불평등 요소(소수자, 노동, 정치, 문화 등)를 바라보는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자료조사 중심의 방식에서 벗어나 예술을 매개로 실행하거나 경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고, 이후에는 퀴어를 주제로 한 액션리서치 '이상한 퀴어주의자 & 퀴어한 이상주의자'를 진행하였다. 성정체성의 퀴어 뿐만 아니라 퀴어 본래 뜻에 집중하여 탐구하고 참여자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해석한 결과물을 통해 퀴어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였다.



연극 '우리는 농담이(아니)야' 재공연과 연극 '디아스포라 기행'을 배리어프리 공연으로 공동제작하며 두 작품이 상연된 공연장을 포함한 다른 성북 공공 문화예술시설의 공간 접근성을 탐구하는 기획 프로그램 '입장-하다'를 Oset프로젝트와 함께 진행하였다. 성북정보도서관, 성북길빛도서관, 미아리고개예술극장을 프로그램 참여자, 장애인당사자,

시설담당직원이 함께 탐방하며 접근성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고, 그룹토론을 통해 접근성 개선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입장-하다' 워크숍 이후 접근성 워크숍 참여자들의 꾸준한 네트워킹을 통해 시설접근성 뿐만 아니라 배리어프리와 관련한 다양한 정보를 교류하고, 협업을 진행하고 있다.

워크숍 이후 장애와 접근성에 대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고, 이를 계기로 공연 <다음이야기-장소>를 Oset프로젝트와 공동제작하였다. Oset프로젝트가 공연을 매개로 만난 창작자·당사자들의 이전 이야기와 다음 이야기를 만날 수 있게 하는 장소를 조성하며 화상연결, 전시, 퍼포먼스가 함께하며 수어통역, 문자통역, 안내보행까지 모두에게 열린 배리어프리 공연으로 진행하였다.



이후 접근성의 개념을 좀 더 확장하여 퀴어-프렌들리한 공간만들기 워크숍 '퀴어한 장소만들기 튜토리얼 Lv.1'을 진행하였다. 다양한 성별정체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성중립 화장실 만들기'라는 주제까지 총 4회에 걸쳐 각 분야의 전문가와 민·관 시설 운영자들이 함께 참여하였다. '퀴어-프렌들리하려면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에 대해 같이 논의하고 고민을 나눌 수 있는 새로운 공간네트워크를 만들고 퀴어를 상징하는 무지개마크를 부착하여 모두를 위한 공간임을 알리는 시도를 하는 곳도 늘어나고 있다

공공예술사업을 통해 만들어진 팀 '트레셜리'는 퀴어 주제의 프로그램을 기획하면서 소수자에 대한 인식과 공감을 확장할 수 있는 '성북퀴어보물지도'를 발간중이다. 성북퀴어보물지도 1호는 성북구 문화공간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있으며, 성북퀴어보물지도 2호는 퀴어한 외출을 주제로 지역 내외의 청소년 성소수자의 이야기가 담겨있다. 성북퀴어보물지도 3호는 지역에서 퀴어로 산다는 것을 주제로 서울 외 지역의 성소수자 이야기가 담겨있다.



사회 불평등을 주제로 공연, 워크숍, 액션리서치 등 다양한 실험예술을 하며 성북 지역문화생태계의 불평등 실태를 조사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하기 위해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지역을 넘어 문화·예술 활동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불평등 감소를 위한 실천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역기반 기초조사부터 불평등인식현황 설문조사와 직업군별, 활동지역별

FGI를 진행하였다. '불평등 감소를 위한 문화·예술적 실천방안 제안연구'를 통해 지역생태계 내 공감대를 형성하며 작동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연구 결과를 포함해 2년간 실험한 다양한 프로젝트의 과정을 펼쳐보이는 컨퍼런스와 결과전시회를 진행하였다.



마음을 바로하다

함께했고

성북만의 북페스티벌을 만들어내다

책모꼬지

성북의 북페스티벌(Book Festival)은 현재 <성북 책모꼬지>라고 불린다. 이렇게 이름이 바뀌게 된 계기는 2014년 주민들의 제안이 있었기 때문이다. '책 읽는 성북' 발전 방향에 맞춰 성북문화재단 성북구립도서관은 다양한 변화와 실험을 진행하였다. 그 속에서 당연하게 사용되었던 '북페스티벌'이라는 명칭을 바꾸자는 주민 의견이 있었다. '영어가 아닌 순우리말을 사용해 성북만의 축제로 브랜드화 해나가면 좋겠어요.'라는 의견과 함께 '모꼬지'라는 단어를 제안했던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더 어울리고 친근한 책축제로 나아가는 첫 걸음으로 <성북 책모꼬지>가 탄생되었다.

매년 책모꼬지의 모습은 변해왔지만 '성북구에서 도서관과 함께, 독서운동을 하는 모두와 함께' 만들어가는 축제라는 가치는 흔들린 적이 없다. 성북구 곳곳에서 독서운동을 하는 모두가 한 공간에 모여 즐겁게 인사를 나누고 함께 책을 읽는 <성북 책모꼬지>는 도서관과 지역의 만남으로 새로운 독서 경험을 제공한다. 동덕여자대학교, 서울송례초등학교 등 지역의 공간을 활용해 열리는 만큼 그동안 도서관에 오지 않았던 주민들과의 새로운 만남이 이뤄졌고 이를 통해 성북의 독서문화가 넓혀지고 있다.

2020년과 2021년에는 코로나19로 <성북 책모꼬지>를 비대면으로 전환되었다. 하지만 책모꼬지가 지향하는 가치만큼은 우리 모두가 함께 변함없이 지켜냈다. <성북 책모꼬지> 홈페이지를 개설했던 2020년에는 지역의 독서운동주체를 위한 페이지를 마련해 함께했고, 2021년에는 10년이 넘는 기간동안 성북구립도서관과 함께 해온 주체들과 축하공연으로 만나 함께 한다는 것의 의미를 되새기고 서로간의 연대를 확인했다.

<성북 책모꼬지>는 지역의 주체들과 함께하는 축제로, 다양한 사람들이 관련되어 있다. <성북 책모꼬지>를 만드는 한책추진단 운영위원회, 성북작은도서관네트워크 등 민간단체들이 있다. 그리고 참여를 원하는 독서회, 주민단체, 유관기관, 지역가게, 주민커뮤니티들을 위해 공개모집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더불어 매년 행사장을 찾아와 주는 주민들도 빠트릴 수 없다. 축제의 장에 매년 찾아오고, 함께 즐기는 성북구민들이야말로 <성북 책모꼬지>에서 정말 중요한 사람들이다.

1년에 한 번 씩 성북에서 활동하는 독서주체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성북 책모꼬지>는 앞으로도 어떤 상황에서든 함께 하는 방법을 고민하며 만들어 갈 것이다. 성북의 대표 축제의 하나인 만큼 다양한 주민들이 누구나 쉽게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모두에게 열린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다.

관람객 수(명)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6,322	6,887	3,228	4,506	3,772	25,821

성북 책모꼬지 포스터



2018 성북 책모꼬지



2019 성북 책모꼬지



2020 성북 책모꼬지



2021 성북 책모꼬지

책모꼬지(Book Festival) 이미지



2012 성북 책모꼬지
2015 성북 책모꼬지
2017 성북 책모꼬지
2019 성북 책모꼬지

마음을 바로하다
함께했고

음식을 매개로 서로 다른 문화가 마주하다

성북세계음식축제 누리마실

2008년에 처음 시작한 다문화음식 축제 누리마실은 2022년이 되면서 어느덧 14회를 맞이하게 되었다. 다 문화에 특화된 프로그램 중심으로 운영되었던 누리마실은 2013년 성 북문화재단을 만났고, 지역의 다양 한 주민들과 예술가들이 주체가 되 어 모두가 함께 즐기는 문화다양성 음식 축제로 성장하게 된다. 지역 주 민들에게 세계 각국의 다양한 음식 과 문화를 소개하고 성북에 거주하 고 있는 문화다양성 주체들과 함께 문화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는 축제로 현재까지 운영 중에 있다.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고 이해하고, 차별 없이 자유롭게 표현하는 문화다양성

틀린 것이 아닌 다른 것, 문화다양성 을 이야기 할 때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표현이다. 다르다는 것은 틀린 것이 아님에도 받아들이는데 멈칫 거리는 순간이 존재하며, 온전히 남 을 이해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위와 같은 말들은 여기저기서 쏟아져 나오고 있다. 성 북문화재단은 이러한 말을 외치는 것보다 모두가 함께 섞여 다양한 문 화 속에서 서로 다름을 체감할 수 있 도록 노력해왔다.



2017 누리마실



2018 누리마실

성북세계음식축제 누리마실은 세계 각국의 음식을 매개로 다양한 체험, 공연, 마켓을 즐기면서 세계문화를 체험하는 성북의 대표적 문화다양성 축제로 성장했다. 지역 주민들과 함께 만들어 가는 축제로 운영하기 위해 민관협력구조의 축제 사무국을 운영하였고, 주민참여형 퍼레이드 공연과 여러 캠페인 등을 차례차례 도입했다. 2019년 외연 확장보다는 더욱 가치 있는 축제로 발전시키기 위해 '친환경 축제'를 결합

시키는 시도까지 이어졌다. 그러나 성북동의 거리에서 북적북적하게 진행되던 누리마실 또한 코로나19를 피할 수는 없었다. 2020년에는 팬데믹 시대에 축제를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지 공론장을 마련하였고, 이를 통해 누리마실은 지역 주민들과 예술가들을 응원하는 프로젝트로 전환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공유성북원탁회의'라는 파트너가 있기에 가능했다.



2019 누리마실



2021 누리마실

2008~2012	- 지역축제 '다문화음식축제'로 운영
2013	- '성북세계음식축제 누리마실'로 이름 변경 - '누리마실 친구들'로 주민, 예술가들과 함께 만드는 축제로 변화
2015	- 문화다양성을 위한 교류 및 공유의 장으로서의 축제 운영
2016	- '협동조합 누리마실친구들' 설립 - 누리마실 축제 마스코트 '누리'와 '마실'이 탄생
2017	- 주민 참여형 축제 퍼레이드 도입 - 문화야시장, 밤마실 누리마실 운영
2018	- "우리는 다르다"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지역사회를 위한 캠페인 진행 - 초대와 만찬 <여우와 두루미> 퍼레이드 진행
2019	- 친환경 축제 실천 (일회용품 줄이기 프로젝트) - 시민배우 참여 공연 및 퍼레이드 진행
2020	- 코로나 극복을 위한 프로젝트의 축제 운영 - 다양한 공간들에서 벌어지는 소규모 다거점 축제 진행
2021	- 코로나 장기화로 시민과 예술계를 응원하는 프로젝트로 전환하여 진행



마음을 바로하다 함께했고

차별없는 즐거운 여름을 위하여

성북문화바캉스

성북문화바캉스는 성북문화재단의 대표적인 도전 과업이었으면서, 성북이기에 가능했던 물놀이 축제였다. 처음 학교 운동장을 워터파크로 만들어 운영하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만해도 과연 그것이 가능한 일인지 싶었다. 하지만 재단이 그간 쌓아온 네트워크와 직원들의 적극적 참여로 가능했다.



지역의 아동·청소년들이 차별없이 누구나 여름을 즐겁게 보냈으면 하는 마음을 지역의 초등학교에 전달하면서 해당 축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장소를 섭외하였다. 그리고 공유 성북원탁회의를 비롯한 다양한 지역내 단체들과 접촉하여 물놀이 이외의 체험 프로그램을 함께 기획하고 준비하였다.



그리고 그 반응은 여름처럼 뜨거웠다. 아이들은 개장 시간 한 시간전부터 교문 앞에서 줄을 서 있었으며, 축제에 참여한 주민들은 여름의 태양 아래 땀을 흘리는 직원들을 위해 아이스크림과 음료를 선물로 주며 고마워했다. 그리고 성북문화바캉스는 연차가 지나면서 더욱 다채롭게 확장되어 갔다. 2019년에는 <한여름밤의 음악회>와 연계하여 낮에는 워터파크였던 학교가 밤이 되면 콘서트장으로 운영되기도 했다.



하지만 성북문화바캉스는 코로나 19 앞에서는 위험한 만남이 되었다. 2년 동안 성북문화바캉스는 개최될 수 없었다. 그리고 드디어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된 2022년 다시 운영 될 수 있었다.





성북문화바캉스를 그동안 기다려왔던 주민들과 아이들은 역시나 개장 전부터 줄을 서며 뜨거운 반응을 보였고, 우리는 멀어졌던 기억을 잃어버린 듯 다시 가깝게 만날 수 있었다.

○ 참여자 수

2015	2016	2017	2018	2019	2022
6,246	13,569	10,731	12,678	12,942	16,048

마음을 바로하다

함께했고

“있어왔던”, “해왔던” 플랫폼형 축제

성북진경



방우산장과 최순우옛집을 지나면 간송미술관 수연산방, 심우장으로 이어지며 펼쳐지는 이동형 거리산책극 ‘성북동이야기’를 만나게 된다. 축제가 있기 전부터 “있어왔던” 성북의 다양한 역사문화자원과 오랫동안 지역예술가들이 “해왔던” 창작활동이 이어지며 만들어지는 성북의 이야기. 성북을 느끼고 즐기며, 일상이 예술이 되는 축제가 펼쳐진다.

<성북진경>은 성북의 역사문화자원을 보여주는 플랫폼형 축제로 성북이 가진 다양한 자원을 여러 단체, 기관, 사람들과 함께 잘 보여지게끔 만들어가는 축제다. 새로운 기획과 새로운 사람들로 축제를 만들기도 하는 우리가 가진 것들 중에 좋은 것들을 엄선하고 그것들을 카테고리 에 맞게 분류하여 주민들이 쉽게 다가갈 수 있게 만드는 것. 이것이 <성북진경>의 방식이다.



성북동의 골목과 역사문화거점에
서 산책극을 펼치고, 의릉문화축제
와 함께 지역문화거점에서 전시를
진행하는 등, 동네의 역사문화자원
들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통해 동단
위에서 개최되는 다양한 축제와 지
역 콘텐츠를 하나의 이야기로 이어
나간다. 그리고 이를 만들어가는 과
정을 거버넌스 구조로 만들어진 민
관사무국을 중심으로 예술단체, 활
동가, 기획자, 대학생 등과 논의하고
준비하는 과정을 가진다. 많은 이들
을 수동적 관람자에서 능동적 참여
자로 전환시키며 지역축제를 함께
하는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공유
하기 위해 노력했다.



코로나19 이후, 지역의 축제와 행사
들이 취소되고 축소되는 과정 속에
<성북진경>은 다수의 민간 문화공
간 운영자들이 참여하는 '성북공간
네트워크'와 함께 문화예술공간에
대한 다양한 안건을 논의했다. 그래
서 지역예술창작 환경 및 생활문화
활동 기반을 활성화하는 '오픈스페
이스 페스타'라는 독특한 모습을 만
들어냈다.

지역의 역사문화자원을 드러내는 플
랫폼축제인 성북진경이 지역 주민들
로부터 받는 관심과 애정에는 그 자
원들을 단순히 드러내는 것을 넘어
선다. 어떻게 바라보아야할지, 어떻
게 드러내야할지에 대한 많은 이들
의 고민이 투영되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성북진경은 지역의 숨은 이
야기를 드러내며 동네 곳곳을 다양
한 이야기로 이어나간다.

마음을 바로하다

함께했고

지역주민들을 위한 문화예술 쉼터

성북구민여성회관

성북구민여성회관은 성북구 성북로
4길 177에 위치한 문화복합시설로
성북구민의 문화복지 향상을 위해
1990년 5월에 개관하여 올해로 33
년째를 맞이하고 있다. 본관은 지하
1층에서 지상 3층의 규모로 조성되
어 있으며 프로그램 강의실, 북카페,
주민휴식공간, 독서실, 헬스장, 유관
기관 협력 사무실 등이 자리하고 있
으며 대강당은 별개의 동으로 지상
1층의 건물로 조성되었다.

개관 초기에는 성북구민회관으로
시작되었으나 2001년 여성의 사회
참여와 문화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성북여성회관의 역할을 더해 성북
구민여성회관으로 운영되고 있다.

성북구민여성회관의 대강당은 아
동 청소년의 자존감 향상을 도모하
는 <꿈의 오케스트라 성북>을 운영
중이며 지역 주민들을 위한 음악, 연
극, 무용 등 여러 공연과 발표회의
자리를 마련하고 있다. 성북에서 가
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758석의 공
간이 주민들의 문화예술 쉼터이자
발표장으로 사용되고 있다.

성북여성회관은 본관 1층과 2층을
사용한다. 1층에서는 스포츠교실과
유아놀이, 피아노교실이 운영되고
2층은 요리교실을 비롯하여 미술교
실과 어학교실로 사용된다. 총 11
개 분야 39개 강좌의 프로그램이 운
영되고 있다. 또한 평생학습법에 따
른 평생교육시설로 등재되어 교육
의 시기를 놓친 어르신들을 대상으
로하는 학력인정문해교육이 진행된
다. 이와 같이 펼쳐지는 다양한 프로
그램으로 인해 주민들의 발걸음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공간으로 성장
해왔다.

성북구민여성회관



성북구민여성회관



유아교실



스포츠교실



피아노교실



놀이교실



창작교실



교양교실



요리교실



음악교실



어학교실



미술교실



1층 로비



2층 휴게실

대강당



마음을 바로하다

함께했고

성북을 대표하는 다목적 공연장을 세우다

꿈빛극장



성북문화재단은 설립 이후 줄곧 지역의 특색을 살린 문화예술이 주민들의 생활 속에 녹아들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해왔다. 그러나 그동안 전문 공연장의 부재로 다른 문화 사업에 비해 무대 공연예술 활동은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 그래서 이 부족함을 채우고자 2021년 4월에 꿈빛극장을 개관하였다.

꿈빛극장은 324석의 크지 않은 공연장이지만 뮤지컬, 연극, 클래식, 국악 등 다양한 장르의 여러 공연들이 올라갈 수 있는 다목적 공연장을 지향한다. 그리고 지역에 알맞은 작품을 직접 기획 및 제작하여 주민들에게 맞춤형 공연예술의 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코로나19가 여전히 강했던 시절에 개관한 극장이어서 처음부터 공격적으로 관객을 현장에서 만날 수는 없었다. 그래서 거리두기 수칙을 지키며 적은 관객을 받았으며, 동시에 온라인 공연도 함께 진행하여 현장에 오지 못한 주민들의 아쉬움을 달랬다. 그렇게 '남준봉, 박승화 듀오 콘서트'를 비롯해 가족음악극 이솜우화와 제1회 성북국악페스티벌 풍류마치를 펼치며 주민들에게 열띤 호응을 얻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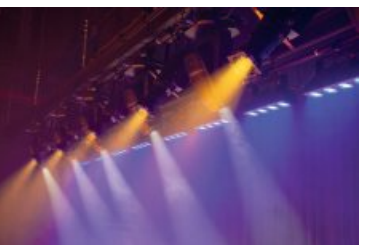


꿈빛극장은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다목적 공연장으로 자리매김 하고자 한다.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극, 클래식, 브런치콘서트, 국악공연, 연극, 뮤지컬 등을 직접 기획과 제작을 하며 꿈빛극장만의 레퍼토리 공연을 완성시켜 나갈 것이다. 그렇게 주민 친화적 이면서도 예술가들에게는 열린 기회와 멋진 무대를 제공하는 성북을 대표하는 공연장으로 성장하고자 한다.

극장 현황

개관	형식	프로시니엄 (넓이*깊이*높이)	무대 전체 (넓이*깊이*높이)	객석
2021.04.17	프로시니엄	12m*6m*4.5m	21m*6m*7m	324석 (휠체어석 4석 포함)

극장 시설

공연장 외관	무대	무대 상부
		
로비 야외 데크	분장실	SM 데스크
		
음향 콘솔	조명 콘솔	조명 장치
		



마음을 바로하다 함께했고

한국의 대표적인 예향(藝鄉)으로서 가치

성북구립미술관



성북구립미술관 전경



2021 <화가의 사람, 사람들> 전시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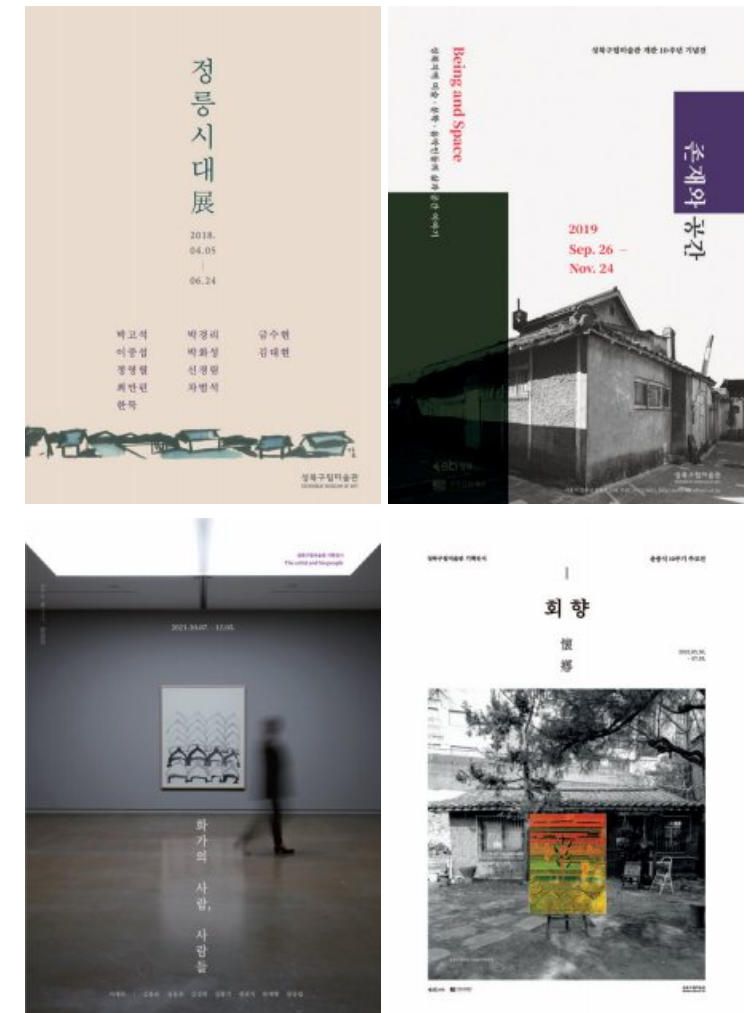


2022 윤중식 10주기 추모전 <회향懷鄉> 전시 전경

‘성북(城北)’ 지역은 조선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한국 근현대 문화예술사의 축소판이라 할 수 있을 만큼 수많은 문화예술인들의 삶과 역사가 깃든 곳이다. 성북구립미술관은 2009년 자치구 최초의 공립미술관으로 처음 개관한 이후 지난 10여년간 성북 지역 속에 축적된 한국 근현대 미술사를 다각도로 연구하고 그 가치를 조망해왔다. 2011년 근원 김용준과 수화 김환기의 인연을 중심으로 한 <두 예술가를 만나다>展을 비롯하여 <그 시간을 걷다>展(2011), <성북 예술의 길로>展(2014), <성북의 조각가들>展(2017), <정릉시대>展(2018), <존재와 공간>展(2019) 등 성북 예술가들의 삶과 작품, 공간을 함께 아우르는 기획전시를 추진하였으며, <윤중식>展(2012), <소전 손재형>展(2013), <사람을 빛다, 백문기>展(2015), <소정 변관식>展(2016), 송영수 50주기 <상념의 공간: 조각가의 스케치북>展(2020) 등 성북 지역 예술가의 작품 세계를 심층적으로 연구하는 개인전 등을 개최해왔다. 아울러 청장년층 작가들을 중심으로 한국 현대미술의 담론과 양상 등을 탐구하는 Summer Project, NeoForum 등과 같은 프로젝트를 함께 추진해오며 지난 시대의 예술뿐만 아니라 현재 그리고 미래로 나아가는 한국 예술의 맥을 이어나가고 있다.

성북구립미술관은 보다 많은 주민들이 일상 속에서 쉽게 미술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성북 지역 곳곳에 특성화된 분관과 공간을 신설, 확장해나가고 있다. 현재 창의적이고 실험적인 신진 예술가들을 발굴하고, 주민과의 협업을 통해 지역의 문화를 활성화하는 **성북예술창작터**(2013년 개관, 성북동)를 비롯하여 성북동의 역사와 문화가 공존하는 복합문화공간이자 주민들의 커뮤니티 공간인 **거리갤러리**(2018년 개관, 성북동), 도서관 속 미술관으로 어린이들의 창의성과 다양한 예술 감각을 일깨우는 **성북어린이미술관 꿈자람**(2019년 개관, 상월곡동), 조각가 최만린의 삶과 예술이 깃든 정릉 자택을 미술관으로 조성한 **성북구립 최만린미술관**(2020년 개관, 정릉동) 등 각 공간이 지닌 특색과 성격을 바탕으로 구축된 다채로운 기획전시와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다. 2009년 성북동에 자리한 본관을 시작으로 성북구립미술관은 거리갤러리와 함께 성북구립 최만린미술관, 성북예술창작터, 성북어린이미술관 꿈자람 등 성북 지역을 아우르는 1본관 3분관 체제로 확대·운영하며 보다 많은 대중들과 소통할 수 있는 공공미술관으로 나아가고자 한다.

성북구립미술관 전시 포스터



2019 <존재와 시간> 전시 개관식

성북구립미술관은 개관 이래 성북 지역에 깃든 예술가들의 삶과 창작 세계를 중심으로 다양한 기획 전시와 연구 활동을 통해 미술관의 정체성을 확립해왔다. 특히, 한국 근현대 미술사의 중요 작품 및 아카이브를 연구·수집하고, 전시 및 프로그램, 학술행사 등을 기획해오며 축적된 유무형의 자산들은 한국 근현대 미술 전문 연구기관으로 자리매김한 성북구립미술관의 위상을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무엇보다 성북 지역 곳곳에 남아 있는 수많은 예술가들의 흔적과 공간을 발굴하고 보존함으로써 한국의 대표적인 예향(藝鄕)으로서 가치를 정립해온 성북구립미술관은 근현대의 역사·문화·예술을 아우르는 종합 미술관으로 거듭나고 있다.



2020 <상념의 공간: 조각가의 스케치북> 전시 전경



2021 <땅의 소리: 김승영> 전시 연계 프로그램



2018 공공미술 프로젝트 <숨>

성북구립미술관은 지난 10여 년간의 행보를 바탕으로 예술인들의 작품 세계 이면에 깃든 시대적 배경과 삶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점차 사라져가는 그들의 공간을 발굴하여 성북 지역의 새로운 예술적 지형도를 형성하고자 한다. 또한, 미술의 각 장르와 시대를 포함한 4,500여 점의 소장품과 다양한 작가와 관객을 대상으로 한 기획전과 프로그램 운영, 시설의 점진적인 확장 등을 통해 특성화된 자치구 미술관으로서 선진적인 모델을 구축해나가고자 한다.

관람객 수(명)

2017	2018	2019	2020	2021
12,553	13,375	8,347	3,740	7,660

마음을 바로하다 함께했고

작지만 깊은 예술가의 숨결로 가득찬

성북구립 최만린미술관

성북구립 최만린미술관은 서울 성북구 정릉동에 위치한 성북구립미술관의 분관으로 2020년 8월 20일 정식 개관하였다. 성북구립미술관은 지역 기반의 주요 작가 기획전시와 함께 성북 지역의 인물, 공간, 건축 등을 주제로 한 자료 조사를 진행해왔으며 그 결과로 지역에 위치한 예술가들의 집터 및 아틀리에 공간 발굴과 연구를 통한 복원, 보존사업을 중점 과업으로 추진해 왔다. 성북구립 최만린미술관은 그 결과물 중 한 곳으로서, 최만린 조각가가 작업실 겸 살림집으로 사용했던 공간을 최대한 그대로 보존하면서 리모델링을 한 작가 가옥 뮤지엄이다. 최만린은 조각가로서 인정받기 시작하던 시기인 1960년대 초부터 성북구 정릉동에 거주하며 작품 활동을 해왔으며, 이 집은 특히 1988년부터 2019년까지 긴 시간 동안 대표작들을 많이 탄생시킨 의미 있는 공간이다. 빠르게 사라져 가고 있는 근현대 예술가의 삶의 터전을 그대로 보존하여 의미 있는 지역의 문화 예술 자산으로 환원한 성북구립 최만린미술관의 사례는 2020년 대한민국 공공건축상 우수상 수상이라는 성과로 이어지기도 했다.



성북구립 최만린미술관 야외정원



성북구립 최만린미술관의 또 다른 특징으로는 양질의 컬렉션을 들 수 있다. 작가 생전에 기증받은 작품 126점과 작고 후 유족들이 뜻을 모아 2차로 기증한 작품들을 포함하여 총 570점의 작품이 성북구립미술관의 소장품으로 등록되어 있다. 또한 공공조형물 제작을 위한 모형(마케트)과 작가 자료 등 관련 아카이브 또한 약 4만 3천여 점을 소장하고 있어, 국내에 드문 조각 중심의 전시공간이자 연구기관으로 성장하기 위한 기반이 마련되어 있다. 미술전문가를 위한 기관으로서 뿐만 아니라 주민과 함께하는 친밀한 공간으로 자리매김하려는 노력 또한 확대되고 있다.



최만린 작가가 거주했던 당시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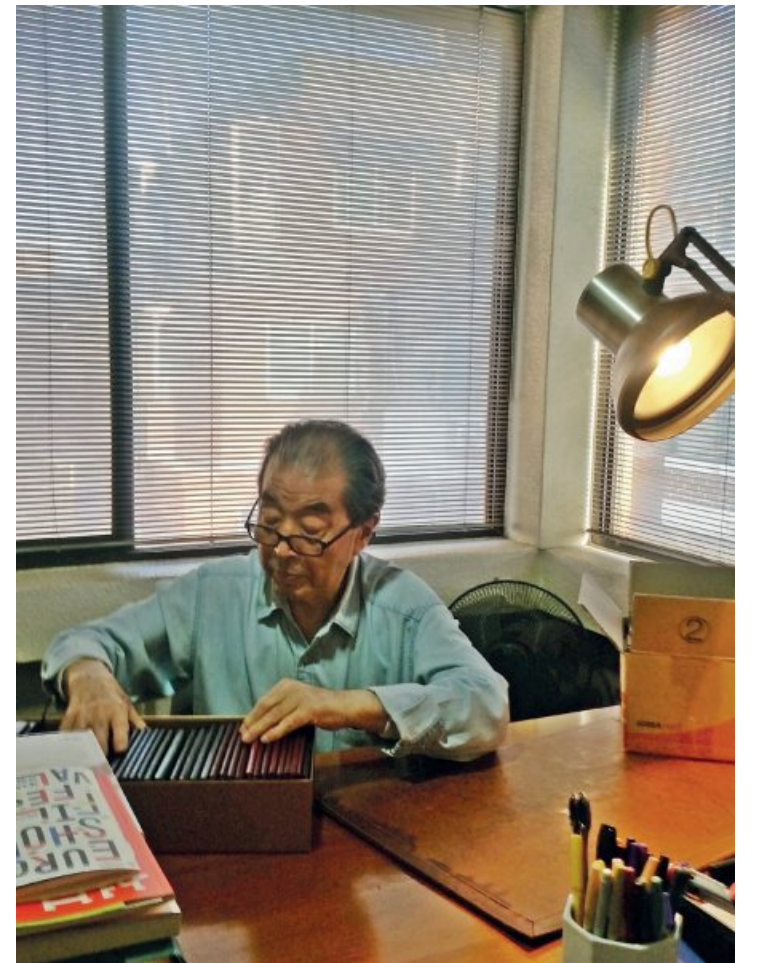
미술관 2층 자료실 및 아카이브 서가

관람자들을 위해 다양한 문화컨텐츠를 제공하는 공간이자 일상을 함께하는 열린 문화공간으로서 성북구립 최만린미술관의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은 높은 주민 만족도로 이어지고 있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건축 토크 프로그램, 정원조성 강좌, 미술관 속 음악회, 실내악 연주, 명상클래스 등 공간에 맞는 문화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중이다.

이처럼 예술가가 직접 살면서 작품 활동을 해온 가옥은 작품의 시작인 담긴 구상부터 스케치, 작품 제작과 완성에 이르기까지 그 숨결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공간으로서 의미가 크다. 오래된 예술가의 공간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개발에 밀려 흔적 없이 사라지는 일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다행히 최만린미술관은 작가의 오랜 거주공간이자 아틀리에로 사용되어 오면서 건물 내·외관이 잘 보존되어 있었을 뿐 아니라, 소중한 작품들을 기꺼이 지역을 위해 기증하겠다는 작가의 의지가 확고했으며 더불어 이러한 지역 미술관과 예술가의 필요성에 공감해온 성북구와의 협력을 기반으로 탄생될 수 있었다. 이처럼 최만린미술관은 보존 가치가 분명한 문화적인 공간이자 건립 과정 또한 국내에서 보기 드문 긍정적인 선례를 남긴 곳이다. 최만린미술관은 작가가 작품을 정성들여 탄생시킨 공간답게 작지만 깊은 예술가의 숨결로 가득 차 있다. 앞으로도 성북은 오랜 시간 품어온 예술가들의 삶과 흔적을 보존하고 현대에도 그 가치를 잘 빛낼 수 있도록 특별한 장소성을 품은 공간을 찾아 지역의 문화유산으로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

관람객 수(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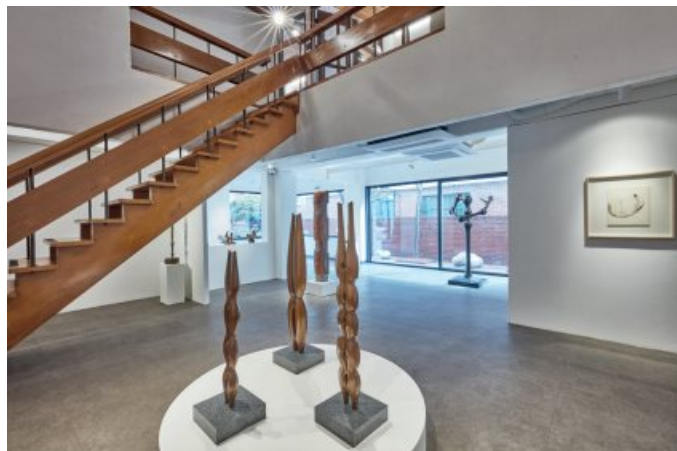
2020	2021
1,215	3,049



2층 드로잉 작업실에서 최만린



성북구립 최만린미술관 개관기념식



마음을 바로하다 함께했

예술가들을 위한 살아있는 창작 공간

성북예술창작터

성북예술창작터는 성북 지역을 중심으로 시각예술분야의 창작자를 지원·양성하고, 창작의 다양한 지형에서 실험을 이어가는 '살아있는 창작의 공간'으로 2013년 개관하였다. 창의적이고 실험적인 신진 예술가를 발견하고, 나아가 지역·커뮤니티를 기반으로 한 네트워킹 및 협업으로 열린 미술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한 지속적인 시도를 이어왔으며, 다수의 예술 프로그램에서 성북의 숨겨진 이야기와 장면을 수집·기록하여 지역과 문화 활성화를 위한 활동 환경을 넓혀가고 있다.

2020년부터는 성북예술창작터가 성북구립미술관 분관으로 개정됨에 따라, 미술관 교류범위 확대를 위해 개인/민간단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네트워킹 범위를 확장하여 국공립미술관 및 문화재단에서 운영되는 레지던시·창작 공간 등을 중심으로 한 기관 협력으로 진행하고 있다.

또한 실험적 예술을 지원하기 위해 2013년부터 시작된 '성북 N 작가공모'는 2020년부터 창작자의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연구/비평 모집을 신설했으며, 2022년에는 N-Networking을 신설하여 협력공간과 함께 라운드테이블 및 전시 프로그램 등을 개최함으로써 예비 창작자의 활동 영역을 한층 더 넓히는 계기를 만들었다. 그에 더해 온라인 VR 전시를 함께 진행하여 이러한 노력의 결과물이 관객과 지속적으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함께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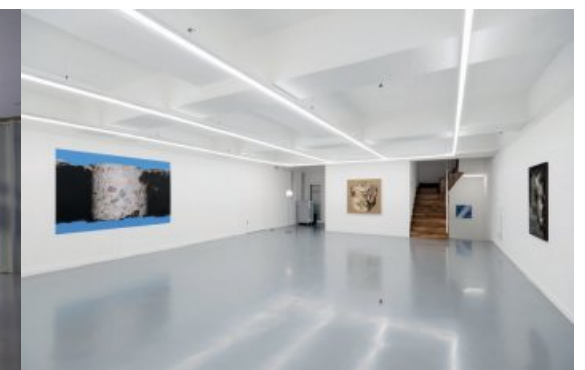
2018 성북도큐멘타 5 《공동의 기억 새석관시장》



2019 성북 N 작가공모 《현기증》



2021 성북예술동 《목소리의 극장》



2022 기획전시 《이상한 고리: 마르셀을 위하여》



성북예술창작터는 나아가 시각예술 전문공간으로서 청년, 신진 작가를 포함하여 다장르의 창작자들과 함께 미래를 준비하고 축적해나가는 경험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고자 한다. 미래를 향한 실험실이자, 아트 라이브러리로서 기능하는 동시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창작을 위한 즐거운, 역동의 공간이 되기를 기대한다.



2016 성북예술동 오픈닝



2018 성북 N 작가공모 아티스트 토크

관람객 수(명)

2017	2018	2019	2020	2021
11,462	3,637	2,751	1,087 5,919(온라인)	1723 1,210(온라인)

성북예술창작터 전시 포스터



마음을 바로하다 함께했고

아이들의 꿈이 그려지는 특별한 미술관

성북어린이미술관 꿈자람

성북구립미술관 분관으로 개관한 성북어린이미술관 꿈자람은 자치구 최초의 공립 어린이미술관으로 성북 내 아동, 청소년의 미술문화 접근성 향상을 위해 문화 소외지역에 설립되었다. 과거 연구자를 위한 '미래 연구실'로 운영되던 성북정보도서관 5층 공간을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할 수 있는 문화예술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참여예산이 모여 2019년 8월 성북어린이미술관 꿈자람이 개관할 수 있었다. 이후 다채로운 전시로 꾸준히 관람객수가 늘어나고 있으며, 어린이를 포함하여 다양한 연령층의 관객들을 고려한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와 양질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성북어린이미술관 꿈자람 개관프로젝트 《다다 팩토리》 전시



성북어린이미술관 꿈자람 개관프로젝트 《다다 팩토리》 워크숍



전시에 참여 중인 어린이들의 모습

관람객 수(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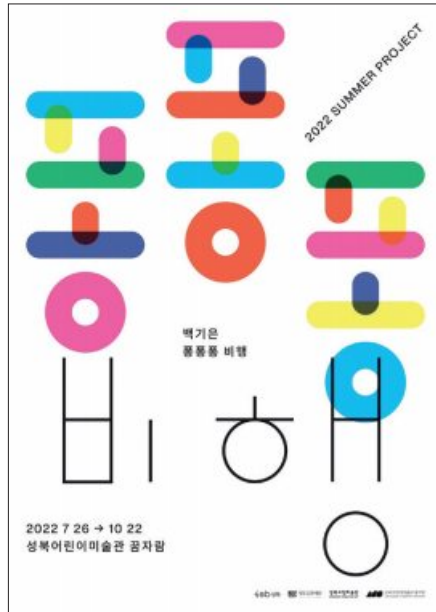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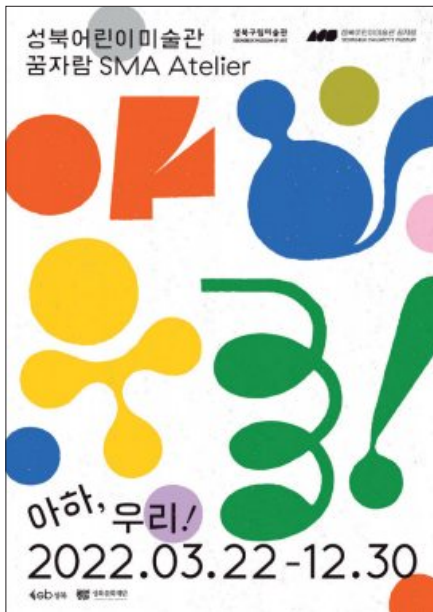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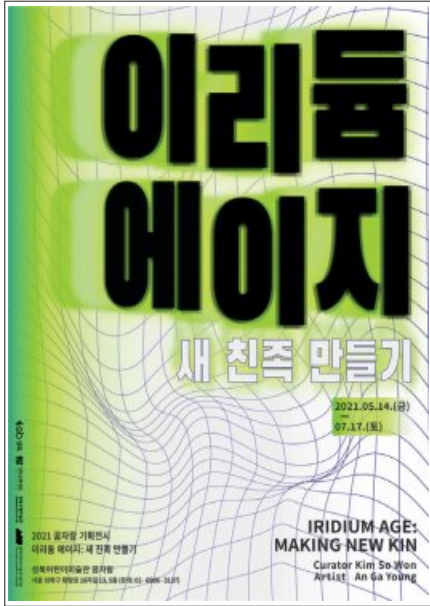
2019	2020	2021
4,296	2,287	2,174

성북어린이미술관 꿈자람 개관프로젝트 《다다 팩토리》는 그 첫 시작을 알리는 프로젝트로 전시(깜박이는 이야기), 청소년을 위한 작가 워크숍(플레이플 씽킹), 유아 초등 교육프로그램(플레이 그라운드) 등 총 3가지 섹션으로 구성되어 아날로그부터 디지털 매체를 통한 오감을 활용하는 작품을 소개하고 다양한 연령층의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2020년 《DMZ 생태전: 두루루 쭉쭉쭉쭉》은 4명의 작가를 통해 분단의 상징인 DMZ가 담고 있는 의미를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추어 질문하도록 했으며, 2021년 《이리듬 에이지: 새 친족 만들기》는 메타버스 및 인간과 비인간 관계를 조망하여 연계워크숍과 함께 게임 형식의 친근한 메시지로 어린이들에게 흥미를 선사하였다. 또한 2019년 드로잉 소장품전 《춤을 춰요》을 시작으로 성북구립미술관의 소장품을 바탕으로 지역의 정체성이 반영된 어린이 전시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성북어린이미술관 꿈자람은 공립미술관이자 지역의 문화예술교육 거점으로서 미술 교육의 다변화와 주민들의 적극적인 문화향유 및 미술문화에 대한 접근성에 기여하고 있다.

2021년 대폭 확대된 성북구립미술관 소장품을 중심으로 성북지역의 정체성과 특징에 부합하는 소장품 전시와 함께 연계교육을 추진하고 학교와 적극적으로 연계하여 지역 어린이미술관의 선진사례를 보여줄 것이다. 또한 지역의 이슈, 연관된 환경문제 등을 표출하는 동시대 미술가와 함께 '교육'을 주제로 접근한 전시와 워크숍을 개최하여 다양한 형태의 미술관 교육을 시도하고 꿈자람이 물리적으로 위치한 도서관과 협력하여 스토리텔링, 인문학적 요소와 미술의 조형적 요소를 포괄하는 입체적 교육을 실행할 예정이다.

성북어린이미술관 꿈자람 전시 및 프로그램 포스터



마음을 바로하다 함께했

처음과 같이, 지금은 15개의 문화공간으로

성북구립도서관

2002년 성북구 상월곡동에 첫 구립 도서관인 성북정보도서관이 생겼다. 20년이 지난 지금은 총 15개의 성북구립도서관이 생겨났다. 이와같이 도서관이 본격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한 것은 2011년으로, '책 읽는 성북' 발전 방안 연구를 기반으로 성북에 더 많은 도서관이 필요하다는 방향 설정을 통해서다. 다른 지역에 비해 부족한 도서관 인프라를 보충하기 위해 성북구립도서관을 늘려갔고, 이에 주민들도 더 많은 도서관의 필요성에 대해 꾸준한 목소리를 내 주었다.



아리랑도서관

성북구립도서관의 핵심가치는 다양성, 상호성, 포용성 세 가지다. 그리고 비전인 '삶의 변화를 함께 만드는 도서관'이 더해져 성북구립도서관은 지역밀착형 서비스를 주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특히 성북 안의 지역 특성에 따라 중심이용자층을 달리하거나 프로그램을 다르게 기획하여 도서관 별로 각기 다른 컬러감을 만들어낸다. 이로 인해 통일성이 없어 보일 수는 있지만 사실은 15개의 성북구립도서관은 모두 '지역밀착형 서비스'라는 운영 원리를 지키고 있다. 그리고 성북구립도서관만의 특징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도서관에 국한되지 않는 서비스'이다. 도서관의 일이 도서관이라는 틀에 고정되는 것이 아닌 도서관 밖으로, 마을 안으로, 이웃에게로 확장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도서관의 문턱이 낮아지고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성북구립도서관은 지역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책을 추천하며 새로운 시도를 거듭하고 있다. 그리고 새로운 시도 속에서 실패를 하더라도 그 시도의 과정이 마을을 이해하고 주민들이 책에 가까워지는 계기가 될 수 있게 그 의미를 되새긴다.

도서관 내부의 도서 전시와 북큐레이션은 도서관을 방문하는 이용자들에게 책을 매개로 말을 건네는 일상적인 경험을 제공한다. 도서관 대출현황, 이용현황의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주민들의 요구를 먼저 발굴하고 새로운 독서 경험을 제안하기도 한다.

도서관은 언제나 찾아갈 수 있는 일상의 공간이다. 성북에서는 더 나아가 ‘마을과 함께하는 공간’으로 자리한다. 성북구립도서관은 앞으로도 주민과의 접촉면을 늘려나갈 예정이다. 도서관의 슬로건인 ‘내 곁에 함께하는 도서관’처럼 지역 주민의 더 많은 곁을 함께 하고자 한다. 궁극적으로 성북구립도서관이 지향하는 ‘지역 밀착형 서비스’는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부분을 향한 서비스이다. 주민의 삶의 다양한 부분에 도서관이 주목하고, 삶의 변화를 위한 실험과 도전을 함께 하는 실천의 공간을 지향한다. 성북구립도서관은 지역과의 연대와 신뢰가 깊은 공공도서관이다. 재단 설립 10년동안 쌓아온 신뢰를 기반으로 도서관과 지역이 함께하는 곁을 늘리고 함께 나아가는 필수기관이 되기 위해 지역의 정보와 사람을 이어주는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키워나갈 것이다.

정릉도서관



운영현황

(2021.12.31. 기준, 단위 : 명/권/중)

구분	COVID-19 이후		COVID-19 이전
	2021	2020	2019
도서관회원 가입자수(명)	246,238	237,266	232,603
소장자료 ¹⁾ (권) (연속간행물)	731,836 (300)	726,583 (374)	712,524 (342)
인구 1인당 자료 수(권)	1.70	1.66	1.57
대출자수 ²⁾ (명)	73,470	58,449	68,431
중복대출자수(명)	491,023	249,126	441,063
대출권수 ³⁾ (권) (상호대차포함)	1,032,270	456,858	896,904
상호대차대출(권)	133,512	50,949	114,726
상호대차반납(권)	212,086	107,480	197,005
전자책 이용(권)	53,641	60,559	32,555
오디오북 이용(권)	148,968	126,748	52,337
동아리수(개)/회원 수(명)	229/1,919	245/2,110	238/2,126
이용자수(명)	1,176,205	591,804	1,199,928

1) 도서형태+도서형태 외 자료+연속간행물(잡지) 포함
2) 홍길동이 도서관에서 책을 10번 대출해도 대출자수는 1명으로 산출
3) 상호대차 포함 대출권수/무인기기 포함

마음을 바로하다

함께했고

공공영화관의 새로운 미래

아리랑시네센터

아리랑시네센터는 춘사 나운규의 민
족영화 ‘아리랑’ 촬영지로서 유서 깊
은 성북구를 알리고 기념하기 위해
설립된 전국 최초 공립영화관이다.

영화, 영상, 미디어 등 지역영상문화
를 활성화시키고자 2004년 5월 개
관하였고, 2012년 9월부터 성북문
화재단이 운영을 시작한 후 2014년
리노베이션을 통해 무대와 공유서가,
카페 등 복합문화시설로 거듭났다.

현재 3개 상영관을 운영하면서 1, 2
관은 개봉영화관으로, 3층 아리랑
인디웨이브는 한국영화산업의 기반
이 되는 독립영화의 상영 기회를 보
장하기 위하여 독립영화전용관으로
지정, 운영되고 있으며 개봉 영화뿐
만 아니라 공공의 가치를 담은 다채
로운 독립영화 기획전을 진행하고
있다.

아리랑시네센터는 동소문동, 돈암
동, 정릉동 등의 지역생활권 내에 위
치해 접근성이 뛰어난 데다가 가족
단위 관객에 적합한 편안한 시설과
합리적인 가격으로 관객들을 만나
고 있다. 또한 국내 유명 영화제의
순회상영회, 예술의 전당 영상화사
업 ‘쌈 온 스크린’, 아이와 엄마가 함
께 영화를 관람하는 ‘맘스데이’, 독
립영화 정기상영회 ‘인디서울’ 등 지
역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주민사랑
을 듬뿍 받고 있다.

COVID-19 이후 다시 극장가에 활
력이 불고 다양한 수요와 참여욕구
가 커지고 있는 만큼, 아리랑시네센
터는 앞으로도 공공영화관의 새로
운 미래를 만들어가기 위해 지역 내
영화 문화 향유 기회를 늘리는 등 영
화적 경쟁력을 높이고자 한다.

영화관

구분	상영관 1관	상영관 2관	아리랑인디웨이브
디지털영사기	크리스티 RGB LASER 2K	12m*6m*4.5m	크리스티 DLP 2K
스크린 종류 / 비율	실버 / 와이드 스크린 약 8.5m x 3.4m (2.39:1)	실버 / 와이드 스크린 약 8m x 3.4m (2.39:1) (약 9m x 3m)	필 / 와이드 스크린 약 9m x 3m (2.39:1) (약 9.7m x 2.7m)

관람객 수(명)

2021	2020	2019	2018	2017	2016	2015	2014	2013	2012
43,494	19,863	142,456	108,902	131,561	114,162	98,613	67,833	60,878	80,361

상영관



상영관 1관



상영관 2관



아리랑인디웨이브

시설사진



입구



휴식공간



아리랑인디웨이브

마음을 바로하다

함께했고

건축과 예술 그리고 주민참여

김중업건축문화의 집

성북구 장위동에 위치한 김중업건축문화의집은 건축가故김중업 건축연구소에서 1986년에 80년대 중상류층의 주거문화를 반영하는 서양과 전통의 건축스타일로 리모델링하며 새롭게 변화된 주택이다. 김중업건축문화의집은 김중업 주택 디자인의 상징적인 온실과 수공간, 스테인 글라스 창, 벽난로, 장식 벽돌 등으로 실내모습들이 꾸며져 있다. 2015~2019년에 실시된 장위동도시재생시범사업으로 생활의 때를 벗고 복원되었고 70-80년대 주거문화를 볼 수 있는 건축적 가치를 인정받아서 2017년 서울미래유산으로 선정되었다. 김중업건축문화의 집 일대는 기존 동방주택단지로 중상류층의 단독주택들이 많이 있었으나 도시재개발로 인해 현재 점차 주택들이 사라지고 있는 상황이다. 김중업건축문화의집을 도시개발, 재생지역에서 건축, 주거문화를 느낄 수 있는 문화공간이자 지역의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으로 운영하고자 성북문화재단에서 2019년부터 구청으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기 시작했다.

첫해에는 김중업과 성북 예술가들에 대한 아카이브 전시와 어린이 건축 프로그램을 운영과 주민 네트워크 '살롱드장위'를 시작하며 '건축과 예술, 주민참여'란 키워드를 공간의 정체성으로 삼아가는 계기를 마련했다. 2020년에는 <미래유산사용설명서>, <이웃집 예술가>, <도시인프로젝트> 등 공공 문화예술 사업들을 통해 김중업건축가와 관련 있는 건축, 예술, 디자인 전시 및 강연과 아카이빙을 지역의 예술가, 주민들이 함께 협력하여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장위동을 중심으로 문화예술의 새로운 가치를 발굴하고 콘텐츠를 만들어가며 지역 내 문화예술 거점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확대할 수 있었다. 2021년에 진행된 어린이 건축학교 <Um>은 장위동 어린이들이 사진콜라주, 건축가역할놀이, 신문지 공간의 탄생 워크숍에 참여하여 건축과 도시환경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하는 공동 작업으로 창의력을 키우고 공동체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과정으로 진행되며 참여 아이들에게 좋은 반응을 불러 일으켰다.

지속된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많은 주민들이 김중업건축문화의집에 방문할 수 있었던 장위마을투어 프로그램들이 한동안 진행되지 못하며 관람객들이 줄어들었지만 상시적으로 운영되는 김중업 아카이빙 전시와 기획 예술 전시, 문화프로그램들이 지속 운영되며 주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이 나아짐에 따라서 예전 보다 지역 주민들이 손쉽게 김중업건축문화의집에 방문하여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준비되고 있다. 지역 내 다양한 주체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예술문화 거점 공간으로서의 김중업건축문화의집의 모습을 기대해본다.

김중업건축문화의집
어린이 건축학교 Um

2017
- 김중업건축문화의집 서울시 미래유산 등록
2019
- 김중업건축문화의집 재단 운영 시작 - <김중업 그리고 성북의 예술가들> 전시 - 겨울방학 어린이 건축 프로그램 <우리들 놀이터> 진행
2020
- 공공미술프로젝트 <이웃집예술가-모두의집> 운영 - <미래유산사용설명서> 운영 - 도시 프로젝트 : 김중업 콜로키운 아카이빙룸 전시
2021
- 공공미술프로젝트 <이웃집예술가-모두의집 : 우주농부, 3개의 실험작> 운영 - 도시저층 주거 아카이브 <공유기억> 전시 - 어린이 건축학교 Um 운영



마음을 바로하다

함께했고

청년예술가와 함께하는 문화예술교육 실험공간

문화예술교육공작소 함

2021년 4월, 시-구 상향적 협력적 일자리 창출 사업의 일환으로 청년 예술가와 함께하는 <문화예술교육 공작소 함>이 문을 열었다.

성북에서는 가르침과 배움의 경계를 넘나들고 협력하는 문화예술교육생태계를 위한 다양한 활동과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삶의 현장이자, 일상의 공간인 기초 단위(생활권)에서 우리의 삶을 더욱 가치롭게 할 문화예술교육의 방향을 고민하고 서로 돌보고 성장할 수 있는 지역 기반 문화예술교육을 위한 생각과 마음을 지역의 다양한 주체들과 나누고 있다. 또한 코로나19는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사회적 돌봄과 문화적 안전망이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 부분인지 알게 했다.

이런 생각과 마음이 모여 <문화예술교육공작소 함>이 시작되었다. '함'은 청년예술가들이 지역 문화예술교육실천가로 성장하고 문화예술교육으로 동네에서 서로 기대고 비빌 언덕이 되는 문화예술교육의 거점이자 실험공간이길 바랐다. <문화예술교육공작소 함>은 문화예술을 통한 치유와 돌봄, 다양한 시민들과 문화예술교육실천가들이 협력하고 관계 맺으며 문화예술교육을 연구하고 다각적인 활동을 실험하는 공간이다.

청년예술가 8명과 함께 문화예술교육의 다양한 시도와 지역 연대를 만들어가고 있는 문화예술교육 실험공간이 길음청년창업거리에 탄생하게 되었고 2022년 올해에도 8명의 청년예술가들과 함 2기의 활동들을 펼쳐내고 있다.

문화예술교육실천가들의 상호 성장을 위한 워크숍과 네트워킹을 통한 연구 활동 등 프로그램 개발을 넘어 지역 문화예술교육의 이슈들을 발견하고 함께 고민하는 활동들이 활발히 일어난다. 어린이, 청소년, 청년, 중장년, 어르신 등 다양한 세대를 만나고 문화예술을 통해 나와 우리, 그리고 지역을 경험하는 등의 다양한 문화예술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대안학교, 송곡중학교 특수학급, 도서관, 복지관, 지역 상점, 문화공간, 지역축제, 활동가 등 지역과 연계한 문화예술교육 협업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 확장하며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는 노력을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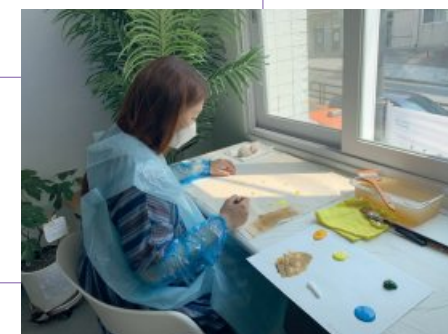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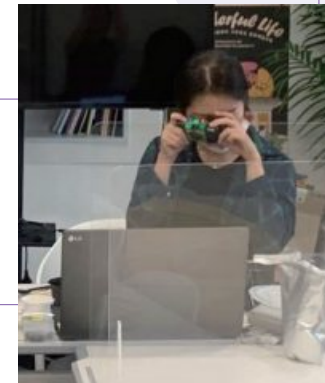
2021 프로그램 포스터



문화예술교육공작소 함 이미지



2022 어린이날 100주년 기념 어린이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방's 상담소:어린이 해결사>



마음을 바로하다 함께했고

마을 안에서 나만의 예술 만나기

돌곳이생활예술문화센터



돌곳이생활예술문화센터는 생활 문화활동을 기반으로 주민과 주민이 만나 서로의 경험과 지식을 교류하고 공유하는 네트워크 공간이다. 돌곳이생활예술문화센터의 프로그램은 주민들의 제안으로 추진되고, 주민들의 참여와 협력으로 진행된다. 세대가 함께 어울려 다양한 생활 기술을 배우며, 상생하고 협력하며 주민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공간으로 결과물을 함께 만들고 공유하고 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우리 사회가 무주한 사회 문제들을 풀기 위한 새로운 해결책 발견에 한 걸음씩 나아가는 중으로 지역의 개인 및 단체와 여러 기관들과 협력하여 지역의 문화예술 생태계를 구성해 나가고 있다.



일상·변화

공동 작업장을 기반으로 배우고 협력하는 프로그램으로 생활예술·생활기술·동네인문학이라는 3가지 테마로 강의 및 워크숍이 진행된다. 생활에서 필요한 기술을 함께 배우고 실험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동네·사람

지역을 연결하는 활동 및 주제를 발굴하는 프로그램으로 사회적 이슈 및 지역의 문제를 발굴하고 공동과제를 모색해보는 주민활동과 주민들의 자유로운 모임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한다. 주민모임, 주민창작자율기획 등이 포함된다.

함께·나눔

공동작업을 통해 마을의 주민들이 직접 필요한 물건들을 만들거나, 기존 프로젝트 활동의 내용을 발표한다. 이러한 자리는 마을의 공론장으로 위치하며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낸다.



“도서관이 마을 밖으로 나가면 어떻게 될까?”

마을in수다

2016년 성북문화재단은 앞으로의 성북구립도서관 운영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도서관 밖으로 나가보기로 했다. 도서관 내부 분석에 더해 진정한 마을 도서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모습을 상상했다. 대출, 자료제공에서 나아가 마을정보플랫폼, 시민운동으로서의 독서운동, 지역밀착형 도서관정보서비스 강화 등으로 운영방향을 잡으며 조금씩 일상의 변화를 시작했다. 기존의 관점에서 벗어나 도서관의 새로운 지향점으로 '일상성', '지역성',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했다.

이런 도서관의 변화에 맞춰 새로운 도서관 사업을 기획하고, 그 결과 탄생한 것이 바로 '성북구립도서관 마을in수다'이다. 이제까지 도서관 프로그램은 함께 책을 읽거나, 작가를 만나거나, 글을 쓰는 프로그램들이었다. 하지만 성북구립도서관은 전혀 다른 도서관의 모습을 제안했다. 도서관이 가진 정보라는 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지역의 현안을 함께 이야기하고 고민하며 실천방안을 찾는 역동적인 도서관을 상상했다. 이 과정에 함께 하는 주민들은 자연스럽게 마을민주주의를 체험하고, 새로운 도서관의 역할을 체험할 수 있었다.

<마을in수다>는 도서관 자료실 안에서 이뤄졌다. 세미나실이 아닌 자료실 안에서 공론이 벌어지는 새로운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것은 주민뿐만 아니라 사서들에게도 하나의 도전이었다. '<마을in수다>로 열람실 내 소음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라는 안내문을 처음 붙일 때만해도 긴장되고 불안함이 있었다. 하지만 자료실 안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자, 도서관에 방문한 주민이 우연히 함께하게 되면서 우리 마을의 의제에 대해 이야기를 더 넓게 나눌 수 있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시간은 도서관이라는 공간이 홀로 책을 읽는 사유의 공간을 넘어 다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행동을 실천하는 연대의 공간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보이지 않는 문턱이라도 없애는 것이 도서관 공공성의 실현’이라는 말을 자주 들었지만 와 닿지는 않았어요. 이제는 문턱이 낮아졌음을 피부로 느껴요.

‘도서관은 책을 읽는 곳이라고만 생각했어요. 지금은 책 읽기와 다른 방식으로 도서관의 활동에 참여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 새로운 정보를 얻고,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제는 도서관이 우리들에게 오픈된 공간이고 여러 가지 문화활동도 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서 좋아요.

마을in수다 실적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기간	2017.05.~11.	2018.07.~11.	2019.09.~12.	2020.10.~12.	2021. 3.~12.
횟수/인원	10회/336명	6회/267명	5회/293명	22회/215명	7회/221명
참여기관	5개관	6개관	5개관	5개관	7개관
실천그룹	2개	3개	6개	7개	-

마을in수다 포스터



2018 마을in수다



2020 마을in수다



2021 마을in수다

마을in수다



2019 종암동새날도서관 마을in수다 연계 전시



2020 더 마을in수다



2021 정릉도서관 마을in수다

마음을 바로하다

꿈꾸고

성북의 즐거운 동네살이

예술마을만들기

성북예술마을만들기

구분	내용
월곡·장위·석관 예술마을만들기	성북정보도서관 거점 문화·예술 활동 추진
월곡 예술마을만들기	동덕여대, 진각종 등과 협력하여 월곡동 중심 예술 활동 추진
장위 예술마을만들기	장위지역 활성화를 위한 예술마을만들기 추
석관 예술마을만들기	거점공간 활성화를 통한 석관동 인근 예술마을만들기 추진
성북 예술마을만들기	성북 인근지역 연구와 문화사업 추진
삼선 예술마을만들기	삼선 인근지역 연구와 문화사업 추진
미아리고개 예술마을만들기	미아리고개 인근지역 조사연구 모임 및 문화사업 추진
정릉 예술마을만들기	정릉 지역에서 마을을 함께 만드는 공동체예술활동 추진
종암 예술마을만들기	종암 인근지역 마을활동 및 주민커뮤니티 운영

예술마을만들기는 2015년 공유성
북원탁회의와 성북문화재단이 함께
지역에서 워킹그룹을 만들며 시작되
었다. 지역에서 예술가들이 주도적
으로 주민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지역 활동의 새로운 모델을 모색하
고 함께 하는 동네친구들과 지역에
서 지속가능한 문화예술생태계를 만
들어가는 여정을 시작해 보는 것, 그
여정에서 도시라는 공간에서 새로운
삶의 방식들을 찾아가는 것이 예술
마을만들기의 중요한 가치였다.

미아리고개 고가도로 하부 공간을
도시문화재생 공간으로 바꾸어가는
<미인도>프로젝트 워킹그룹과 예
술로 살기 좋은 마을, 주민과 예술가
가 행복한 마을 만들기를 목표로 예
술가와 활동가들이 모임 정릉예술
마을 워킹그룹으로 시작된 예술마
을만들기는 해마다 지역에 워킹그
룹을 만들어가며 성북구 동별로 확
장되었다.

미아리고개 도시재생 공간인 '미인
도'를 재단과 공동운영하며 마을장
터 고개장을 중심으로 다양한 지역
활동을 만들어가는 <아미고친구들
>, 성북정보도서관 지하공간을 주
민들과 함께 극장으로 변화시키고
극장 기반 창작활동과 예술제를 운
영하며 도서관과 마을에 새로운

예술문화들을 만들어가는 <월장석
친구들>, 장위동에서 지역주민들과
함께 하는 '장위별 별걸다해 예술제
마켓'을 펼치는 <개구장위들>를 비
롯 정릉동 <축제재밋당>, 삼선동 <
삼선슬리퍼>, 성북동 <모모모>, 월
곡동 <월간지>, 석관동 <돌고돌아
>, 종암동 <종종걸음>까지 만들어
진 예술마을 커뮤니티들은 각각의
참여 주체와 지역에서 발견되는 특
성들을 반영하여 다양한 지역문화
프로젝트를 실험하고 지속 운영해
오며 각각의 예술마을만의 동네 문
화를 만들어가고 있다.

예술마을 커뮤니티는 매주 1회 정
기모임을 가지며 운영되고 있는데
매주 1회라는 빈도가 생각해보면
매우 잦은 빈도라 생각될 수 있지만
예술마을 커뮤니티는 코로나19 상
황에서도 온오프라인을 병행하며
함께 모이기를 멈추지 않았다. 커뮤
니티가 모이기를 힘쓰는 것, 이 과정
을 통해 참여자들간에 쌓인 일상적
관계와 우정이 예술마을 커뮤니티
로 함께 동네살이를 지속해 나갈 수
있는 가장 큰 동력이지 않을까 생각
한다. 그리고 지속된 모임 속에서 꿈
임없이 함께 우리들의 활동과 삶에
대해 질문하고 고민하며 답했던 것
들이 동네 현장에서 다양한 방식의
문화예술로 펼쳐지며 각 예술마을의
정체성을 찾아갈 수 있었던 것 같다.

처음 각 예술마을들이 정체성들을
찾아가고 자리 잡아 가는 동안에는
지역 예술마을 활동에 집중했다면
2018년부터는 전체 예술마을 커뮤
니티가 모이는 연석회의를 시작하
며 예술마을 재단 담당자와 각 예술
마을 민간 코디네이터가 함께 협력
하는 거버넌스를 꾸려갔다. 매월 한
번씩 연석회의를 통해 서로의 활동
을 공유하고 예술마을 사업들에 대
한 전반적 부분들을 함께 기획하고
논의하는 구조로 운영되며 예술마
을 협력 거버넌스로 중요한 역할을
자리매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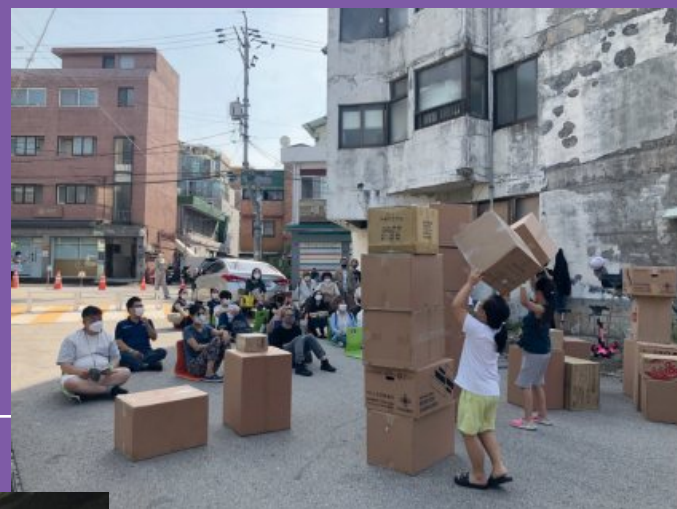
예술마을 커뮤니티들은 다년간 지
역에서 활동을 이어가며 자체적인
민간 단체의 형태의 모습을 갖추기
도 하였다. 미아리고개 예술마을은
2017년 협동조합 고개엔마을을 설
립하며 재단과 미인도 공동 운영 파
트너로 협력하고 있고 장위예술마
을은 2020년에 협동조합 개구장위
들을 설립하며 지역 내 자립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이와 같은 모
습 속에는 예술마을 커뮤니티의 활
동이 단순 활동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서 우리의 활동을 통
해서 지속적으로 함께 일할 수 있는
삶의 기반들을 만들어가고자 하는
고민들이 담겨져 있다.

예술마을 만들기가 시작되고 어느
덧 8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왔다. 주
민으로서의 예술가, 지역에서의 새
로운 삶의 방식, 지속가능한 문화예
술 커뮤니티에 대해 고민하며 실현
하기 위해 함께 한 동료들이 있었기
에 예술마을의 동네살이는 계속 될
수 있었고 어느덧 예술마을 만들기
의 모습들은 동네 곳곳에서 발견되
어 지고 있다. 이 후로도 계속 되어
질 예술마을의 즐거운 동네살이를
기대해본다.

2014	- 미아리고개 재생 프로젝트 <미인도> 진행
2015	- 미아리고개 예술마을 <아름다운미아리고개친구들> 워킹그룹 시작 - 정릉예술마을 <정릉친구들> 워킹그룹 시작, 정릉예술마을만들기 축제 운영
2016	- 월장석예술마을 <월장석친구들> 워킹그룹 시작 - 미아리고개 예술마을 축제 미소활짝(마을장터 '고개장' 전신) 개최 - 성북동 예술마을 <모모모> 워킹 그룹 시작 - 정릉 예술마을 <굿바이스카이 아파트> 프로젝트 운영
2017	- 장위예술마을 <개구장위들> 워킹그룹 시작, 장위부마축제 개최 - 월곡예술마을 <월간지> 워킹그룹 시작, 월곡달빛축제 개최 - 석관예술마을 <석관드림> 워킹그룹 시작, 의릉문화축제 개최 - 삼선예술마을 <삼선슬리퍼> 워킹그룹 시작 - 미아리고개 예술마을 협동조합 고개엔마을 설립 - 미아리고개 예술마을 마을장터 고개장 개최 - 협동조합 고개엔마을과 성북문화재단 미인도 공동운영 협약 - 월장석예술마을 성북정보도서관 아티스트마켓 월장석 방방방 개최 - 정릉예술마을 정릉 더하기 축제 개최
2018	- 종암예술마을 <종종걸음> 워킹그룹 시작 - 월장석예술마을 천장산우화극장 개관 및 월장석예술제 개최 - 미아리고개 예술마을 마을장터 고개장 운영 - 정릉예술마을 정릉 더하기 축제 운영 - 월곡예술마을 월곡동 정기마켓 달달마당 개최 - 장위예술마을 예술제 마켓 장위별 별걸다해 개최 - 석관예술마을 주민참여 쿠킹클래스 돌곶이레시피 운영 - 삼선예술마을 삼선슬리퍼 일일사진스튜디오 <누가 있나요?> 운영 - 성북예술마을 연석회의 거버넌스 운영
2019	- 월장석예술마을 월장석 방방방, 월장석 예술제 운영 - 미아리고개예술마을 마을장터 고개장 운영 - 정릉예술마을 정릉 더하기 축제 운영 - 월곡예술마을 달달한 월곡이야기:언젠가 월곡 운영 - 장위예술마을 예술제 마켓 장위별 별걸다해 운영 - 석관예술마을 재능공유워크숍 돌고도는 공유재 운영 - 종암예술마을 친환경 이야기상자:종종그린북 운영 - 성북예술마을 EXPO 개최 - 성북예술마을 연석회의 거버넌스 운영
2020	- 월장석예술마을 월장석 방방방, 천장산우화예술제 운영 - 월장석예술마을 천장산우화극장 서서히학교 운영 - 미아리고개예술마을 마을장터 고개장, 미아리고개 마을전시 운영 - 정릉예술마을 정릉 더하기 축제 운영 - 성북예술마을 모모모 동네배움 운영 - 월곡예술마을 아이디 플랜트 운영 - 장위예술마을 예술제 마켓 장위별 별걸다해 운영 - 석관예술마을 재능공유워크숍 돌고도는 공유재 운영 - 종암예술마을 지역 아카이빙 어떤 종암 발간 - 성북예술마을 EXPO 운영 - 성북예술마을 연석회의 거버넌스 운영
2021	- 월장석예술마을 천장산우화예술제, 서서히학교 운영 - 미아리고개예술마을 마을장터 고개장, 미아리고개 마을전시 운영 - 정릉예술마을 정릉 더하기 축제 운영 - 성북예술마을 모모모 동네배움,비평,상회,기록 운영 - 월곡예술마을 언젠가월곡, 성북괴담문학상 운영 - 장위예술마을 예술제 마켓 장위별 별걸다해 운영 - 석관예술마을 재능공유워크숍 돌고도는 공유재 운영 - 종암예술마을 지역 아카이빙 어떤 종암 발간 - 성북예술마을 성북예마 동네곳곳 운영 - 성북예술마을 연석회의 거버넌스 운영



[미아리고개예술마을] 마을장터 고개장



[월장석예술마을] 천장산우화예술제



성북예술마을 연석회의



성북예술마을 EXPO

마음을 바로하다 꿈꾸고

지역을 바꾸는 새로운 실험

나만의 생업만들기 - 창업공작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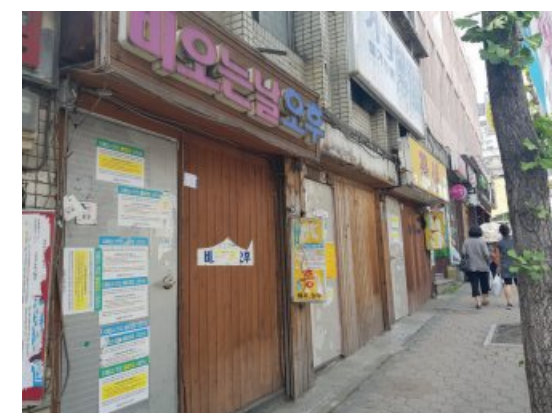
성북구 삼양로의 거리풍경

성북구 삼양로에는 맥주와 양주를 파는 술집으로 가장해 불법영업하는 일명 '맥양집'들이 즐비해 있다. 인근에는 미아초등학교와 중고생들이 다니는 학원들이 같이 있는 거리이기도 하다.

유흥업소와 초등학교 시설이 얼마 안되는 거리에 공존하고 있는 아이러니한 거리이다.

20~30년간 맥양집들이 영업해오던 오래된 건물과 좁은 골목, 계단을 보면 개발이 빚겨간 거리로, 시간이 멈춰 있는 듯 한 풍경이다.

성북구 삼양로는 맥양집들을 찾는 사람들이 다닐 뿐 주민들은 그 길을 외면하고 먼 거리로 돌아가는 일상에서의 불편을 가지고 있었고, 학원들도 버스를 이용해 오가는 학생들 뿐 삼양로 거리는 사람들의 찾지 않는 거리가 되었다.





주민들이 바라는 삼양로의 풍경

아이들이 안전하게 지나다닐 수 있는 거리,
길음역에서 10번 출구로 돌아가지 않고 7번 출구로 다닐 수 있기,
청년창업거리가 조성되어 가족과 함께 맛있는 먹거리를 즐길 수 있는 거리,
등하교길에 배움에 길이 되는 거리,
맥양집 하루빨리 없어지길

삼양로를 지날때마다 조금씩 변화하는 상점을 바라보며 우리가 바라는 거리가 되길

초등학교 주변 유해환경 해결을 바라는 주민들의 마음이 모여져 성북구 삼양로 거리를 바꾸는 첫 출발이 되었다. 2018년 민선 7기 시작과 함께 성북구보건소-주민-경찰 단속TF를 구성하여 불법유해업소 근절을 목표로 지속적이고 집중적인 단속과 업종 변경을 유도하고 「불법 유해업소 퇴출」주민과 함께 만들어갑니다.라는 문구의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의 노력으로 37개 소중 20개소가 폐업 또는 업종 변경을 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청년문화와 청년창업을 통한 새로운 풍경

불법영업으로 폐업한 공간에 또 다른 불법유해업소가 들어서는 고질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성북구와 문화재단은 청년창업일자리 사업을 통한 도시재생과 주변상권 살리기에 나섰다.
청년문화와 청년창업이라는 화두로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공모사업으로 예산을 마련하였고, 예비창업팀 선발을 통해 창업 컨설팅, 인큐베이팅 과정을 거쳐 맥양집 폐업공간을 청년창업공간으로 재탄생 했다.

공간 조성이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수십년된 건물이라 구조적 문제와 복잡한 소유권 등 문제가 많았지만 건물주를 설득과정을 통해 임대차 계약을 마무리 하였고, 인테리어 과정의 문제들 등 지난한 과정들을 거쳐서 지금의 청년공간들이 탄생하게 되었다.
2019~2020년 예비창업팀 6팀이 선발되어 공간임대지원, 인테리어 등의 지원은 물론 세무행정, 법인행정 등 창업 기초실무 교육지원, 창업팀별 맞춤형 브랜딩 개발 및 마케팅 홍보 지원을 하였다.

청년창업 개업을 축하하고 청년창업거리를 알리는 자리로 지역주민, 청년창업가, 예술가들이 참여하는 '두근두근 별길마켓' 거리축제를 진행하였다. 단순한 수공예품을 파는 거리마켓과는 달리 문화프로그램과 먹거리, 체험부스, 공연 등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축제를 풍성하게 하였고, 축제를 참여하는 주민들로 삼양로 800m 거리 가득 메워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풍경이 연출되었고, 주민들이 바라는 삼양로 거리를 선사할 수 있었다.



길음 청년 점포 창업

구분	상호명	업종	창업일
1호점	낭만뽕밥	요식업	2019.07.
2호점	불나방	갤러리	2019.09.
3호점	위에서 온 족발	요식업	2021.07.
4호점	세화영어서점	영어원서서점	2020.11.
5호점	한술식당	요식업	2020.11.
6호점	사가	갤러리	2020.11.



코로나19 시작과 사회적거리두기로 두근두근 별길마켓은 잠시 쉬어가게 되었지만 청년창업가에게는 어려운 상황속에서도 어떻게 하면 고객들을 맛있게 만날 수 있을지, 더 성장할 수 있을지 끊임없는 고민을 하고 있었다. 청년가게 4호점 '세화영어서점'은 운영자인 박세화의 이름을 내걸고 가치 있는 책들과 북클럽, 소규모 음악회 등 자유로운 소통의 공간 '삼양로 사람방'으로 채워나가고 있다. 청년가게 6호점 '사가'는 전승된 이야기, 규모가 큰 서사의 단위, 연대기를 뜻의 의미로, 크고 작은 서사들이 모이고 흩여지는 전시장소로 다양한 전시들을 통해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해 나아가고 있다.

청년가게 5호점 '한술식당'은 지역에서 받은 도움을 나누고 싶다는 마음에 용기를 내었고 코로나19 최전선에서 고생하는 의료진에게 따뜻한 뽕밥 기부를 시작으로 결식아동, 선별진료소 등에 도시락 기부를 이어가고 있다. 청년창업 지원으로 빨리 자리잡을 수 있었고 받은 혜택을 나눠주고 싶다는 생각에 나눌수록 마음이 채워진다고 했다. 한술식당의 도시락 기부는 나눔의 선순환을 통해 지역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청년창업 지원을 통해 뽕밥가게, 갤러리, 영어서점 등 청년창업가게는 1~6호점까지 개업을 하였고, 청년창업은 지역변화의 시작이자 다음 단계의 가능성을 보여준 계기가 되었다.
두근두근 별길마켓과 청년창업거리 선포식을 통해 '문화로 숨 쉬는 거리', '가족이 함께 걷고 싶은 거리'로 삼양로 거리의 변화를 알리고, 문화예술과 청년들의 도전이 가득 찬 청년창업거리로 지속적인 변화를 만들어 갈 것이다.

2019

4.12.~4.22	예비창업팀 모집 공고
5.16	예비창업팀 선발 (3개팀)
7.7	청년창업가게 1호점 한술식당
7.7	제1회 두근두근별길마켓 *참여인원 13,616명
9.21~9.30	예비창업팀 추가모집 공고
9.25	청년창업가게 2호점 불나방
10.6	제2회 두근두근별길마켓 *참여인원 11,228명
10.15	예비창업팀 추가선발 (1개팀)

2020

1.15	청년창업가게 3호점 위에서온족발
4.1~5.6	예비창업자 모집 공고
5.22	예비창업팀 선발 (3개팀)
6.~12	창업 공통교육 (기본 세무행정, 창업공간컨설팅, 법인행정 기초 실무)
6.~12	창업 인큐베이팅 (창업 공간 인테리어 지원, 브랜딩 및 디자인 개발, 마케팅 및 홍보)
8.16	지역가게 협력마켓 <일일장×별길마켓> 1회차 *참여인원 227명
9.~12.	삼양로는 대학 주민공동체 프로젝트
9.~12.	삼양로 일대 아카이브 & 맵핑 프로젝트
9.~12.	삼양로 일대 거리환경 개선 프로젝트
11.14	청년창업가게 4호점 세화영어서점
11.20	청년창업가게 5호점 한술식당
11.22	지역가게 협력마켓 <일일장×별길마켓> 2회차 *참여인원 267명
11.22	청년창업가게 6호점 사가

2021

11.6.~11.7.	두근두근별길마켓
11.7	*참여인원 6,430명 (1일 3,181명, 2일3,249명) 청년창업거리 선포식



마음을 바로하다 꿈꾸고

청년창업의 자유로운 실험공간

청년창업실험공간 팝업스토어 공업사

삼양로 청년창업거리에 2022년 오픈한 공업사는 성북구에서 활동하고자 하는 청년들의 창업과 사이드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팝업스토어다. 오프라인 점포 창업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임대료와 공간 상주 등의 현실적 어려움에서 자유로운 '팝업스토어' 공간 지원을 통해 2주에서 2개월까지 유연하게 사용 가능한 새로운 개념의 창업 지원 방법이기도 하다.

성북문화재단은 <공업사>를 '공동체 일하는 공간(功業社)', '함께 일하는 공간(共業社)', '아무 것도 없던 것에서 새로운 일을 수면 위로 올리는 공간(0up社)', 비움과 채움을 반복하는 팝업 공간, 상품과 콘텐츠를

담아낼 수 있는 빈 그릇의 공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실험 가능한 공간 등 다양한 뜻을 지닌 청년창업 실험공간으로 브랜딩했다.

통창과 숲이 보이는 창문이 매력적인 <공업사>는 판매 공간인 팝업존과 교육 등 각종 프로그램이나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존으로 나뉘어 있다.

청년들은 <공업사> 공간을 통해 혼자서만 생각했던 창업 아이템을 창업으로 연결해 보거나, 취미생활로 제작한 물품을 판매해볼 수도 있으며, 온라인에서 판매하던 제품의 오프라인 반응을 살펴볼 수도 있고, 공간이 부족해 운영하지 못한 프로그램을 진행해볼 수도 있다. 성북구

청년이라면 누구나 <공업사> 인스타그램을 통해 자유롭게 참여 신청을 할 수 있고, 패션잡화, 홈/리빙, 의류, 출판물, 수공예품 등 상품 판매나 전시 및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수 있다.

성북문화재단은 앞으로도 길음청년창업거리를 활성화시키고, <공업사>와 같은 새로운 시도를 통해 청년들의 다양한 실험을 지원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collettehr-업서전'



공업사 8월



공업사 <일상의 기술>



공업사 전경

월별 테마 및 참여팀

8월(나만의 것을 만드는 일상의 기술) : 총 5팀(에피소드아트스튜디오, 종종스튜디오, 프랭크서클, 키후위키)
9월(나를 빛나게 하는 일상의 기술) : 총 5팀(수풀림, 오늘날, 종종스튜디오, 콤팩트, 컴포트타운)

진행 워크숍

*편지쓰기 워크숍

-가을밤을 기다리는 편지(나혜린) : 8.4 13:30
-처음 보는 사람에게 편지쓰기(문보영) : 8.5 19:00

*미래는 어떻게 워크숍-살맛나게 살았으면 좋겠어:마법수프 만들기(with 성북청년시민모교지) : 9.20 19:00

*내가 노인이 된다는 상상- 늙는 것을 긍정하기 : 10.7 19:00

*나만의 향수 만들기 - 10.8 16:00, 10.9 15:00, 17:00

전시

COLLETTEHR-업서전(소장품 전시, 업서 마켓 등) : 8.1~8.7

공업사 : 서울 성북구 삼양로 41, 1층(길음역 7번 출구 도보 5분)
https://www.instagram.com/gong_up_sa

성북문화재단 수상실적

2018

세계지방정부연합(UCLG) 국제문화상 수상
- 성북형 문화협치 거버넌스 공유성북

2018년 예술경영지원센터 예술경영우수사례
- 성북문화공간 협치운영(미인도, 미아리고개예술극장)

2018년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표창
- 도서관운영분야 '성북구립도서관'

2019

행정안전부 제6회 지방자치단체 생산성대상 우수사례(문화복지분야)
- 2위 KPC회장상 '성북구 예술마을만들기 - 동별 친구들'

2019년 전국 기초자치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 문화협치, 성북예술마을 만들기



2020

대한민국 공공건축상 우수상
- 성북구립 최만린미술관

전국 기초자치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 문화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협력과 공생의 플랫폼, 성북문화재단

동아연극상
- 우리는 농담이(아니)야/ 작품상, 연출상, 연기상, 유인촌신인연기상 수상

예술경영주간 예술경영대상
- 성북문화재단 후원사업 '나눔풍성' 우수사례

2021

백상예술대상
- 우리는 농담이(아니)야/ 백상연극상, 남자연기상 2개 부문 수상

2021년 제4차 문화도시 예비사업 선정
- 삶과 문화의 순환도시, 성북

2022

평택국제영화제
- '천장산 산신제' 다큐멘터리상 수상

300여명의 정기후원자와 함께

나눔풍성 후원

성북문화재단 출범 이후, 지역의 기초문화재단으로서 기초자치단체의 출연금에 의존하는 구조를 벗어나고자 하는 시도의 일환으로 '나눔풍성' 후원이 계획되었다. 이는 독립적이고 자주적인 형태의 예산확보를 통해 주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사업들과 지속성이 확보된 활동을 펼치고자 함이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성북의 문화예술인, 주민공동체와 함께 후원이라는 플랫폼을 통해 지역문화를 활성화하는 문화재단의 정체성을 강화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었다.

지정기부금단체 지정(2012), 전문예술법인 인가(2017) 공익법인 지정(2021) 등 적극적인 모금활동을 위한 자격요건을 갖추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다. '지역 문화예술발전'에 대한 후원을 통해 나눔으로 풍성해지다'는 의미를 담은 '나눔풍성'을 브랜드화 하고 현재까지 꾸준히 300여명의 정기후원자를 유지해오고있다. 그리고 '꿈의 오케스트라 성북'을 비롯하여 문화다양성 프로그램과 장애청소년 문화예술교육 등 출연금만으로 유지하기 어려웠던 사업들을 후원 사업을 통해 운영할 수 있었다.

<나눔풍성>은 지역주민, 문화예술인, 지역소상공인들의 후원을 통해 지역의 문화예술 사업을 운영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간 여타 비영리단체의 후원에서 후원자와 수혜자가 나누어졌던 것에 비해 <나눔풍성>은 후원자, 참여자, 수혜자가 같은 역할을 하는 지역문화예술생태계의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나눔풍성>은 타 문화재단들의 벤치마킹 사례가 되기도 하고, 다양한 우수사례로 소개되었다. (2020년 예술경영대상 우수사례 등)

그동안 꾸준한 개인 정기후원을 바탕으로 후원금 사업을 이어왔고, 지역단체들의 후원 또한 큰 힘이 되어왔다.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기관이라는 한계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시도이자 지역 문화예술 공동체의 플랫폼 역할로서 성북문화재단의 <나눔풍성>은 계속 이어질 예정이다. 이를 통해 주민들의 후원이 지역의 문화소외계층들에게 돌아가고, 지역 문화예술인들이 사업의 참여자로 실행하는 구조가 지속될 것이다.

'나눔풍성' 후원



지역어르신을 위한 나눔공연
<온누리 가을 음악회>



2018 성북세계음식축제 누리마실



2018 유럽단편영화제



미술로 요리하는 시간
<달콤트리아트랩>



장애청소년 기악발표회
<작은 하모니>



2019 장애청소년 문화예술교육



2020 예술경영 우수사례



2020 비대면 장애청소년
문화예술교육



2020 성북세계음식축제 누리마실



지역성을 가진 청소년
<축제로 자라자>



2021 장애청소년 문화예술교육



2021 성북세계음식축제 누리마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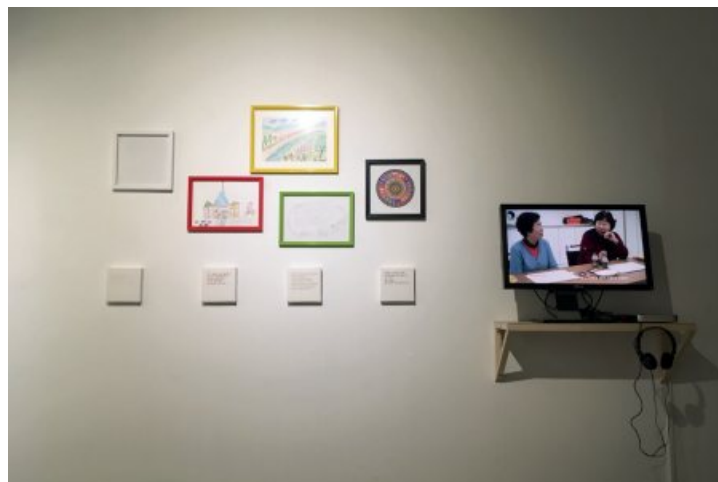
마음을 바로하다 지키고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펼쳐내는 예술가들

이야기청

사업 스토리

2026년에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될 만큼 대한민국은 현재 지구에서 가장 빠르고 압축적으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어 노인인구가 늘어나는 만큼 노인을 복지 서비스의 대상으로만 간주하지 않고 하나의 사회적인 주체로 인식하고 존중해야 하는 시대가 되었다. 이에 가장 실질적인 대안이자 사회적인 안전망으로서 '지역사회에서 늙어가기'가 대두되어 지역사회 안에서의 노인을 주목하고, 노인-청년 세대 간 교류를 통해 노인과 청년을 각각의 사회적 주체로 인식하는 활동의 필요로 2017년 '노인들의 이야기집' 사업이 시작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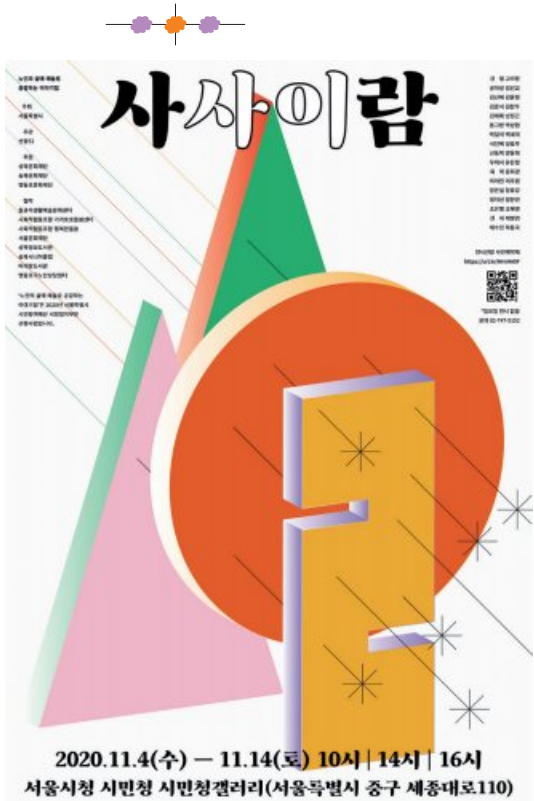
사업의 확장

당초 보조금 사업으로 시작하여 현재는 성북문화재단 출연금 사업으로 사업의 지속성을 강화했으며, 노인-청년 세대 간 교류와 함께하는 예술 활동을 통해 본 활동을 세대사의 공감과 통합의 장으로 재구성했다.

2017년 '노인들의 이야기집' 사업을 시작으로 2022년 6년차에 접어드는 '이야기청 프로젝트' 사업은 지역 거점 공간을 중심으로 운영하면서 다양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노인들의 이야기집'이라는 이름으로 2017년에는 성북구 노인커뮤니티와 청년예술가들의 네트워크를 조직하여 다양한 삶의 기록들을 새로운 문화콘텐츠로 창출했고, 2018년에는 거점공간(성북구립도서관, 돌곶이생활문화예술센터)를 중심으로 노인들의 이야기를 청년예술가들이 듣고 기록하여 새로운 역사 아카이빙 및 콘텐츠를 창출하였다.



2019-2020년은 서울시 시민참여 예산을 통해 기존에 이야기청 프로젝트 진행했던 성북구 뿐 아니라 영등포구, 송파구까지 사업 범위를 확대하여 각 자치구의 거점공간을 중심으로 노인들의 이야기를 청년예술클럽들이 듣고 기록하여 전시 및 퍼포먼스의 형태로 콘텐츠를 시민들과 공유했다. 지역 노인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 사례 공유 워크숍을 진행하고 <사사이람> 서울시청 시민청 전시를 통해 성북구, 영등포구, 송파구 통합 전시를 운영했으며, 성북구에서는 돌곶이생활예술문화센터에서 <숨속임> 전시를 진행했다.



2021년에는 후원금을 통해 성북구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노인예술가들의 이야기를 청년예술클럽들이 듣고 기록하여 다양한 형태의 새로운 역사 아카이빙 및 콘텐츠를 창출했는데, <시간이 이렇게 흘렀는지도 모르고> 전시를 아리랑도서관과 성북정보도서관에서 열고 <끝없는 끝말잇기> 전시를 성북예술창작터에서 열어 많은 주민들과 함께 했다.



사업의 가치

노인의 개인적·사회적 존엄을 회복하고, 노인들의 사회 참여적 예술 활동을 통해 세대 간의 공감과 통합의 장을 구성한다.

사업의 앞으로 방향성

2022년부터 성북문화재단의 본 예산 사업으로 편성되었으며, 도서관 기획팀에서 사업을 운영하게 되어 성북구립도서관을 거점공간으로 공간을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었다.

관람객 수(명)

2017	2018	2019	2020	2021
1,110	1,210	1,200	2,000	4,659



마음을 바로하다 지키고

시켜줘, 마을 보안관!

방역지원 활동

성북문화재단은 코로나19가 발생하자 문화재단의 역할을 확장시켰다. 지역주민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펼치며 문화예술의 보급을 넘어선 주민들에게 든든한 동반자의 위치로 자리했다. 그 시작은 우선 재단에서 운영하는 문화시설들의 철저한 방역과 관리였다.



임시휴관 - 부분 재개관 - 임시휴관 - 부분 재개관을 반복하면서도 조금이라도 주민들이 안전하게 문화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를 지속적으로 재단의 여러 홍보채널을 통해 알렸으며 그로 인해 문화시설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였다. 또한 성북구와 서울시의 여러 거리두기 지침들을 지속적으로 주민들에게 전달하였으며, 재단 직원들을 대상으로 선제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하고 백신 접종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성북구청과 보건소의 여러 업무들을 재단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 지원활동을 펼쳤다. 서울시 긴급생활비 관련 업무 지원을 시작으로 자가격리자에게 자가검사키트를 전달하였으며 임시선별검사소 업무 지원을 진행하였다. 그렇게 현장에 지원을 나간 인력이 누적으로 2천여명에 달했다. 코로나19가 조금 잠잠해지던 시기에는 선별진료소에서 재단 직원을 알아 본 주민들에게 응원과 감사의 인사를 듣기도 하면서 우리들은 서로를 지켜나가는 시간을 가졌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에 따른 시설운영 대응

1차 임시휴관

- 휴관기간 : 2020.02.07. ~ 07.20. (약 6개월)
- 자체 방역소독 진행(28개 시설)
- 스마트도서관(2개소), 안심도서 대출서비스
- 소장 도서 소독 등 지속적 살균청소

1차 부분 재개관

- 부분 재개관기간 : 2020.07.21.(시설별 상이) ~ 8.25. (1개월)
- 전 사업장 전자출입명부(QR코드) 시행
- 열화상카메라(얼굴인식 스캐닝) 설치

2차 임시휴관

- 휴관기간 : 2020.08.16. ~ 10.05. (약 2개월)
- 공공 문화시설 운영중단 및 임시직원 재택근무 추진
- 스마트도서관(2개소), 안심도서 대출서비스

2차 부분 재개관

- 부분 재개관기간 : 2020.10.06. ~ 2020.12.04. (2개월)
- 성북정보도서관, 아리랑도서관 야간연장 운영(10.16.부터 20시까지)

3차 임시휴관

- 휴관기간 : 2020.12.05. ~ 2021.01.18. (약 1개월)
- 전사업장 운영 중단, 도서관 비대면 서비스 제공
- 스마트도서관(2개소), 안심도서 대출서비스
- 문화 콘텐츠 제작 활동은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계속 진행

3차 재개관

- 재개관일자 : 2021.01.19.
- 스마트도서관 운영

안심콜 출입관리 서비스 도입

- 도입목적 : 확진자 발생 시 감염원의 원활한 추적 및 이용객 편의성 제고
- 도입대상 : 문화재단 시설 전체
- 도입일자 : 2021.09.30.

방역패스 적용 운영

- 적용기간 : 2021.12.06. ~ 2022.01.17. (2개월)
- 적용대상 : 문화재단 시설 전체
- ※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 국내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 등의 이용을 제한하는 조치

방역패스 해제에 따른 시설 방역관리 강화 운영

- 적용기간 : 2022.02.07. ~ 04.17. (약 2개월)
- 적용내용 : 사전예약제 운영, 좌석 띄어앉기, 방역수칙 준수 확인 등



대응실적 및 우수사례
주민대상 안내문자 발송
- 기간 : 2020.03.18. ~ 03.19. (2일간) - 성북구 마스크 및 방역장비 대여 관련 안내사항 - 문화재단 회원 579명(동아리 100명, 한책추진단 479명)
성북구 '잠시멈춤' 추진전략 이행
- 1회차(2020.04.01. ~ 04.08.), 2회차(04.09. ~ 04.19.) - 시차 출근제 시행 - 재단 가족돌봄 휴가제도 시행 -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한 전직원 재택근무(필수인력 제외)
문화재단 임직원 전체 코로나19 선제검사 시행
- 기간 : 2021.01.04. ~ 01.17. (2주간) - 대상 : 재단 임직원 전체 - 내용 : 적극 선제검사를 실시하여 코로나19 감염여부 확인 - 결과 : 전체 음성(재단 소속 임직원)
코로나19 방역대응 및 관리 특별점검(1차)
- 점검기간 : 2021.05.17. ~ 05.28. (2주간) - 점검대상 : 성북문화재단 전체 시설물 - 점검내용 : 방역수칙 준수여부(기본방역 유지 및 조치 상태)
코로나19 방역대응 및 관리 특별점검(2차)
- 점검기간 : 2021.07.13. ~ 07.23. (2주간) - 점검대상 : 성북문화재단 전체 시설물 - 점검내용 : 방역수칙 준수여부, 다중이용시설 방역위험도 평가
2021년 하절기 특별방역주간 운영
- 방역대상 : 재단 운영시설 및 인근 지역 - 방역기간 : 2021.08.09. ~ 09.30. (2개월간) - 방역내용 : 직원참여형 자율 방역소독 실시 - 방역실적 : 총 24일간 182명 참여('21.9.10.기준)
성북문화재단 코로나19 방역단 구성
- 운영기간 : 2021.08. ~ 코로나19 감염병 종식 시까지 운영 - 운영형태 : 주1회 단위 운영(방역 등) - 방역방법 : 일상방역/지역협력방역/특별방역
확진자 급증에 따른 특별방역점검
- 점검대상 : 재단 전체 사업장(총 35개소) - 점검기간 : 2021.12.01. ~ 12.17. (2주간) - 점검내용 : 시설 방역수칙 준수여부, 다중이용시설 방역위험도 평가
코로나19 관련 재단 내부운영 대응
-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유증상자 복무지침 수립



방역지원 (코로나19 이후, 진행 된 재단의 코로나19 관련 현장지원 현황)
성북구청 업무지원
- 지원내용 : 코로나19 감염병 관련 행정업무 지원(확진자 격리 지원 등) - 지원인원 : 10명 - 지원일자 : 2020.04.05.
주민센터 인력 지원
- 지원내용 : 서울시 긴급생활비 관련 업무 지원 - 지원회차 : 총 2회 - 지원인원 : 총 80명 (1차 30명, 2차 50명) - 지원기간 : 2020.04.16. ~ 04.17. (2일) / 04.20. ~ 04.24. (5일)
보건소 업무지원
- 지원내용 : 자가격리자에게 자가검사키트 전달 - 지원장소 : 성북구 보건소 및 성북구 일대 - 지원회차 : 총 3회 - 지원인원 : 총 25명
성북구 코로나19 석계역 임시선별검사소 업무 지원
- 지원내용 : 코로나19 검사 업무 지원(응대 및 행정업무) - 지원인원 : 총 444명 - 지원기간 : 2020.12.21. ~ 2021.02.14. (2개월간) - 지원장소 : 서울특별시 민방위교육장 내 주차장 (성북구 화랑로 376)
백신 예방접종 대응추진단 상담콜센터 지원인력 파견
- 지원기간 : 2021.03.29. ~ 04.13. (2주간) - 지원장소 : 성북구청 3층 정보화교육장 - 지원업무 : 코로나19 예방접종 상담 및 안내 - 지원인원 : 총 4명
성북구 코로나19 예방접종 제2센터 (백신센터) 업무지원
- 지원내용 : 코로나19 검사 업무 지원(응대 및 행정업무) - 지원인원 : 총 315명 - 지원기간 : 2021.07.05. ~ 10.29. (4개월)
성북구 코로나19 길음역 임시선별검사소 업무지원
- 지원내용 :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 업무 지원(응대 및 행정업무 등) - 지원인원 : 총 493명 - 지원기간 : 2022.01.01. ~ 2022.04.30. (4개월) - 지원장소 : 길음 어울림마당 임시선별검사소 (성북구 동소문로 248-1)



할많하일(할 말은 많고 하고 일할래~)

재단 출범 10주년 직원간담회



일 시 2022.07.22.(금)/ 19:00 ~ 21:00

장 소 청년살이발전소

참 석 자 조르디(10년) / 말티즈(2달) / 사슴(5년) / 범고래(1년 6개월) / 기린(4년) /
펭귄(4년) / 햄스터(5년) / 땡땡이(4년) / 야옹이(10년) / 팬더(6년) / 두루미 (9년)

성북문화재단은 출범 10주년을 맞이하여 다양한 연차와 여러 부서의 직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 간담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서로간의 교류가 많이 사라진 시기에 이루어진 이번 간담회는 그간 우리들이 놓치고 있었던 서로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재단의 직원들이 말하는 성북문화재단. 과연 그 결론은 무엇이었을까요?

- 자신이 좋아하는 동물로 이름을 표기하였습니다.

두루미 출범 10주년을 맞이하여 마련된 간담회에 참석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시작하는 의미로 모두 돌아가면서 간단한 자기소개와 내가 재단에 입사한 계기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조르디 저는 올해로 입사 10년이 되었습니다. 아리랑시네센터를 비롯해서 미술팀, 청소년문화공유센터, 문화정책팀, 그리고 지금의 지역문화팀까지 다양한 부서를 경험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리랑시네센터에서 계약직으로 일을 했는데, 중간에 공간 리모델링으로 본부에서 업무를 경험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당시에 본부에서는 '문화다양성 축제'를 준비하느라고 정신이 없었고, 모두가 엄청 많이 바빠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잡다한 일이라도 덜어주고자 '모두들 복사는 저에게 주세요!'라고 외친 것이 제가 지금까지 재단에서 일하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말티즈 저는 이제 입사 2달이 된 신입입니다. 연기를 전공했고, 예술강사의 경험이 있습니다. 예술강사로 활동하면서 문화재단을 알게 되었고 당시 수업을 나가던 곳을 담당하던 주임이 예술강사 출신이어서 추천을 받았습니다. 대학원 교수님께서 '지역문화는 성북이 선도하는 중'이라는 말을 하셔서 이곳에 관심을 가졌고,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사슴 저는 조금 복잡한데 2014년에 입사를 했다가 17년에 몸이 안 좋아져 퇴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공공기관과 민간에서 일을 하다가 2달전부터 다시 성북문화재단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14년에 문화다양성과 공공미술 관련 사업을 성북문화재단에서 진행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연수단원으로 첫 시작을 하게 된 것이 인연의 시작입니다.

범고래 이제 입사한지 1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원래는 제가 아니라 여자친구가 재단에서 일을 하고 싶어 했고, 당시 성북에서 안정적인 직장을 찾던 저에게도 추천해 주어 함께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여자친구는 떨어지고 저 혼자 성북문화재단에서 1년 6개월째 일하는 중입니다.

기린 저는 4년째 성북구립도서관에서 근무중입니다. 성북문화재단에 입사 전에 다른 도서관들에서 경험을 쌓았는데, 너무 과하게 공공복지에 대한 사명감을 요구한다는 느낌을 받아 힘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성북문화재단의 이진우 도서관부장님을 알게 되었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성북구립도서관의 미션과 비전을 듣고 꼭 함께 일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성북문화재단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펍권 처음 재단에서 일한건 휴직대체 자리였습니다. 계약 기간이 끝나면 스위스로 떠나려고 티켓까지 구매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가 시작되면서 스위스로 가는 것이 힘들어졌고, 당시 성북에서 일하면서 만난 좋은 사람들과 인연을 계속 이어나가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다시 재단에 지원했습니다.

햄스터 부모님이 성북에서 오래 사셨고, 어린시절도 성북에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성북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재단에 입사할 때 두 가지의 선택지가 있었는데, 어쩐지 마음이 편해지는 성북을 선택했고 그게 5년 전이었습니다.

댕댕이 성북구 토박이로 성북에서 자랐고, 내 아이도 성북에서 자라고 있어서 성북문화재단에 입사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동안 재단의 여러 활동들을 보면서 단순한 참여자가 아닌 주체자로 함께하고 싶다는 마음이 컸던 것 같습니다. 현재는 4년째 근무 중 입니다.

아옹이 저도 꼭 성북구에서 살아왔습니다. 처음 아리랑시네센터의 기간직으로 시작했는데 그때 팀장님께서 저를 좋게 봐주셔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행정업무들을 알려주셨고 지금까지 총 10년을 일하게 되었습니다.

팬더 정릉 신시장 사업단에서 일을 하면서 성북문화재단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하던 신시장 사업단의 사업들의 경우 재단과 함께 만나는 부분이 많았고 그때의 인연이 지금까지 6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두루미 모두 각자 자기들만의 이야기로 재단과 인연이 시작되었네요. 그런데 이야기를 듣다보니 다른 기관에서 일하다 오신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자신이 경험한 다른 기관과 비교했을 때 성북문화재단만의 장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말티즈 다른 재단에서 '문화도시'와 관련된 업무를 했었는데, 정말 많이 힘들었습니다. 몸도 많이 안 좋아지는 것 같았구요. 그래서 성북에서 좋은 건 제가 '문화도시'를 담당하지 않는 것이 장점입니다. (웃음) 물론 이 자리에 '문화도시'를 담당하는 분들도 계신데, 정말 너무 힘든 업무 같습니다.

사슴 저도 성북에서 퇴사를 했던 이유가 사실은 몸이 많이 안 좋아져서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다른 문화재단과 민간기관에서 일을 하면서 '정책'을 만나게 되었고, '문화도시'라는 커다란 지역 정책에 관심이 가서 다시 성북으로 돌아왔습니다. 재입사가 쉽지 않은 선택인데도, 제가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건 성북에만 있는 '이어짐' 때문입니다. 다른 기관들에서 일을 할 때는 만남과 끝이 항상 공존했는데, 성북은 이상하게 만남이 끝나고 이어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관계가 이어지는 특별함이 있거든요. 다른 곳에는 없고 성북문화재단만이 가진 장점이라면 저는 이 '이어짐'을 말하고 싶습니다.

펍권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북구립도서관의 이진우 부장님이 제가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사서의 모습이기에 이곳에 왔습니다. 다른 기관과 비교한 성북의 장점은 바로 이진우 부장님이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두루미 그럼 이제 장점은 들었으니 단점을 한 번 들어볼까요?
지금 신입인 분들도 계신데, 우리 재단은 신입들에게 친절한 회사인가요?

말티즈 아주 다정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특별하게 신입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 보다는 바로 업무에 투입되는 경우가 많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입사 2달이 되어가는 지금에서야 조금씩 제 자리를 찾아가는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두루미 저는 재단과 청년활동가로 처음 인연이 닿았는데, 우리 재단은 직원보다는 오히려 뉴딜이나 인턴, 청년일자리로 오는 분들에게 친절한 회사 같기도 해요. 실제로 제가 청년활동가로 처음 왔을 때는 재단의 다양한 시설들과 담당자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눌 시간이 있었고, 청년활동가들끼리의 자리도 종종 있어서 서로의 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직원으로 재단에 들어오면 이런 자리들이 별로 없기도 하고, 규정집이나 책자들은 신입의 눈으로 보기에는 읽기 쉬운 책자들이 아니기에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들은 조금 더 다정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조르디 코로나19의 영향도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코로나 이후에 한 자리에 모이는 것이 힘들어졌고, 지금처럼 서로의 이야기를 들을 기회가 없었으니까요. 신입 뿐 아니라 재단 직원들의 전체적인 교류와 환류의 자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옹이 사실 신입들을 위한 회계 매뉴얼이 없는 건 아닙니다. 저희 팀에서 만들었던 것도 있기는 한데 어려운 점은 찾는 인사이동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 업무에 익숙해지는 시기가 오면 인사이동을 해야하고 그럼 또다른 자리에서 초심자와 비슷한 위치에서 업무를 시작하게 되니, 연차가 일정 이상 차지 않는 한 새로운 업무에 대한 부담이 있습니다.

두루미 여러 가지 장점들을 들으니 오늘 아침 출근하기 싫었던 마음이 부끄러워집니다. 이어서 '내가 재단에서 하고 싶은 일'을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일이 어찌면 재단의 미래 모습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슴 저는 정책분야에서 연구기획이 아닌, 연구가 하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두 번이나 몸을 담게 된 성북에서 직접 정책을 연구한다면 누구보다 즐겁게 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처음 입사했을 때만해도 성북문화재단은 영역 확장에 치우쳐서 정책을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급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확장된 영역 만큼, 정책에 대한 책임감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햄스터 저는 재단 안에서 음악감상과 미술감상이라는 교육을 진행해보고 싶습니다. 꼭 어린이들만 아니라 주민전체를 대상으로요. 타인을 배려하면서 작품을 감상하면서 깊게 작가에게 다가가는 계기를 만들어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판매 가능한 굿즈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 반응이 좋아 해당 사업을 지속했으면 좋겠습니다.

두루미 이야기를 듣다보니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미술관은 정적인 공간이라는 느낌이 강한데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는 작품 관람이란 건 예를 들면 어떤가요?

햄스터 예전 기억을 떠올리면... 글썄요. 작품을 발로 툭툭 차는 분들도 계셨던 것 같네요.

두루미 전혀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이네요. 그런데 주민과 직접 만나는 어려움이라면 도서관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 그곳은 어떤가요?

기린 도서관은 워낙 다양한 주민들이 이용하시죠. 가끔은 '사서가 무슨 자격증이 필요해?'라거나 '바코дна 찍는 일 하면서'라는 말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런데 저희가 또 힘을 내서 일을 하는 건 도서관에 오는 다정한 분들 덕분입니다. 저희에게 선의로 다가와 사서라는 일을 존중해주고 관계를 맺어주시는 분들이 계셔 힘이 나요.

펍권 성북은 네트워크가 강하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일하던 도서관에서는 행사가 진행되면 단순히 참여 후에 가 버리는 것이 끝이었는데, 성북은 행사에 참여하신 분들이 열정적이면서 끝난 후에 피드백을 포함해서 저희와 대화를 나눠주셔서 그게 참 좋아요. 그래서 저는 성북에서 더욱 재미있는 도서관 프로그램들을 운영해보고 싶어요.

아웅이 성북은 직원들이 서로를 위해주는 문화가 있어서 좋습니다. 민간 회사에 있을 때는 동료가 경쟁자로 느껴졌는데, 이곳에서는 함께 일한다는 느낌을 줍니다. 그리고 성북에서 아이를 키우고 있는 주민으로 재단의 시설들을 아이들과 함께 이용하는 것이 정말 좋습니다. 최근에는 아이와 함께 성북어린이미술관 꿈자람을 방문했는데 아이에게 '아빠가 하는 일이 이거야.'라고 말해주었습니다.

두루미 오늘 간담회 자리에서 우리가 물쫓던 서로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 좋은데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내가 재단에서 퇴사를 한다면 어떤 이유일지 한 번 말씀해보시겠어요?

조르디 남편의 월급이 세 배 이상 오르면 퇴사해야죠. 대신 퇴사해도 재단을 후원하겠습니다!

두루미 재단을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네요?

조르디 저는 재단이 하는 모든 일들이 좋습니다. 그래서 지속되길 바랍니다. 진심으로.

말티즈 제가 고향에서 저를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성장하면 그만 둘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성북에서의 다양한 경험들을 토대로 제 고향에서 거버넌스를 비롯해서 주민들을 위한 재미있는 프로그램들을 해보고 싶습니다.

햄스터 로또에 당첨되어도 저는 그만두지 않겠습니다! (웃음) 현재 재단에서 저는 제 전공을 살린 업무를 주체적으로 일할 수 있는 것이 너무 좋고, 앞으로도 하고 싶은 일들이 남아 있습니다.

아웅이 저는 정년까지 다니고, 정년 이후에도 계약직으로 더 다니고 싶습니다. 제 아이들에게 좋은 공간과 시간을 선물하는 지금의 일이 저를 행복하게 합니다.

사슴 재입사를 한지 얼마되지 않아서 재퇴사를 고민해본적 없습니다. (웃음)

댕댕이 (웃음) 사실 저도 아이가 둘이나 있다보니 성북에서 정년을 맞이하고 싶어요. 아웅이님처럼 제 아이들에게 재단이 좋은 것들을 해주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도 계속 재단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두루미 오늘 간담회를 진행해 본 결과, 우리 재단은 직원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불편한 점이나 시스템의 문제들이 없진 않지만, 재단이 나아가고 있는 방향과 펼쳐지고 있는 자리들은 공통적으로 재단 직원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 느껴집니다. 애사심이라는 단어가 쉽게 내뱉는 말은 아니지만 오늘 자리에는 참 어울리는 말 같습니다. 우리 직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사심이 있고 서로를 향한 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모두 오늘 자리에 참석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마음이 나아가다



새로운 시작

문화도시 성북

마음이 나아가다

새로운 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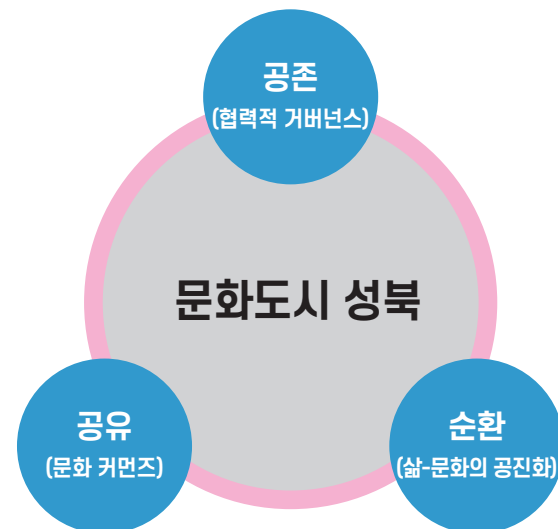
“10년 후, 성북의 주민들은 어떤 도시에서 살고 있을까?”

문화도시 성북

성북은 산(고개)과 하천 등 지형조건에 따라 형성된 자연발생적 도시 유형이다. 그에따라 산을 중심으로 대학과 주거지가 형성 되어있으며, 관내 총 8개 대학이 위치하고 있다. 또한 한용운, 이태준, 신동엽, 조지훈 등 문인들의 거점 활동 지역으로 현재까지 그에 따른 역사문화가 많이 남아있다. 그와 동시에 현재 41곳의 재개발, 재건축이 추진 중으로 역사와 전통, 현재와 미래가 공존한다.

성북문화재단은 이처럼 전통과 문화, 과거와 미래가 뒤섞여 있는 지역에 '문화'라는 중심을 세워 그럼에도 우리가 지키고 잃어버려서는 안되는 것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함께 나아가고자 한다.

문화도시 성북의 핵심 가치와 원리



재단이 그간 만들어 온 풍부한 거버넌스의 경험과 협력구조로 생활권 기반의 다양한 지역문화 활동과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고, 다양한 활동과 주체에 비해 부족한 기반 시설을 지원한다. 그렇게 역사문화 중심의 도시정체성이라는 한계를 청년들이 배우고, 일하며, 생활하는 지역생태계 조성을 통해 극복해 나아가는 중이다.



청소년 축제 - 기고만장



나는___어린이 - 그냥 놀고 싶어!



성북청년시민모교지 참여



문화도시 시민원정대

재단은 이러한 노력과 방향성을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 참여를 독려하여 단순한 수혜자가 아닌, 문화도시 성북의 주체적 구성원으로 끌어들이고 있다. 그리고 현재는 성북문화도시협력센터를 거점으로 공동센터장(민+관) 포함 10명의 전문인력과 지역문화 주체로 구성된 운영단,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워킹그룹과 지역 내 다양한 공론장을 운영중이다.

성북구, 제4차 예비문화도시 선정

f t v b blog | 0



서울신문 기사 화면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11203500065&wlog_tag3=naver

2021년 제4차 예비문화도시로 선정된 성북구는 앞으로도 성북의 기존 공론장을 확대하여 문화도시를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들을 확장시켜 나갈 것이며, 주민들이 주체적으로 만드는 삶과 문화의 순환도시를 위한 협력적 실험과 문화민주주의 실천의 장을 펼쳐 나갈 것이다. 이는 공존(협력적 거버넌스), 공유(문화 커먼즈), 순환(삶-문화의 공진화)이라는 뚜렷한 운영방향 아래에서 진행될 것이며, 이로 인해 성북은 새로운 내일에 한 걸음 다가갈 것이다.



성북공간공론장

<성북구 문화도시 사업 종합구상도>

비전	삶과 문화의 순환도시, 성북		
핵심가치	공존 (협력적 거버넌스)	공유 (문화 커먼즈)	순환 (삶-문화의 공진화)
목표	지역문화생태계의 지속가능성과 안전망 확보	문화와 예술을 통한 시민력 형성	공존, 공유, 순환의 문화도시 기반 구축
전략	성북지역문화생태계 모델의 제도화	시민력에 기초한 도시 문화자원의 연결과 공유	도시 정책의 전환을 위한 새로운 협력체계 마련
사업	01. 예술인 주거복지 지원 02. 동네 예술일자리 연결센터 03. 성북아트프로덕션	04. 도서관은 실험실 05. 지역대학협력사업 : 성북은 대학 06. 성북생활문화공간 연결도시	07. 역사문화여행도시 성북 08. 문화다양성플랫폼 : 세계음식문화축제 누리마실 09. 서울 동북권 문화도시 네트워크센터
10. 코로나 팬데믹 너머 프로젝트 : 성북문화예술교육 허브			
추진체계	문화도시 사업을 매개로 성북의 기존 공론장과 협력적 거버넌스들을 연결, 확장	현장 중심의 성북문화도시 협력센터 구성 : 공동센터장제도(민간+행정)와 워킹그룹이 주도하는 운영체계 구축	성북구청 문화도시추진위원회와 성북문화재단 미래발전기획위원회 : 문화적, 중장기적 관점에서 정책협의체계 활성화
조직	성북문화도시 행정협의체 성북구청 성북문화재단 성북문화도시추진위원회 성북문화도시 공동센터장(민+관) 성북문화도시센터 사업팀 성북문화도시센터 운영단 워킹그룹10+(10개 사업의제별 워킹그룹 외)		



2012~2022 성북문화재단 10주년 백서

발행일 2022.10.
발행처 성북문화재단
주소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리랑로12길 4
전화 02-2038-4901
전자우편 master@sbculture.or.kr
홈페이지 www.sbculture.or.kr

기획 문화정책팀
디자인 백호현
인쇄 라임애드





성북문화재단
10주년 백서

10

